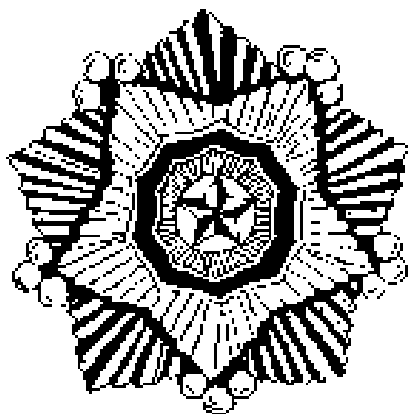


11

주체 88 (1999)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88(1999)년 제11호

(루계 제 625 호)

◇◇◇◇◇◇◇◇◇◇

## 차 례

◇◇◇◇◇◇◇◇◇◇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불멸의 대강.....	4
영원한 별 김정일 .....	7
포수모자.....	8
차창의 달.....	10
무봉목욕탕에 깃든 사랑의 이야기.....	11
뜨거운 그 품에(외 1 편).....	12
다양한 시점에서 풍만하게 그려진 위인의 숭고한 인간세계.....	13
농장원의 인사.....	16
대동강의 쌍무지개 .....	16
주체건축의 새 역사를 펼친 위대한 령도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화폭.....	17
칠보산탐승기 .....	23
《도식은 문학과 독자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다.》 .....	32

내 조국의 딸이 되리 .....	32
기적의 힘 .....	33
체력년령을 자체로 측정하는 방법 .....	34
아침보도는 짧았다 .....	35
정성옥선수는 시를 썼다! .....	35
정성옥 그대의 주로를 따라 .....	36
영원한 복무 .....	37
조국의 품에 닳을 내려 .....	43
대흥단아 내가 바로 내 고향 .....	45
흙, 뿌리 .....	46
지력이 높은 사람의 성격적 특징 .....	57
뜨거워다오(외 2 편) .....	58
그도 간호원이었다 .....	59
5 천년을 찾아 .....	60
인생과 병사시절 .....	70
내 고향 바다가의 푸른 잣나무 .....	71
청춘의 졸업증 .....	71
고려태조의 신하 .....	72

##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불멸의 대강

최길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53(1964)년 1월 7일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어느덧 35돌이 된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구보행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우리 인민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적극 고무추동하는 혁명적인 작품창작에 모든 심혈을 쏟아부으며 고전적로작의 불패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심장으로 느끼며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무용과 같은 문예부문일군들의 역할은 매우 큼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해야 할뿐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는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우리 작가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문헌이며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불멸의 대강이다. 고전적로작에서 제시된 혁명적문학예술의 주제방향과 생활내용, 전형화에서 나서는 제반 창작실천적인 문제들은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작품창작에서 시종일관 틀어 쥐고 구현해야 할 고전적가르치심이며 우리 작가들의 창작을 힘있게 추동하고 이끌어주는 고무적 기치이다.

우리 문학은 고전적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35년간 주체문학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받으며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의 년대를 새겨놓았다.

오늘 우리 문학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도록 그들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으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시대의 앞장에서 투쟁과 위훈의 고무적기치로 세차게 나뭇기고있다.

고전적로작에서 제시된 주체적문예사상을 관철하는 길에서 이룩된 성과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작품의 사상미학적 감화력이 비상히 높아진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복무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기본사명이다.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문학은 마땅히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발양되는 영웅적위훈과 아름다운 소행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사람은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올바른 해답을 주어야 한다. 시대의 물음에 올바른 해답을 주는 문학만이 사람에 대한 사상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생활인식의 믿음직한 수단으로, 문화정서적수양의 친근한 벗으로 될수 있다.

문학이 주체혁명위업에 이바지한다는것은 결국 혁명의 자주적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 문학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인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적극 복무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자기의 근본사명에 맞게 수령형상을 핵으로 하여 힘있게 전진하고있으며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하여 찬란히 발전하고있다. 오늘 수령형상작품들은 사람들을 혁명적수령관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한몸 다 바쳐 싸워나가도록 하는데서 비상한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과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을 비롯하여 우리 문학의 모든 형태에 걸쳐 다양한 형식으로 창작되고있는 수령형상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따라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으로 우리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 변함없이 충성과 효성의 길을 가도록 줄기차게 이끌어주고 있다.

최근 수령형상문학에서 이룩된 특기할 사변은 수령영생문학의 새 기원이 마련된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뜻밖에 영결하는 대국상을 당하였다. 만민의 위대한 태양을 잃은 슬픔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며 온 우주가 몸부림치고있을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와 똑같이 수령형상창조를 변함없이 우리 문학예술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수령영생문학창작으로 우리 작가들을 힘있게 고무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문학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을 비롯하여 추모실화집 《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 문학 작품집 《영원한 태양》, 시집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아동문학작품집 《영원히 함께 계세요》 등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다양한 형식의 문학작품들은 시대와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다채롭게 창조하고있다.

수령영생문학에서 궁지없이 말할수 있는것은 서사시문학의 새로운 혁신이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를 비롯하여 어버이수령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창작된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와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 등은 수령영생문학의 새 기원을 빛나게 장식한 기념비적작품들이다. 특히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는 우리 식 서사시의 새로운 면모를 과시한 작품들로서 수령영생문학의 최정상에 오른 시대의 명작들이다.

최근년간 찬란히 개화발전한 수령형상문학예술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불멸의 기념비적 명작들이 창작된것이다.

만고절세의 위인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김일성민족의 주체위업송가로서 시대와 인류와 우리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탄생하였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세기의 하늘높이 메아리치게 된것은 주체문학예술이 누린 궁지이고 영예이며 특전이다.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형상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자기의 본색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문학의 전반적양양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들인 《력사의 대화》, 《평양은 선언한다》, 《전환의 년대》, 《평양의 봉화》를 비롯하여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한 수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으며 이 모든 성과들은 주체적인 수령형상문학의 모토를 더욱 풍부히 장식해주고있다.

우리의 수령형상문학은 그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비상한 감화력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령도자의 위업실현을 위하여 구보로 달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에서 제시된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방침을 관

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는 또한 당의 사상을 훌륭히 구현한 혁명적인 문학작품들이 활발하게 창작된것이다.

오늘 우리 문학에 있어서 기본문제성은 당정책이며 이를 관철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이 기본생활분야로 반영되고있다.

고전적로작에서 혁명전통교양의 폭을 넓힐데 대하여 밝혀준 사상을 지침으로 항일유격투쟁을 반영한 작품을 활발히 창작하면서 해방후 새 조선 건설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내용,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등이 우리 문학의 중요 주제분야로 되고있다.

특히 우리 작가들은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련속되는 자연재해를 극복하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구보로 달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생동하게 반영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고있다.

여기에서도 시대정신의 최첨단에서 투쟁의 기치로 힘있게 나래치고있는 시가문학이 훌륭한 창작성과로 문학의 화원을 빛내이는것은 특별히 자랑스러운것이다. 우리 시가문학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하는 쇠소리나는 작품들을 련속 내놓고있으며 이 모든 작품들은 시대정신의 대변자로서 사람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오늘 우리 시문학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결사옹위정신이 나래치는 여러가지 형식의 작품들을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하여 내놓고있다.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 《전선길의 3일이야기》, 시조 《군민의 노래》와 《영웅찬가》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대의 명작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군인정신과 혁명적 량만이 뜨겁게 끓이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이다.

장편소설들인 《백금산》, 《전선사단》, 《산촌의 화불》, 《수평선》, 《생의 언덕》 등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반영한 큰 형식의 작품들이 왕성하게 창작되었으며 참신하고 감칠맛있는 단편소설들이 시대와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풍성하게 창작되었다.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서사시적화폭에 담은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에 묻다》(1부)를 비롯하여 조국통일주체의 작품이 여러가지 형식으로 많이 창작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반미, 반일, 반괴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교양주체의 작품들이 전례없이 활력있게 창작되고있다.

이 모든 주체의 작품들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형상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에 풍부한 영양소를 안겨주고있다.

우리 문학은 문제성의 적극적인 탐구와 구현에 서뿐 아니라 형상수법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있다.

송년시 《눈이 내린다》와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가 새로운 형식으로 훌륭하게 창작되었으며 산수려시 《내 나라의 명산-칠보산》이 이채로운 양상으로 창작된것을 비롯하여 추대시, 축하시, 추모시 등 다채로운 시가작품들이 창작되어 시문학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있다.

창작에서 새로운 양상의 탐구책척은 아동문학 부문에서 눈에 띄이게 그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유년기문학이 다양하게 창작되었으며 지능동화, 속담동화, 운문소설 등이 개척되었으며 우화문학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힘있게 창작되고있다.

특히 아동문학분야에서는 동시조 《장군님과 아이들》을 비롯하여 아동문학작가들의 집체적지혜가 낳은 성과작들을 많이 내놓고있으며 이것은 금후 아동문학의 혁신적인 발전을 전망하게 하는 매우 좋은 시사로 되고있다.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우리 작가들의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이시고 위대한 스승이시며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뜨거운 사랑과 배려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발표하시여 우리 작가들에게 시대의 명작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명작창작의 근본방도들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여주시므로써 작가들로 하여금 명확한 목표와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명작을 창작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투쟁을 진두지휘하시며 최전연초소들을 현지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작가들의 작품을 지도하시여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 5년동안에만도 무려 690여편의 가사, 서정시, 서사시, 장시를 지도하여 주시였다. 이 놀라운 수자는 우리 장군님께서 매해 평균 139편, 매주 평균 2~3편씩 보아주시고 친히 가필까지 하여주시여 명작으로 되게 하여주시였음을 실증하는것이니 참으로 장군님의 그 정력적이고 세심한 지도야말로 우리 문학의 승승장구성을 담보하는 힘이였고 생명력이었다.

력사는 아직 경애하는 장군님처럼 작가들을 친절히 가르쳐주시고 극진히 돌봐주시며 내세워주시는 자애로운 령도자를 알지 못하고있다.

작가와 작품을 그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창작지도에서 부족점을 찾은것보다 대안을 주어 성공시키는 원칙에서 작가들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비록 설

익고 미흡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작가의 발견이나 탐구의 흔적이 있으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싹틔워 열매맺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하여 그이의 천재적인 지도를 받기만 하면 창작적충동이 솟음치고 환상이 내려쳐 작품을 훌륭히 완성해내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만능의 예지로 우리 작가들의 창작을 지도해주시였을뿐아니라 새 세대 작가들을 찾아내시여 명성을 떨치게 이끌어주시였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가 창작되었을 때 그 작품의 성과와 의의를 제일먼저 높이 평가하여주시신분은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시인이 담이 크고 사상이 결백하며 정서가 풍부하다고, 당과 혈맥이 상통하는 우리 당의 진짜배기시인이며 세계적인 시인이라고, 로동계급출신의 시인이여서 더 기쁘다고 기뻐하는 때가 있을 때마다 거듭 치하해주시면서 그에게 최상의 영광과 주실수 있는 온갖 배려를 다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 서거 5돐에 드리는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가 창작되었을 때에는 서사시의 사상예술적성과를 최정상에 올려 세워주시고 안겨줄수 있는 최대의 믿음과 사랑과 은정깊은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던 다재다능한 세계적인 대문호라는 최상의 영광을 안겨주시신 작가 백인준을 비롯하여 혁명시인 조기천, 리찬과 리기영, 천세봉, 석윤기, 조령출 등 많은 작가들이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었으며 세월의 망각속에 영영 묻혀 버릴 뻔한 소설가 한설야의 명예도 다시 회복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해같이 넓고 다심하고 인정깊은 사랑은 작가들 모두에게 미치였으니 천리방선의 전선길과 북방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밤낮이 따로 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병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시고도 작가들의 수고를 헤아리시였고 숙보판에 붙은 한편의 가사를 보시고도 작가들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며 믿음을 주시였다.

특별히 중요한 공연을 보실 때에도 친히 작가들을 가까이 부르시여 함께 공연을 관람하도록 최대의 영광을 베풀어주시고 진귀한 남방과일이 나 물고기가 생겼을 때에도, 시험포전에서 처음으로 가꾼 첫물 풋강냉이와 수박이 생겼을 때에도 맨먼저 작가들에게 보내주시는 어버이의 자애로운 그 사랑, 그 믿음으로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국가적명절이나 창작적성과가 있을 때마다 《**김일성**상》과 로력영웅,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고 작가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강행군 시기에도 특별휴양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위대한 사랑과 한없는 신뢰와 믿음이 우리 작가들의 삶의 영양소가 되

고 창작의 무한대한 원동력이 되었으니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이룩된 풍만한 결실은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예지, 비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과인것이다.

우리는 지금 20세기의 령마루에서, 새 세기를 바라보는 력사의 전환점에서 신념과 락관을 가지고 주체문학의 미래를 내다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에로 도약하는 우리들은 오늘 격동적인 사변들에 접하여 창작적 충동과 열정에 끓어번지고있다. 《광명성 1호》의 성과적인 발사로 세상을 들었다놓은 우리 나라는 세계 《마라손녀왕》 정성옥선수의 배출로 다시한번 세계를 놀래우고 천출명장을 모신 주체조선, **김일성**민족의 슬기와 담력과 기상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하여 지금 우리 인민은 신심드높이 기세충천하여 강성대국건설의 구보행군을 박차를 가해 다그치고있다.

이 위대하고 격동적인 현실은 우리 작가들을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보다 큰 양양으로 힘차게 부르고있다.

천하제일명장의 선군혁명령도로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미래가 눈앞에 있다. 작가들이여, 분발하여 붓대를 달리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여야

한다. 시대의 명작은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가 구현된 작품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감정정서를 구현하는 여기에 시대의 명작을 창작할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다.

모든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담력과 의지로 온 심혈을 불태우며 그이의 감정, 정서를 그대로 창작에 구현하기 위하여 사색하고 탐구하고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실력전은 작가의 재능을 겨루는 전투이다. 재능은 작가의 생명이다. 우리는 창작적재능을 부단히 련마하기 위하여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학습하고 사색하고 탐구하여야 하며 재능있는 작가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혁명적인 현실과 그속에서 탄생하는 시대의 주인공들과 한몸이 되어 일하며 생활하며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시대와 현실은 위대한 창조물을 기대하고있다. 모두다 당의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 영원한 별 김정일

름푸앙쏘니 베나조

못별들이 구름속으로 자취를 감추어도  
류달리 빛을 뿌리는 별  
그 별 조선에 솟아있거니  
그 별은 **김정일**

온 우주를 밝히는 별  
어제날의 치욕과 멸시를 가셔버린 땅에  
행복한 삶 가져다주신 그이

**김정일** 그이는  
기쁨과 행복의 상징  
조선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안아오시고  
인류의 영예를 구원하실분

온 세상 그 어디에 가나  
그이의 이름 존경과 영광으로 불리우고  
그이의 령도를 높이 찬양하여라  
그이의 위대한 업적을 노래하며  
그이께 존경과 흠모의 정 표시하여라

그이는 향도의 별  
찬란한 빛발로 온 세계를 영원히 비쳐주거니  
현대조선의 영원한 별  
그이를 모심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가장 행복한 인민  
세계는 그이께 경탄과 선망의 눈길 돌리어라

그이께서는 조선의 통일을 이룩하실분  
억압받는 인민들을 구원하실분  
하기에 인류는 영원히 그이를 우러러모시리

우리는 축원하노라  
그이께서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계승해나가기  
를  
인류의 구성이신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필자는 민주공고사람임)

## 포수모자

무릇 세계 전쟁사와 군대사에는 수많은 명장들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다.

력사에 악명을 떨친 고대로마의 케자르는 민심을 그러쥐는 독특한 웅변으로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으며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트로이목마로써 전승을 이룩했다. 유라시아대륙을 종횡무진하면서 침략의 말발굽소리로 천하를 진동시킨 칭기스칸과 민중의 융합을 기도한 알렉산더대왕은 대원정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대군을 거느리고 알프스산을 넘은 한니발과 함대를 끌고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오스만의 마흐메트는 계책의 영웅으로 받들려졌다.

오늘도 프랑스사람들이 《전쟁의 천재》라고 부르는 침략의 화신 나폴레옹은 빠리의 반돔광장 높이 44미터의 단우에 청동의 군상이 되어 서있다.

력사는 인간살육과 랍탈로 인류에게 전대미문의 불행을 들썩운 히틀러도 기억하고있다.

각이한 민족, 각이한 나라의 영웅, 명장, 군사가들의 이야기는 허다하다.

그러나 천고의 력사를 들추고 만권의 명서를 펼쳐보아도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신으로 맞서 싸우시며 언제나 이기시는 우리 장군님과 같은 천하무적의 명장에 대해서는 인류가 아직 모르고 있다.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준엄한 천리전선길을 헤쳐가시는 길우에는 자욱 자욱 새로운 전설들이 창조되고있으니 이것은 너무도 웅대한것이다.

주체85(1996)년 2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의 최전연인 351고지를 찾으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는 삽시에 쑥서놓은 별둥지마냥 소란해졌다.

세계의 이름있는 신문, 방송, 통신들이 일제히 수수한 야전복에 짧은 채양이 달린 털모자를 쓰시고 바람세찬 고지에 근엄히 서계시는 장군님의 영상을 모시었다.

《백두산의 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범을 잡는 포수들의 모자를 쓰시고 최전연을 시찰하시였다. 북조선에 대한 제국주의련합의 《고립》, 《압살》이 최절정에 오른 이때 포수모자를 쓰고 적과의 거리 1,300미터에 불과한 최전연에 신출귀몰하는 **김정일**장군이 뜻밖에 나타나신것이다. 장군의 사격술은 너무도 명성이 높아 《사냥터》에 이르지자마자 온갖 맹수들이 꼬리를 사리었다.》

이것은 서방의 한 군사잡지가 특별란에 실은 글이었다.

이 글을 실은 잡지로 말하면 세계 각국의 군사 정치 정세와 정보를 연구분석하고 군대의 전투력을 평가하며 뛰어난 명장들의 무훈과 특징을 소개하는 이른바 《군사두뇌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권위있는 잡지였다.

잡지발행인이며 특별란에 이 글을 낸 로버트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영국군병사로 수많은 전투에 추격기비행사로 참가하였으며 한때 작전일군으로 나토군사령부에서도 일한바있었다.

그후 그는 룩군섬에 있다가 퇴역한 장성이었다.

이러한 그는 사실상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하여서는 깊이 모르고있었다.

로버트가 처음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된것은 자기의 한 친구때문이었다.

어느날 아침 락하산병출신의 리차드소좌가 자기는 곧 조선전선으로 출동하니 작별인사를 하러 왔으면서 잠간 그의 집에 들린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친구에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고 물었었다.

《그전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라고 하더군. 지금 미국이 15개 나라 군대들로 무은 <유엔군>과 전쟁을 한다니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 약소 민족은 이제 곧 지구상에서 종말을 고향거네. 크리스마스전으로 전쟁이 끝날테니 난 잠간 약혼식전으로 돈을 좀 벌어요려네.》

약혼식을 두달 앞두고 조선전선으로 출병하였던 리차드소좌는 1년후 만신창이 되어 돌아왔다.

대수술을 하여 몸에 박힌 탄알 4발중 3발은 성공적으로 뽑아냈으나 한발은 그때로부터 36년간 인체를 돌고있었다.

그때문에 결혼도 못한 그 친구는 68살에 다시 수술대에 올랐으나 마지막탄알은 뽑지 못한채 영원히 저승길로 갔었다.

그때 리차드는 병상에 누워 로버트에게 조선에는 일제를 때려부시고 미제를 굴복시킨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이 계신다고 말하였다.

이후 로버트는 나토사령부에 있으면서 미국이 얼마나 조선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없애버리려 하였는가를 잘 알게 되었다.

남조선과 그 주변수역에 해마다 증파되는 군사 장비들과 집중되는 무력수에 대하여 손금보듯 알고있는 로버트로서는 웅군 한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무력앞에서 굳건히 버티어나가는 조선을



놀라운 눈길로 지켜보았다.

여전히 전쟁의 위험이 떠돌고있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주시해왔으나 미국은 반세기가 지나도록 한번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로버트는 백전백승하는 그 나라의 비결이 다른 아닌 로숙한 혁명의 사령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기때문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미국의 호전계층이 미쳐날뛰며 《〈푸에블로〉 호 사건》과 《판문점사건》을 일으켰어도 조선은 끄떡없이 동방에 거연히 솟아있었다.

군사대국이었던 소련이 하루아침에 총 한방 쏘보지 못하고 무너진후 2극화의 세계는 다극화로 바뀌어 저마다 군사대국화로 줄달음쳤다.

이리하여 로버트는 군사잡지에 다섯마리의 사나운 범들이 나와 으르렁거리는 만화를 편집하였다.

그 다섯마리의 범은 바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우두머리들의 몰골이었다.

그가운데서도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압살》책동은 도수를 넘어서고있었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 재개에 조선은 《준전시상태》선포로 대답해 나섰다.

그후 세계는 지구상의 대국상인 **김일성**주석님의 애석한 서거로 하여 비애에 잠긴 조선인민을 보며 이 나라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하고 론의가 분분하였다.

백악관의 우두머리들은 그 무슨 《붕괴설》을 내돌리며 이제 곧 북조선의 요새에서 붉은기가 내리워지고 흰기가 오르게 된다고 지껄여댔다.

사실상 제국주의의 압력과 몇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는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고난의 행군》을 단행케 했으며 그들에게 말할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들썩웠다.

그러나 이듬해가 다 지나도 붉은기는 결코 내리워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혁명가요가 더 높이 울리었다.

미제호전광들은 《무력압살》만이 방도라고 하면서 이해 정초부터 군사적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나토군사령부시절의 안면있는 한 미군장성은 로버트를 만난 자리에서 극비문건을 보여주며 《어제 미국방장관 페리는 〈미국의 사활적리익〉을 위태롭게 하는 《북조선의 위협》을 억제하며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장성들앞에서 명령했다네.》라고 슬쩍 말해주었다.

로버트는 이미 정초에 미군의 공격용핵잠수함 《버밍햄》호가 남조선에 들어갔고 2월에 항공모함 《인디펜던트》호가 조선동해로 출동하였으며 핵잠수함과 핵전략폭격기 등 공격용작전장비까지 투입하여 《벨리언트 아서 96-2케이》해상합동군사연습이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되고있음을 군사정보를 통해 장악하고있었다.

(조선은 이제 어떻게 나올것인가?)

이것은 미국만이 아닌 세계 모든 군사평론가들이 주시하는 초점으로 되었다.

그러나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일**최고사령관은 자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가시여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군한다고 했으며 여전히 국가의 최고직을 비워두신채 인민군군부대들을 끊임없이 찾으신다고 하였다.

과연 북조선의 주체85(1996)년 전략적의도는 무엇이겠는가?

해마다 북조선에서는 설날이면 **김일성**주석님께서 신년사를 하시며 한해동안의 성과를 총화하고 새 과업을 주는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2년째, 당보에 공동사설이 발표되었을 뿐 **김정일**최고사령관이 공식석상에서 시정방침을 내놓거나 발언하신 소식이 없어 그 깊은 의도를 도저히 알수가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김정일**장군이 2월의 눈보라를 헤치시고 불과 적과의 거리가 천여미터밖에 안되는 최전연의 351고지에 나타나셨으니 세계는 실로 경악실색할 정도였다. 그것도 어느때 없는 포수모자를 쓰시고 근엄한 표정으로 세계앞에 나타나신것이였다.

**김정일**장군님으로 말하면 허례허식을 제일 싫어 하시는분으로 잘 알려져있다.

그분께서는 늘 잠바웃은 자신의 전투복이라고 하시며 그 어디에 가시여도 그 차림으로 다니시었다.

뿐만아니라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시고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한번 금빛견장이 달린 원수복을 입으신적이 없으신것이 다.

그러므로 그이의 외모에서의 변화는 깊은 뜻을 담고있다고 해야 할것이었다.

그러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쓰신 범사냥군모자는 무엇을 뜻하는것인가?

로버트는 마치도 자기의 잡지사에서 낸 만화에 나오는 다섯마리의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를 잡으시려고 명사격술을 지니신 **김정일**장군님께서 포수차림으로 나타나시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특별란에 낸 글의 마감을 이렇게 맺었다. **《김정일**장군의 저 수수한 야전복과 포수모자를 보니 나에게는 한 원수의 모자가 생각난다.

우리 영국군의 자랑이었던 몽고메리원수는 생전에 늘 장군모표와 장갑병모표를 함께 나란히 꽂은 군모를 쓰고다니군하였다.

나는 언젠가 그에게 당신은 어째서 그 유별한 군모를 쓰고다니기 좋아하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러자 2차세계대전의 특출한 공로자인 원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각 부대 관병들은 이 모자를 보기만 하면 내

가 왔다는것을 인차 알게 될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나의 관심이 크다는것을 알게 되며 내가 안전한 후방에 들어앉아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나는 제1차 세계대전시기 소대장도 하고 참모로도 복무하였지만 총사령관은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 이것은 관병들의 전투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였다.

그래서 나는 눈에 잘 띄우는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닌다.》

이것이 몽고메리원수의 유명한 모자일화이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의 포수모자는 이에 감히 대비할수도 없는 모자이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에 단호히 맞서나서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직접 범사냥군의 모자를 쓰고 〈범〉을 잡으러 나오신것이다. 그이께서 <사냥터>에 나오시자 목표로 삼은 〈맹수〉들은 어디론가 다 꿈무늬를 사리고 말았다.

그이께서 제일처음 방아쇠를 당길 목표는 어느 〈범〉인가?》

로버트의 이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달후인 주체85(1996)년 3월 29일 **김정일**장군님의 단호한 결심이 담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의 담화문이 세상에 공포되였다.

담화문에는 이렇게 지적되어 있었다.

《남조선피뢰들이 실전을 작정했다는것이 명백해지고 물리적총성만이 남아있는 오늘의 준엄한 시점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웅당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다.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우리 인민군대의 사명은 침략행위를 방어하는데만 국한되어있지 않다.

불은 불로, 몽둥이는 몽둥이로 다스리는것이 우리 군대의 기질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남조선피뢰들이 감히 우리 조국의 한치의 땅, 한포기의 풀이라도 건드린다면 강력한 자위적조치로 짓몽개버릴것이다!》

로버트는 자기 잡지에 특별글을 발표한 다음 일약 유명해졌다.

본인자신도 일생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의 《무훈》보다도 이것을 더 큰 자랑으로 여긴다고 한다.

예로부터 적진에 화살 한대 날리지 않고 이기는 장수를 명장중의 명장이라고 하였다.

하다면 모자 하나로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놈들을 혼란에 빠뜨리였으며 미제와 피뢰들의 무모한 전쟁책동을 단숨에 짓몽개버리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천출명장으로 높이 칭송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것인가.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해 2월 미군과 남조선 피뢰들이 《벨리언트 아서 96-2케이》 해상합동군사 연습을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공격용핵잠수함인 《버밍햄》호의 추진기가 고장나 제시간에 기동하지 못하는 바람에 군사훈련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첨단기술을 도입한 현대적인 잠수함에서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고 한다.

아마도 포수모자를 쓰시고 근엄한 표정으로 351고지에 서계시는 장군님의 영상을 보자 적들은 얼흔이 빠졌던 모양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쓰신 포수모자와 관련하여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흥미있는 전설들이 날을 따라 더 많이 창조되어 전해지고있다.

**김우경**

## 가사

## 차창의 달

**정렬**

굽이굽이 달려가는 전선길 천리  
야전차의 차창엔 달이 솟았네  
장군님 가시는 깊은 밤길에  
밝은 빛 다 모아서 비쳐주려마

지나오신 로고의 길 쓸어만지는  
인민들의 마음인가 달빛흐르네  
장군님 피로를 잠시 푸시게

이 세상 고요만을 없애주려마

오시는 험한 령길 비쳐주던 달  
멀고 험한 전선길 따라서 가네  
쌓이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  
안녕을 바란다고 아뢰주려마

달아 달아 차창의 달아



## 무봉목욕탕에 깃든 사랑의 이야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충실히 일하고있습니다. 그는 나라의 크고작은 일을 다 맡아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있습니다.》**

백두산아래 첫동네-무봉로동자구는 조국의 지도우에 하나의 점으로 표시되어있는곳이지만 절세의 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고 뜨거운 사랑이 숨배여있는 력사의 땅이다.

주체88 (1999)년 8월 10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량강도 삼지연군 무봉로동자구를 찾으시였다.

무봉청년발전소에 이어 무봉목욕탕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문득 욕조의 물온도가 얼마인가고 물으시였다.

물온도를 25~30도 보장한다는 한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물온도가 25~30도이면 차다고 하시면서 한증을 하지 않고 목욕만 하는 사람들, 특히 늙은이들에게는 물이 차서 나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물온도가 낮은것은 잘못되었다고,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물온도를 35도이상 올린 다음 목욕탕을 운영할데 대하여 일군들에게 다시금 다심하게 깨우쳐주시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목욕탕을 돌아보시면서 한 일군에게 목욕탕벽체의 두께가 얼마인가고 물으시였다.

그 일군이 벽체의 두께는 50센치메터인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2중벽체를 하였다고 보고올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잘되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올해 겨울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눈폭풍이 타래쳐 오르던 눈길을 몸소 걸어 헤치시며 무봉마을을 찾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장군님의 모습이 떠올랐던것이다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해놓는데 그치지 말고 인민들이 덕을 보게 전기화의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날 그이께서는 발전소

에서 나오는 전기로 몇달동안에 무봉마을의 모든 살림집들을 전기난방화할데 대해서와 농촌문화주택형식의 목욕탕을 전국의 본보기가 되게 한동 잘 지어 무봉사람들이 문화위생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푸시였다. 그러시면서 무봉마을은 높기때문에 목욕한 사람들이 휴게실에 나와도 추운 감을 느끼지 않게 2중벽으로 하여 열손실을 없애기 위한 방도까지 세심하게 가르쳐주시였다.

그후에도 장군님께서서는 무봉마을의 목욕탕과 한증탕의 설계를 위해 량강도설계일군들이 1211고지를 비롯한 최전연의 인민군초소들에 훌륭하게 건설된 목욕탕과 한증탕을 견학하도록 은정깊은 조치까지 취해주시지 않았던가.

이렇듯 그이께서 무봉로동자구를 전국의 본보기가 되게 꾸리기 위한 세심하고도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도 마을사람들이 이제는 추운 겨울에도 마음껏 한증과 목욕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는데이다.

이때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탈의실옷장에 걸려있던 옷걸개를 가져다올렸다.

장군님께서서는 몸소 옷걸개를 보아주시며 어디서 만들었는가고 물으시고는 색깔을 칠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그이께서는 그러지 말고 일정한 크기로 잘라 만든 나무못을 박아 옷을 걸면 좋겠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정녕 무봉목욕탕의 물온도와 2중벽, 나무못 하나하나에는 사색과 실천도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인민의 편의를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민의 정이 뜨겁게 어려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눈보라 기승치는 추운 겨울날에도 삼복더위 뜨거운 폭양속에도 찾아오시여 베푸신 사랑, 가시며 남기신 사랑 가득가득 쌓이고 넘쳐 무봉로동자구는 공산주의리상촌으로 전변되게 되었다.

우리 인민을 반복의 꽃방석우에 앉혀주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친어버이심정으로 생활의 구석구석 돌보아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과 같은분은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

## 뜨거운 그 품에 외 1 편

권오준

얼마나 보고싶으셨으면  
그날 별들도 깊이 잠든 밤  
전연초소를 다녀오신 그길로  
찬바람에 옷자락 날리며 오시었으랴

얼마나 그리우셨으면  
승용차전조등 불빛으로  
하나하나 돌사진들을 비쳐보시며  
밤길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셨으랴

자신보다 동지들을 더 아끼시는 그이  
뜬눈으로 한밤을 지새우시며  
마지막숨결을 지켜서시였던  
사랑하는 전사도 여기서 다시 만나시고

혁명의 장장수만리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충신의 자옥을 새겨온 그 많은 련사들과  
마음속 대화도 나누시는  
우리 장군님

위대한 그 사랑 그 의리 안고  
이름도 생일도 서로 다른 애국렬사들이  
한날한시에  
돌사진의 모습으로 함께 태어나는  
전설같은 이야기 꽃피었으니

애국의 순결한 뉘  
눈비에 젖을세라  
세월의 이끼에 덮일세라  
뜨거이 안아주신 그 한품에  
아, 애국렬사릉 네가 솟아있구나

## 영생의 언덕에서

이 세상 가장 진한 향기 풍기는  
꽃송이들로 무어 진  
장군님 보내주신 화환앞에서  
나는 깊이 생각에 잠기노라  
-삶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조국이 잊지 않는 련사들을  
돌사진에 새겨  
영생의 모습으로 빛내주신  
장군님의 그 의리에 가슴이 젖어  
나는 뜨거이 속삭이노라  
-삶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 장군님 못잊으시여  
아 꿈결에도 못잊으시여  
그리워 추억하시는  
렬사들...  
영웅들...

이 세상에 수천수만 수억의 인생들이

태여 나고 떠나갔건만  
추억속에 남은 사람 몇이던가  
영생하는 삶은 그 얼마이던가

살아 누려가는 참된 행복도  
죽어 빛나는 영생의 그 삶도  
우리 장군님 추억속에 있음을  
가슴뜨겁게 새겨주는  
돌사진의 모습들이여

아, 내 한생 걸어갈 충효의 길도  
여기서 찾으리  
내 한생 꽃피갈 애국의 뉘도  
여기서 간직하리

삶의 첫자옥도 여기서 떼고  
생의 마무리도 여기서 매듭지으리라  
그래서 나도 오, 나도  
우리 장군님 못잊어 추억하시는  
태양의 전사가 되리라  
애국충신이 되리라



## 다양한 시점에서 풍만하게 그려진 위인의 숭고한 인간세계

김성복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훌륭하게 씌여진 작품을 받아안을 때 제일 큰 기쁨을 느끼게 되며 그 작품을 낳은 작가에게 마음속으로 존경의 인사를 올리곤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백보흠, 송상원)과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정기종)는 우리 독자들에게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위인의 숭고한 인간세계를 폭넓고 깊이있게 펼쳐보여주었으며 우리 인민의 심장이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마음으로 끝없이 높뛰게 하여주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시점에서 위인의 숭고한 인간세계를 조금도 손색없이 형상한 작가의 말없는 수고가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도 인간생활을 작가나 제3의 인물의 시점에서 그리기도 하고 수령의 시점에서 깊이있게 그리기도 하여야 한다.》**

수령형상작품에서 작가는 생활을 다양한 시점에서 그리면서 위인의 숭고한 인간세계를 풍만하게 펼쳐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과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에서 작가들은 저 하늘의 태양같이신 수령의 모습을 풍만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작가의 시점에서 열정적인 토로를 주기도 하고 구체적인 인물의 시점에서 수령의 위인상을 그리기도 하며 특히 수령의 시점에서 그 내면세계를 감동적으로 펼쳐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우리 독자들은 작가가 이끄는데 따라 다양한 시점으로 번갈아가면서 위인의 숭고한 인간세계를 감동적으로 받아안게 된다.

### 1. 작가가 형상한 수령의 내면 세계와 영생철학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의 감동적인 화폭들을 깊이 음미해보느라하면 눈앞에 방불하게 떠오르는 형상의 봉우리가 있다.

그것은 작가가 뜨거운 열정을 안고 의도적으로 힘을 넣어 그린 부분으로서 수령님의 서거 그리고 영생이라는 형상의 봉우리이다. 우리 독자들이 작가의 손목을 잡고 이 봉우리에 올라섰을 때 눈물속에 가슴을 치며 안겨온것이 과연 무엇이

였겠는가...

민족이 피눈물속에 잠기었던, 영결식의 그날, 7월의 푸른 하늘에 장중하게 올려퍼지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취주악,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존함이 빛나는 대형화환을 모신 선두차, 그뒤를 이은 화환대렬차의 거대한 물결 그리고 인민의 심장을 폭풍같이 진동하며 안겨온 태양의 미소-영생하시는 수령님의 환하신 영상이었다. 순간 화산같이 뿜어져나온 인민의 곡성, 《가지 마십시오. 아버지수령님! 우리를 두고 어딜 가십니까.》 하늘땅을 진감하는 인민의 울음소리, 눈물의 바다...

이것은 분명 극이었다. 이 세상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눈물의 극, 수령님 한분의 웃음으로 온 세계를 울린 가장 위대한 극이었다. 이 위대한 극은 과연 어디서 온것이겠는가?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내놓으신 충효의 최결정체, 영생철학에서 솟구쳐나온것이였다.

영결식전날 일군들은 금수산의사당 집무실 수령님의 금고에서 한장의 사진, 해방후 새 조국을 건설하는 길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혁명전우 김책과 함께 찍으신 사진 한장을 발견하였다.

독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시점에서 금고에 대한 세부가 다각적으로 분석되면서 낯은 심오한 진리를 직접 보게 된다.

《(이것이 수령님의 금고란 말이지... 수령님께서 모든것을 인민들에게 주고 빈몸으로 가셨구나... 한평생 받으신것은 아무것도 없이... 주시기만 하고...)》

금고가 안겨주는 생활진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순간도 생각지 않으시고 인민들에게 모든것을 주시기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사랑과 헌신의 한생이었다.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나라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만경대를 떠나실 때 받으신것은 짙신 두켤레 뿐이었으나 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시었다. 어느 협동농장인민들이 삼가 올린 분배돈도 고스란히 트랙토르와 자동차를 사서 농장에 보내주시었고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곱쌓이는 정신적과로를 이겨내시며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과 조국통일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다가 집무실에서 순직하시었다. 그러니 정녕 우리 수령님의 한

생은 인민들에게 주시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으시지 못한 한생이었던 말인가?

아니다, 수령님께서도 받으신것이 있었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자 천하만민이 왜 저렇게 가슴을 치며 울고있는가.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조국과 민족과 인류로부터 누구도 받을수 없는 하늘같은 믿음과 존경을 받으시였다. 그렇다. 인민은 그이를 하늘처럼 믿고 있는것이다.

금고가 안겨주는 생활진리는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을 받으신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영광의 한생이라는데로 승화되고있다.

그렇다.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속에 사신 영광의 한생으로서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감히 비할수 없는 절대의 높이에 이른 영광의 한생이었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색속에서 수령님의 한생은 헌신의 한생이며 영광의 한생이기에 수령님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내놓을수 없었던 새로운 철학, 영생철학이 불변의 진리로 선언되는것이다.

《(영결! 그것은 영원히 헤어진다는 말이다. 허나 우리 인민은 래일의 영결식을 통해 수령님과 헤어지는것이 아니라 영원히 같이 있게 될것이다.)》

우리 독자들은 비로소 7월의 하늘을 진감한 영생철학의 위대한 국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재적인 사색과 탐구에서 마련된것임을 깨달을수 있었다.

수령님과 인민사이에 영결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을 위해 한생을 헌신해오신 수령님의 위대한 심장과 수령님께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을 올린 인민의 뜨거운 심장이 합쳐져 하나의 큰 심장으로 뿔뿔기때문이다. 혼연일체를 이룬 이 큰 심장은 세기와 더불어 영원히 고동칠것이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독자들은 작가가 열어준 대문으로 들어가 영생철학을 창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내면세계를 직접 보았다. 때에 따라서는 작가의 권고를 따라 수령의 시점에 감히 서보기까지 하면서.

## 2. 상대인물의 시점에서 그려진 개인주의적 인생관의 파멸과 집단주의적 인생관의 승리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화》(정기중)에서 우리 독자들은 상대인물의 시점에서 그려진 개인주의적 인생관의 파멸과 집단주의적 인생관의 승리과정을 보면서 위인의 숭고한 인간세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감동적으로 받아안

게 된다.

작품에서는 력사에 실재한 우리 공화국과 미국 사이의 첨예한 대결전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미국대통령 빌 클린톤사이의 사상과 사상, 지략과 지략, 인생관과 인생관의 심각한 대결과정으로 그리고있다. 격이 높은 상대인물인 미국대통령 클린톤을 설정하고 그를 타승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재적인 지략과 담력을 힘있게 부각시킨데 이 작품의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볼수 있다.

작품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응당한 수준에서 그리기 위하여 상대인물 클린톤의 성격발전과정을 타당성있게 짚아주다가 점차 그의 시점에서의 묘사를 통하여 집단주의적 인생관에 비한 개인주의적 인생관의 파멸과정을 심각하게 그리고있다.

클린톤의 성격은 극단한 개인주의적 야심과 명예욕으로 특징지어지는것으로서 그의 최대의 욕망은 력대 대통령들이 떨친 명예를 자기도 지니는것이였다. 그들과 같은 뛰어난 개인영웅이 되어 명예를 떨쳐야 했고 그러자면 이전 쏘련과 동유럽을 무너뜨린 선임대통령 부쉬를 무색케 해야 했으며 그 효과적인 방도는 부쉬도 감히 어찌지 못한 조선의 사회주의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는것이었던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두개 군사대상물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요구, 팽란적인 《팀 스피리트93》합동군사연습 재개, 최신형핵전략폭격기의 조선반도투입, 《포커스작전》계획... 야심가의 명예욕환장은 극도에 달한다. 그러나 조선이 과연 굴복했던가.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수 없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단호한 선언에 이어 피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무자비한 공격이 클린톤과 미국을 압박했다.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방지조약에서의 탈퇴선언, 조선인민군 기계화군단의 위력을 떨친 《섬광》작전...

이에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적안정을 잃은 클린톤이 매달린것은 컴퓨터모의전쟁이였으나 그것역시 클린톤의 예상을 뒤집어엎었다. 전쟁개시 두주일만에 북조선군이 종심까지, 진격하여 미군측 40여만의 병력을 괴멸, 미국측 물적손실액 800억달러! 이것은 미국의 비극이 아닌가!

이것은 핵우세를 떠들며 오만무례하게 날뛰던 미국이 주체의 장검을 높이 든 조선앞에 풍지박산난 극적사변이였다.

《...세계의 유일초대국인 미국이 그렇듯 작은 나라 북조선과의 핵대결전에서 걸음마다 곤경을 겪게 되다니... 어제는 외교적으로, 오늘은 군사적으로 련속 강타를 받고있다. 도대체 이것은 무

엇을 말해주는가?...》 클린톤의 시점에서 토로된 뼈아픈 비명소리.

독자들은 어느 한 외국의 벗에게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통하여 미국을 굴복시킨 주체의 인생관을 보게 된다.

《...우리에게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된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현대적무기나 기술수단도 이것은 깨뜨릴수 없습니다. 그에 대하여 더 명백히 알고싶거든 우리의 노동자, 농민, 병사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심과 락관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지 잘 알수 있을것입니다.》

독자들은 클린톤과 미국을 굴복시킨 위력의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심오한 진리로 깨닫게 된다.

클린톤의 인생관은 《인생은 곧 경쟁》이라는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다. 수백수천만의 사람들이 달리는 인생의 주로라는 마라손경기에는 누구든 일단 나서면 달려야 했고 달리되 피를 물고 앞장서 달려야 했던것이다. 클린톤은 자기 야심을 위해 대통령을 했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 《핵대결전》을 벌였다. 그러나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현대적전쟁수단과 컴퓨터에 매달렸던 그는 결국 싸움에서 진것이다.

클린톤과 미국을 전률케 한 조선의 위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일심단결의 철학으로 특징지어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생관에 있었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숨쉬고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혈연적으로 결합된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나》라는 개인은 결코 일심단결된 《우리》라는 집단을 이길수 없다. 개인 클린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한식솔을 이룬 우리를 결코 이길수 없는것이다.

독자들은 《나》로 특징지어지는 상대인물 시점에서 그려진 생활과 그의 개인주의적인생관의 파멸을 보는 과정에 얼마나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것인가.

### 3. 전사가 안고있는 극과 그의 시점에서 그려진 수령의 위인상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에서는 극을 안은 전사의 시점에서 수령의 위인상을 감동적으로 그리면서 우리 독자들을 작품세계에 끌어들이고있다.

기계화보병려단장 오영범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각별한 신임에 의하여 평범한 공병 중대장으로부터 기계화보병려단장으로 자라난 인물로서 그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다. 그런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의 명령으로 진행된 훈련과정에서 전사 오영범은 어떤 극을 안게 되는것인가.

평시에 련마하고 무르익혀온 일당백군인의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립체적인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진행한 러단 기계화중대의 도하작전 1시간 30분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기쁨이 아니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다. 시작과 끝을 동시에 맺지 못함으로써 이 승리는 적지 않은 인원의 희생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장군님께 기쁨 대신 심려를 끼쳐드리다니?! ... 오영범은 심각한 극을 안고 번민에 휩싸인다.

그것은 그가 전쟁은 전쟁 그자체를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한다는 인간사랑의 진리, 인민군전사들이 흘린 막대한 피와 희생의 대가로만 차례지는 승리를 바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철학을 터득하지 못한데 있었다. 오영범은 이 진리를 작전계획의 붉은 화살표에 심을줄 몰랐던것이 다.

결국 전사 오영범의 극은 어디서 생기게 된것인가. 병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인간세계를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한데 있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기쁨과 만족을 드린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것이였다.

인민군전사들에 대한 사랑으로 뜨겁게 굽이치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세계에 늦게나마 오영범이도 따라서는것이다. 그 과정에 오영범은 인간을 무엇보다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평군철학을 자기의 무죄심장에 쏘아 박게 되며 시작과 끝을 동시에 맺는 주체적인 전범을 완성하여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독자들의 진정어린 사랑을 받게 된다.

독자들은 오영범이가 안고있던 극이 자기들에게 없었는가를 심각하게 반성해보게 된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었을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충성과 효성을 다한다고 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인간세계를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한 까닭에 오히려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과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는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 인민이 모신 수령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것을 다양한 시점에서 풍만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 주고있다.

수령의 영상이 빛나는 이 작품은 그대로 우리 앞에 휘날리는 혁명의 붉은기가 되어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힘차게 이어가는 우리 인민을 고무하고 크나큰 힘과 용기를 줄것이다.

## 농장원의 인사

방종욱

서늘러운 마가을바람에 실려  
멀리 울려가는 탈곡기소리  
아마도 우리 장군님께서  
분명 그 소리 들으시고  
문득 찾아주신듯

이렇게 소문도 없이  
문득 농장을 찾아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농장원들  
벼단을 섬기던 손  
티끌은 작업복이 죄스러워  
인사도 못올리고 섰는데

수고한다고  
수고한다고  
허물없이 우리 손 하나하나 잡아주시며  
조구통에서 쏟아져내리는 낱알을  
흐뭇이 바라보시는 장군님

참으로 뜻밖에 그이를 뵈옵는  
감격에 젖고 기쁨에 젖어  
흥분된 마음 진정 못하는데

탈곡장 한결에 아슬히 솟은  
낱알산우에 제대군인 그 총각  
하필이면 이런 날 적재를 말았다고  
어쩔바를 몰라 허둥지둥

이제라도 당장 뛰어내려  
그이께 인사를 드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엉거주춤 서있는 그의 생각은 줄곧  
오늘아침 작업분공을 한  
분조장에 대한 나무람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  
우리 장군님께서 벌써  
어느새 그를 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  
- 동무 수고하오

손을 흔들어주시는 그 다정함  
자애깊으신 그 시선  
아, 행복과 영광의 이 순간  
자기만이 하늘가에 높이 선듯  
무한한 감격에 몸둘바를 모르는데  
다시금 울려오는 그이의 음성이어

- 나는 이 높은 낱알산을  
동무들의 인사로 고맙게 받겠소  
아, 우리 장군님 그토록 기뻐하시며  
흐뭇이 바라보시는 낱알산이여  
한생을 바치고 한목숨 바치여도  
이 땅 이 하늘 아래 높이만 쌓아올릴  
진정한 농장원의 인사여!

가사

## 대동강의 쌍무지개

전완식

꽃배놀이 즐거운 맑고 푸른 강물우에  
쌍분수 솟아올라 무지개 비끼었나  
장군님 사랑어린 대동강이 하도 좋아  
행복의 무지개 기쁨의 무지개  
쌍무지개 비졌구나

청류다리 건너볼가 금릉동굴 걸어볼가  
황홀한 새 풍치에 무지개 멋이로다  
장군님 사랑어린 대동강이 하도 좋아

은정의 무지개 사랑의 무지개  
쌍무지개 비졌구나

대동강이 흘러흘러 이런 자랑 있었던가  
로동당 좋은 세월 무지개로 비끼었네  
장군님 사랑어린 대동강이 하도 좋아  
환희의 무지개 희망의 무지개  
쌍무지개 비졌구나



# 주체건축의 새 역사를 펼친 위대한 령도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화폭

-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전환의 년대》에 대하여 -

박춘력

오늘 우리 나라처럼 건설을 많이 하는 나라는 없으며 건축이 빨리 발전하는 나라도 없을것이다.

주체69(1980)년을 전후로 하는 짧은 몇해어간에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일흔돐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계기로 건설력사에 드문 참으로 거창하고 방대한 규모의 건설이 벌어졌다. 이때 종파의 오물이 남아있던 료환선거리를 통채로 밀어내고 거기에 가장 현대적인 공산주의 리상거리인 창광거리가 건설되었고 세계의 으뜸가는 건축예술의 걸작품인 인민대학습당과 주체건축사를 빛내는 산원, 빙상관, 창광원 등 로동당 시대의 대기념비적 인민의 건축물들이 일떠섰으며 인류건축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새로운 조형예술적경지를 개척한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며 창공높이 솟아올랐다. 정녕 오늘 평양은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건설의 나라로 그 위용을 만천하에 펼치고있다.

그러면 과연 이 땅우에 주체건축의 새 역사는 어떻게 펼쳐진것이며 주체조선의 심장인 평양건설의 위대한 기적, 혁명적변혁은 어떻게 이루어진것인가.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전환의 년대》(리신현 작)는 이 물음에 력사의 증견자와도 같이 실재한 력사적사실 그대로의 진실한 화폭으로 훌륭한 사상에술적해답을 주고있다.

누구보다도 평양을 사랑하시며 평양의 룡성변영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온갖 심혈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건축적예지와 탁월하고 천재적인 건축사상,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있게 그린것, 바로 여기에 장편소설 《전환의 년대》의 사상에술적성고가 있다.

하여 독자들은 장편소설 《전환의 년대》를 읽으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평양건설의 위대한 기적과 혁명적변혁이 일어났고 주체건축의 새 력사가 이 땅우에 펼쳐지게 되었다는것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건축력사는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해서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축의 진면모가 밝혀지며 건축에 대한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할수 있는 근본방도가

제시되며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그것이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축은 이처럼 수령이 구상하고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창조된다.》

장편소설 《전환의 년대》는 무엇보다도 건축에서 혁명적수령관을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를 수도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평양을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인민의 수도, 로동계급의 혁명적수도의 본보기로 꾸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공적을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적수령관은 주체건축창작의 근본초석이며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시키시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축, 주체건축의 생명선이라고 밝혀주시였다.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건축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건축에 대한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완벽하게 실현하는것이다. 건축에 대한 수령의 구상과 의도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데 이바지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축을 창조하기 위한 구상이며 의도이다. 건축에 대한 수령의 구상과 의도에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이 완벽하게 집중되어있다. 수령의 의도와 구상에 맞게 창조된 건축물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을뿐아니라 창조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

장편소설 《전환의 년대》는 창광거리와 인민대학습당을 일떠세우고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건립하는 과정에 대한 감명깊은 형상을 통하여 건축을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시키시는것을 주체건축창작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제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건축적예지의 비범성, 건축사상의 위대성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소설의 첫머리에 감동적으로 그린 경애하는 장군님의 료환선거리 2층주택의 한 집에 대한 방문장면은 그이께서 벌리시는 건축혁명의 숭고한 뜻과 혁명적수령관을 주체건축창작의 근본초석으로 내세우시는 그이의 건축사상의 숭고한 세계를 감동깊게 보여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일군들을 데리시고 료환선거리의 한 집을 방문하신곳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종파놈들이 끼쳐놓은 후파로 인민들이 고생하는것이 가슴아프시여 심려어린 걸음을 하셨던 력사적인 그 장소였다.

료환선거리에 새로 지은 2층살림집 난방시설이

빼치까로 되어있어서 주민들이 추위에 떨고있을 뿐 아니라 여러모로 불편을 겪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며 밤새도록 주무시지 못하시다가 이튿날 날이 채 밝지 않은 어뜩새벽에 몸소 룬환선거리 2층주택지구를 찾으시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잔토들이 마구 널린 험한 골목길에 이르시며 찬바람부는 한지에서 주민들이 깨어나기를 오래동안 기다리시다 맨 처음으로 불이 켜진 집으로 들어가신 어버이수령님.

부엌도 보시고 온기를 찾아 아이들이 빼치카옆에 물켜누워 자고있는 뺑방이나 다름없는 방안에 들어가보시고 창고, 위생실까지 열어보신 어버이수령님.

종파놈들이 너절한 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불편을 준데 분격을 금치 못해하시며 룬환선거리를 떠나시는 수령님의 가슴은 몹시도 쓰리고 아프시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새로 임명된 건설상을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생활이 어느정도 펴이면 곧 룬환선거리에 세운 병신집들을 다 헐어버리고 새집을 짓자고 하시며 그때까지 당분간 그 집들에 빼치까대신 온돌을 놓아주고 집구조도 고쳐주어 거기 사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하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그것이 어언 20여년전 일이었다. 온돌바닥에서 뜨뜻이 지내게 된 룬환선거리의 주민들은 입사초기의 불편함을 죄다 잊고 모두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은 한시도 그 일을 잊지 않고계신듯 감회깊으신 어조로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다.

《그날아침에 펴 늦어 무거운 심정으로 저택에 돌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차려놓은 조반도 들지 않으신채 넓은 옷만 갈아입으시고 내각청사로 나가셨습니다. 나는 그날저녁에야 수령님께서 새벽에 어디에 나가셨고 무엇때문에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준 집들로 하여 그토록 마음쓰시고 수십년세월속에 력사의 그날을 안고사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기에 종파의 오물이 남아있는 룬환선거리를 통채로 밀어내고 거기에 현대적인 공산주의리상거리 창광거리를 일떠세우도록 하시는것이다.

참으로 이것은 인민의 어버이가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위대한 사업이였고 절출한 위인의 담력이 없이는 구상하고 의도할수 없는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이었다. 세계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시대의 건축력사에도 사람이 사는 거리를 통채로 허물고 다시 건설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작품은 창광거리 건설을 발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거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설계가들과 시공자들, 일군들을 일깨워주시며 령도

하시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도시설계사업소 소장 림성욱을 비롯한 일군들을 부르시여 창광거리 건설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준다.

《동무들은 저 거리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훌륭한 살림집들이 가득찬 멋쟁이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걸 명심해야 합니다. ...워낙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훌륭한 살림집을 주시자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고 숙망이십니다. 전후부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수 있는 사정이 못되어 우리가 수령님의 그 숙망을 풀어드리지 못하였는데 지금에야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최상의 건축물을 인민에게 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의도속에는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한 근로인민대중을 제일 좋은 집에서 살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수도시민들이 쓰고 살게 될 살림집을 조형예술적건지에서 봐도 당당히 세계에서 자랑할만 한것으로, 쓸모의 건지에서 봐도 인민들의 생활에 최상의 만족을 주는 가장 현대적인 살림집의 본보기로 건설하자는것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창광거리 건설을 가장 현대적인 살림집의 본보기로 창조하는 건축혁명의 시발점으로, 서막으로 되게 하며 창광거리를 우리 나라 도시건설에서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는 시발점으로 되게 하자는것이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지였다.

소설은 선택된 세부와 일화, 구체적인 인간관계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축적예지의 비범성과 령도의 위대성을 진실하게 확인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만나시여 동무들이 이런 거리, 이런 집에서 살고싶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집을 설계하라고, 너무 호화롭다, 너무 엄청나다고 소문이 나도 자신께서는 좋다고 하시며 우리는 건축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하루빨리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높이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또한 그이께서는 창광거리 모형사판을 보아주시면서 건축도 예술인데 동무들이 만든 이 창광거리 형성은 《피바다》식혁명가극에서 보는것과 같은 혁신성과 독창성을 느낄수 없고 당에서 바라는 건축에서의 혁명적인 방향전환이 감촉되지 않으며 낡은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금강산의 일만경치를 옮겨다놓은것처럼 변화무쌍하게 건물들이 솟아오르게 거리형성을 독창적으로 할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장편소설은 집무실에서 설계가들과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며 음악감상을 하시며 창광거리형성안을 대담하고 독창적으로 하도록 그들의 심장을 불태워주시고 창조적령감을 불러일으켜주시였으며 또 어느날에는 창광거리 건설장을 찾으시

여 최상의 건축물을 일떠세우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품모를 생활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작품은 이처럼 창광거리 건설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건축적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현대적인 창광거리 건설이 구상되고 진행될 수 있었다는것을 확인하고 있다.

장편소설은 창광거리에 첫 초고층건물인 30층 주택이 완공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곳으로 가시여 방들을 돌아보시면서 바로 이런 현대적인 집에서 우리 인민모두를 살게 하자는것이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만족해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도 감동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일행과 함께 옥상에까지 오르시여 창광거리는 세상에 자랑할만한 거리이며 주체조선에 일떠선 우리 식 거리라고, 이제부터 모든 거리를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바로 그 현대적건축의 절정우에 우리 인민을 더 높이 올려세울 결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우리르며 독자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건축물을 일떠세우시기 위해 그토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그이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에 목이 메여 눈굽을 적시는것이다.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건축이 창조될 때 비로소 건축에 대한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것으로 되며 이것은 곧 건축에서의 혁명적수령관의 구현으로 된다.

창광거리의 완성을 두고 그토록 만족해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수록 독자들의 가슴은 더욱 후더워지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세계건축사를 돌이켜보면 저 에짚트의 피라미트로부터 시작하여 프랑스의 베르사이유궁전, 중국의 고궁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은 그 어느것이든 막론하고 인민이 소유하고 인민이 향유한것이란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부터 열이든 열, 백이면 백 모두가 제왕이나 통치자들, 부자들과 착취자들을 위한것이였고 그 족속들이 향유한것이였다. 현대자본주의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뿐이 아니다. 유사이래 건축가들은 수천년동안 건축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당사자인데도 그들자신이 소유자로, 향유자로 되여 본적은 없었다. 인류사상 아직 한번도 해결해본 적이 없는 이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하자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뜻이고 의지인것이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인민이 소유하고 인민이 향유하게 될 건축물들을 세계의 으뜸가는 건축예술의 걸작품으로 만들자는것이요 우리의 수도시민들이 쓰고 살게 될 살림집도 조형예술적건지에서 봐도 당당히 세계

에서 자랑할만한 멋쟁이로 만들자고 하시는것이요 우리가 진행하려는 건설혁명의 본질도 바로 이 점에 있다고 그토록 강조하시는것이 아닌가.

참으로 창광거리 건설은 하나의 단순한 현대적인 거리의 형성이 아니라 건설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구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세계, 충성과 효성의 위대한 결정체였던것이다. 바로 이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한 바로 여기에 소설의 높은 사상예술적풍격이 있고 인식교양적가치가 있는것이다.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건축을 창조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수령을 충성으로 우러러모시려는 인민대중의 념원을 실현하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축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그 위업수행에서 수령이 이룩한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것을 하나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는 가장 혁명적인 건축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축의 사명에는 로동계급의 수령을 잘 받들고 모시려는 인민대중의 절절한 념원이 반영된다.

소설은 수도건설에서 반드시 혁명적수령관을 확립하는데 제일차적인 주목을 돌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온 세상에 빛내일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세우도록 하시고 그 건립사업을 현명하게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영상을 모시고있다.

작품은 우리 인민과 시대의 절절한 요구를 담아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새롭고도 독창적인 수도건설구상의 비범성을 오랜 건설일군들의 시점에서 그들의 체험세계에 대한 진실한 묘사로 감동깊게 부각하고있다.

자기의 심혼을 불태우고 뒤흔들어놓은 이 건설구상앞에서 자체력을 잃은 도시설계사업소 소장 림성옥, 그는 평양시건설에 일생을 바쳐오면서 한갓 건축가의 명분을 지키는데 불과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를 받아안았는가고, 이젠 누구도 상상할수 없었던 대발견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한다. 시당 건설담당비서인 김광성 역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위대한 건설혁명사상을 받들고 사업하여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그 폭과 깊이를 알수 없는 나래치는 그이의 건설구상에 접하여 뜨거운 격정에 휩싸인다.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건축전문가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축형상과 조형성을 담보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밝혀주시면서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건립과정을 현명하게 이끄시는데 대한 형상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일찌기 인류력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하고 걸출한 건축의 영재이심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주체사상탑의 위치선정과 한쌍의 대형수중분수에 깃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건축적예지를

감명깊게 그해보인것은 그 실례로 된다.

탑형성안을 훌륭하게 완성하고서도 아직 탑의 위치가 확정되지 못하여 논의가 분분할 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유람선을 타시고 대동강을 오르내리시면서 강안을 살펴 보시고 수도의 중심인 김일성광장앞 대동강반에 세우자고, 그러되 본평양쪽의 대동강반이 아니라 광장에서 곧바로 건너다보이는 동평양쪽 강반에 세우자고 말씀하신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평양의 중심은 김일성광장이라고, 저기에 주체사상탑을 세우면 김일성광장을 중심으로 뒤에는 인민대학습당이 솟고 그 맞은쪽에는 주체사상탑이 솟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세계 그 어느 나라 사람들이 평양에 와봐도 대뜸 여기가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인민의 도시라는것을 직감적으로 느낄수 있게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치시여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정해주신 탑자리는 참으로 특등가는 명당자리였다. 주체사상탑의 위치의 선정은 단순한 지정학적인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위치의 선정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과 효성의 산물이였으며 탁월한 건축적예지와 건축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의 산물이였다.

주체사상탑을 장식할 한쌍의 대형분수도 어떻게 하든지 탑의 특색을 더 한층 잘 살리고 조형미를 부각할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 또 모색한 끝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찾아내신 탐색의 산물이였다.

강의 한복판에서 뿔어오르는 대형분수, 그러한 분수는 아직 동서고금의 그 어떤 이름난 건축가도 예술가도 기술자도 생각해본적이 없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대발명품이였다.

소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건축적예지를 개선문의 주제천명에서도 감동깊게 밝히고 있다.

개선문의 설계가인 주명섭이 개선문의 주제를 개선하신 수령님이라고 말씀드릴 때 우리가 세운 개선문은 단순히 력사유적을 남기는 건축물이 아니라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뜨거운 경모의 마음을 대를 이어 영원히 칭송하게 될 대기념비이며 개선문의 주제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건축적예지야말로 얼마나 비범한것인가.

장편소설은 진실하게 탐구된 특색있는 생활세부의 묘사로 건축에서 혁명적수령관을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를 수도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평양을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혁명적수도의 본보기로 꾸리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공적을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서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또한 우리 식 건축은 인간성장을 동반해야 하며 건설장은 단순히 건물을 일떠세우는 장소로가 아니라 주체형의 새 인간을 키워내는 혁명화의 학교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주시면서 건축일군들과 건축가, 건설자들을 주체건축창조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키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품모와 숭고한 인간애, 동지애의 세계를 감동적으로 그리고있다.

건축과 인간의 성장, 이것을 소설의 문학적이야기로 전개한것은 작가의 문학적발견이고 수령형상작품창작에 기여한 작가의 뚜렷한 몫이다. 바로 여기에서 작품의 형상의 깊이가 보장되였고 성격이 산 인간의 모습을 가지게 되였으며 전반적인 작품의 정서와 견인력이 담보되게 되였다.

주체의 건축, 이것은 새 인간 건설이라는 관점에 서시여 건축혁명을 힘있게 벌리시고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우실 때 그 과정에 새로 태어나는 참인간의 모습을 보시는분이 우리 장군님이시고 건설의 보람찬 투쟁속에서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지닌 인간을 키우시기 위해 주실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다 주시는분도 우리 장군님이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인간사랑의 철학을 건축에 구현하여 평양을 인민의 락원으로 건설하시려는분도 우리 장군님이시다.

장편소설은 림성옥, 김광성, 박운필 등 건설부문의 오랜 일군들과 남정기, 강문혁, 심미영 등 새 세대 설계가들의 성장을 통하여 이것을 확증하고있다.

설계가 남정기는 인민대학습당 설계에 노력은 많이 들였으나 총체적으로 품기는 인상이 불당처럼 되고말았다. 설계의 결함은 인민대학습당의 성격을 잘못 리해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 사업소의 편협한 일군들은 남정기를 학습당설계에서 빼고 소환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피로운 심정에 잠기신다.

대학습당이나 주체사상탑, 개선문, 빙상관, 산원 지금 우리가 건설하고있는 모든 건축물들은 다 처음으로 해보는 우리 식의 새로운 건축물들이다, 그래서 당에서는 이번의 건축혁명을 통하여 설계가들을 한계단 높이 끌어올릴 결심인데 한번 실패했다고 설계가를 똑 떼어버려서야 그들이 어떻게 날개를 펼수 있겠는가, 그렇게 일해서는 백년가도 독창적이고 대담한 설계가 나오지 못할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은 바로 이러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남정기동무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시며 동무들은 남정기동무를 쓸모없다고 밀어던졌지만 자신께서는 그 동무가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고 남정기를 학습당설계에 다시 불러주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학습당설계의 결함을 극복하고 새롭게 착상하도록 구체적으로 주시는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남정기는 드디어 학습당설계를 훌륭하게 완성하는것이다. 실로 세계적으로 으뜸인 인민대학습당 설계의 성공은 설계가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건축의 대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건축가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과 탁월한 령도로 이루어진것이였다. 작품은 이것을 구체적인 실재한 사실자료에 대한 높은 경지의 문학화를 통하여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장편소설은 성장과 교양, 이것이 우리 건설장의 모습으로 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축사상의 독창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파운필의 인간적성장을 통해서도 보여주고있다.

창랑거리 건설현장책임자인 파운필은 광산출신으로서 드센 일숨씨, 완강한 성격과 전재력을 가진 당찬 건설부문의 지휘관이다. 하여 사람들은 그를 《중팡크》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는 오래동안 건설의 시공을 책임진 일군으로 사업하면서 어느새 건설을 순전히 실무적인 사업으로 여기는 일군으로 되여갔다. 이러한 그를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이 거창한 건설은 우리 젊은이들을 김일성세대의 참다운 인간으로 무장시킬 때에만 가능하오. 건설은 반드시 사람들의 성장을 동반해야 한다는것이요. 그래야 사람들의 창조성과 재능이 발양되고 좋은 건물이 일떠서게 됩니다. 건설장이 젊은이들의 사상교양의 학교로 되게 하여야 하오. 물론 교양이라는게 품이 드는 사업인건 사실이요. 하지만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그걸 감당할만한 사람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

성장과 교양! 이것이 우리 건설장의 모습으로 되게 하여야 하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건설을 실무적으로 대하게 된 그의 사상관점과 사업작품을 바로잡아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면서 그가 일하는곳으로 찾아가시여 일깨워주신다.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다심한 아버지의 손길아래 건설장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불출하고 거창한 건설과 인간성장을 결합시켜나가며 수령님의 인간사랑의 철학을 건축에 구현하여 평양을 인민의 락원으로 건설하려는 당의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인간으로 영생하는 모습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은 건설장에서 성장하는 인간들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건설의 전성기를 펼치신 위대한 건축의 영재의 은혜로운 품속에서만 그리고 위대한 령도밑에 대기념비적건축이 장엄하게 진행되는곳에만 주체형의 새 인간, 주체건축을 담

당할 건축가들이 태어나고 성장한다는 생활의 철리를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설계가로 일하다 실책을 범하여 건축계의 일선에서 물러난 심운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명예회복을 시켜주시고 그 딸이 현대적인 살림집설계를 맡아하도록 함으로써 아버지가 잘못해놓은 거리를 딸이 바로잡게 해주신 이야기는 혁명전사에 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그 얼마나 뜨겁고 심원한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심운호로 말하면 그는 종파놈들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료환선거리에 우리 식이 아닌 살림집을 설계하는 크나큰 실책을 범하여 건축계에서 물러나 지방에 내려가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였다. 이제는 그가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의 기억속에서도 사라져갔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료환선거리를 새로 건설할 대책을 세우시다가 그에 대해 료해하시고 아까운 동무가 반당종파분자들때문에 건축가로서의 한생을 잃었다고 못내 아쉬워하시였으며 그의 자녀들이 어머니까지 잃고 외롭게 살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몹시 가슴아파하시면서 아버지가 범한 실책을 그 자식이 바로잡게 하면 아버지에게도 자식에게도 다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딸 미영을 료환선거리설계그루뵈에 망라시키고 미영의 형제를 평양으로 불러주시는 조치를 취하신다.

우리 장군님은 이런분이시기에 30층짜리 초고층 주택설계를 아직 그 누구도 설계해보지 못했다고 림성욱이 말씀드릴 때 다음과 같은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는것이다.

《난 아까 심운호동무의 유고작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영이가 어쩌서 오늘까지 아버지의 설계를 보관하고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씻기 위해 노력한 아버지의 성실성을 존중했기 때문이고 기회가 오면 아버지의 희망을 다소나마 이루어주고싶었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소장동무도 심운호동무가 생존했을 때 도와주지 못한것을 괴롭게 여기는 사람인데 떠나간 친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미영이를 생각해서도 아버지와 딸의 간절한 소망을 실현시켜주고싶은 마음이 없지 않을겁니다. 난 소장동무만 잘 도와주면 미영이가 아버지의 유고를 발전시켜 얼마든지 30층설계를 해낼수 있다고 봅니다. ... 30층설계를 미영에게 맡깁시다.》

정녕 이 말씀속에는 종파놈들에게 몰락당한 한 인간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시여 조국의 건축사와 더불어 빛나게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해같은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세차게, 뜨겁게 끓어치고있는것인가.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간애의 세계를 구두수리공로인과의 관계에서도 감명깊게 펼치고있다.

한 평범한 구두수리공로인과 마주앉아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며 숨은 공로자라는 과분한 치하까지 안겨주시고 동행일꾼들과 함께 유람선에 태우시고 중요한 건설문제토의에 참여시켜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은정.

이것은 언제나 인민을 선생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소박한 의견도 정책에 담으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이렇듯 장편소설 《전환의 년대》는 인간들의 경쟁과 성장, 그들의 투쟁과 운명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 의리가 우리 인민들을 조국의 만년대계의 건축물을 창조하는 사업에서 세계적인 설계가, 세계적인 건설공법의 발명가, 건설의 영웅으로 키워낸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는것을 깊이 있게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전환의 년대》의 이러한 사상예술적 성과의 요인은 인간관계를 실무적인 관계로가 아니라 운명적인 인간관계로 설정하고 그것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풍부한 생활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감명깊게 그린데 있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가 창조적으로 다양하게 운명적인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위인의 비범한 품모는 인간관계속에서 나타나며 위인의 숭고한 생활도 인간관계속에서 펼쳐진다.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생활도 성격도 생각할 수 없다.

소설에서는 오랜 설계일꾼이며 도시설계사업소 소장 립성옥, 도시설계부문에서 다년간 일했고 지금은 시당의 건설담당비서로 일하고있는 김광성, 설계일꾼들인 남정기, 강문혁, 심미영 그리고 건설부문의 오랜 시공일꾼인 박운필, 구두수리공로인 등 각이한 경력과 직업, 개성을 가진 다양한 인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과 련결되어 있다.

위대한 장군님과 상대인물,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창조적으로 다양하게 탐구함으로써 형상이 유형화, 도식화되지 않고 기정사실화, 격식화되지 않았으며 현실에 있는 그대로 생활적으로 구체화, 다양화됨으로써 장군님의 형상을 폭넓고 감동깊게 그려보일수 있었다.

그리고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활동을 적극화하고 그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의 적극적인 체험자로 되게 함으로써 장군님의 위대성이 생활적으로 정서적으로 감명깊게 형상되게 하였다.

작품은 각이한 사상의식수준과 서로 다른 경력, 직업, 성미, 기질을 가진 인물들을 상대인물, 시점적인 인물들로 설정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빛나는 건축사상과 통이 크고 대담한 건설작전의

조직 등 령도품모를 각이한 인물들의 시점에서 개성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장군님의 형상을 생활적으로 부각하였다.

소설에서 남정기, 미영이만을 보더라도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과 운명적으로 련결되어 있으면서 장군님의 위대성, 인간세계의 체험자로서 개성적으로, 독자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사고하고 활동하며 그속에서 성장발전한다.

소설에서 형상된바와 같이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독창적인 건축사상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험하고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건축혁명의 위대함을 옳게 인식하며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거창한 건설의 의의를 심장으로 느끼고있는 새 세대 건축가들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위대한 건설의 시대에 살고있는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이 나라의 건축가로 일하는것을 크나큰 자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운명의 보호자, 진정한 삶의 품은 당의 품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체험하고있다.

이처럼 작품은 상대인물을 적극적인 체험자로 내세우고 그들의 역할을 적극화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이 더욱 심오하게 인간학적으로 부각되게 하였다.

장편소설 《전환의 년대》의 사상예술적성과의 요인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하고 비범한 내면세계,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시는 장군님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 체험세계를 깊게 펼쳐보여 준것이다.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세계형상에서 비범한 사색의 세계, 인정세계, 감정정서세계를 심도있게 밝힘으로써 장군님의 사상정신세계의 위대성, 내면세계의 숭고성을 보여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미 널리 알려진 건축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감흥을 주면서 읽히게 되는 주되는 요인이 있다.

시당건설비서 김광성한테서 건설속도나 공사량을 보고 일을 적당히 무난하게만 하려는 소극성, 요령주의가 나타나는것을 보시고 그를 비판하실 때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는 이에 대한 실례로 된다.

장편소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내면심리세계의 감명깊은 묘사를 통하여 혁명전사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이의 다정한 인정미, 고결한 동지애의 심원한 세계를 펼쳐보이고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전환의 년대》는 이 모든 사상예술적성과파로 하여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준마를 타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하여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나가는 그들을 힘있게 고무할것이다.

# 칠보산탐승기

리 명

## 머리글을 대신하여

칠보산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산으로 불리워왔으나 우리 나라의 명산으로는 손꼽히지 못하였다.

무릇 세상에 명산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는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 산수의 황홀경에 매혹된 수많은 발길들이 오고가야 가능할것이다.

동해북변의 변측 험한 지세와 깊고깊은 계곡, 첩첩히 막아서는 메부리들, 엄혹한 추위와 강설... 칠보산의 《관문》이라 부르는 박달령을 오르내리는 길만 하여도 해발 천여메터를 넘는 주봉을 꺼안고 아흔아홉굽이로 되어있어 옛적에는 호랑이도 사흘이나 쉬어야 넘나든다고들 하였다.

게다가 옛시절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조국강산의 문물에 능통하였다는 고명한 《성현》들 대개가 지리와 교통조건이 그닥 불편스럽지 않은 명산들을 찾아 제 나름의 해석들을 하였으니... 물론 진실로 내 나라 삼천리금수강산을 속속히 알고 후손만대를 두고 틀림이 없을 대답을 준이가 과연 몇몇이나 되는가!

하지만 그렇듯 모진 칠보산을 찾아 모진 마음을 가다듬으며 찾아오는이들도 드문히 있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나라의 여러 명산들을 편답하고 칠보산을 유람한 한 《성인》이 남긴 예언글이 《칠보산개심사》 기록에 실려있다.

나는 일찌기 여러 명산들을 돌아보았으나  
...

만고로 비장(문혀있던)되었던 이 명산이  
일조일날 일국의 제일이 될지니

...

산이 사람을 맞는 날이 많지 않을런가

뛰어난 미모를 갖추고 이 땅에 태줄을 묻었으나 유구한 세월 소외된 산, 어찌보면 일곱가지 보물로 칠보단장한 아름다운 녀인이 티없이 맑은 순결과 순정을 품고 속절없이 세월을 흘러보내는 심정이랄가...

만방에 그 찬란한 광휘를 뿌리고싶은 꿈과 소원은 하늘끝에 닿았으련만 그 꿈을 과연 어느 명인이 깨워주며 그 소원을 과연 어느 위인이 이룩해 줄수 있으랴.

주제85(1996)년 6월!

북변의 철눈은 신록이 질어져가는 초여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칠보산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내칠보의 《승선대》에 오르시여 조화무쌍한 기암들의 절묘함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기도 하시고 명소들의 품위와 풍격들을 높이 평가하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때로부터 3년간의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을 진두에서 이끌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4차례나 동서로 60여리, 남북으로 100여리의 광대무변한 웅좌를 틀고 앉은 칠보산의 국보적가치가 있는 천연기념물들과 여러 명소들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였다. 그리시고는 칠보산은 마땅히 인민의 명산으로 되어야 한다시며 우리 인민을 아름다움의 절정우에 세울 문화휴양지로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의 력사와 문화, 아름다움에 대하여 잘 알아야 애국주의 정신이 생긴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드디어 칠보산은 천출위인의 품에서 장장 수천년 품어오던 꿈을 깨우며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명산으로 《일조일날 일국의 제일...》로 환생의 고고성을 터쳤다.

## 내칠보의 사랑

나는 칠보산에서 백여리 되나마나한 고장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50대에 이르도록 칠보산을 한번도 찾아보지 못했다. 내가 나서자란 고향의 산수와 한지맥이나 다름없는 칠보산에 대한 그리움은 언제나 나의 가슴을 애뜻한 향수로 젖어들게 한다. 그런데 뜻밖에 도당에서는 나를 칠보산탐승으로 불러주었다.

아마 요즘 정신적고충을 겪고있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취한 조치일것이다.

소설창작에 몰두하던 나는 자주 붓을 멈춘다. 주인공을 끌고가는 나의 창조세계에 무엇인가 《공허》가 있다. 무엇일까? 나는 방황하기 시작했다...

이럴즈음에 당에서는 나의 손길을 잡아 칠보산으로 끌었던것이다.

가자-칠보산으로! 명산의 산수에 이 심신을 깨닫기 정제하여 자연 그대로의 아이가 되자. 아니면 나의 심혼을 칠보산천에 물들여 자연처럼 순결해볼가? 자연의 세계에서 내가 무엇을 찾게 되겠는지 자못 흥미있는 일이기도 했다.

탐승의 첫 일정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자취를 따라 내칠보의 명승고적과 기암들로부터였다.

5월 10일.

내칠보의 울창한 단풍숲은 봄물에 한껏 젖어 연록색의 물결마냥 일렁이고 그 사이사이로는 다투어 피어난 철쭉꽃송이들이 방긋거리였다. 하늘

도 맑고 숲도 맑고 바람도 맑다.

하얀 석비례를 다집한 산언덕담승길을 따라 보  
탁산중마루에 오르니 무성한 송백나무수림속에  
칠보산의 유명한 불교사원인 《개심사》가 나졌다.

《개심사》는 본사인 《대웅전》을 중심으로 주  
지와 중들이 거적했던 별당들로 갈라져있고 그  
맞은켠에 《만세루》를 개건하고있는중이었다. 약  
1천여년전 우리 나라의 절건축형식으로 지은  
《개심사》는 세월의 풍상에 통마루며 벽체며 널마  
루장들이 퇴색되고 처진 감은 있으나 아름답디  
붉은 원형기둥에 받들려 건듯 치여든 합각지붕의  
추녀들은 상기도 하늘을 날려는듯 명승고적의  
웅건미를 한층 경쾌하게 부각시켜주고있었다.

칠보산의 명소들과 명바위들에도 불교일화와  
전설들이 많이 새겨져있다.

《개심사》에서 미출하게 뻗어오른 소나무사이를  
거쳐 약 백여미터 툭아오르면 《신선》들이 하늘  
로 올랐다는 《승선대》가 나진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로 여기에 오르시었을  
때에 비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열리면서 내  
칠보는 자기의 황홀한 모습을 그이앞에 펼쳐드렸  
다고 한다.

《승선대》는 최근년간에 새로 루대모양으로 일  
떠세웠는데 피악별과 눈비를 가리울수 있는 평지  
붕을 씌워놓아 내칠보의 전망대나 다름이 없다.

실로 《승선대》에서는 내칠보의 경관이 한눈에  
안겨왔다. 기암의 극치들로 이루어진 내칠보의  
명바위들을 차례로 쏘아보면 오른쪽에 우중충한  
《금강봉》이 치솟아있다. 《금강봉》아래말기에는  
구멍이 평 뚫린 기묘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문을 잔치날 신랑신부가 통과하면 백년해로 복을  
받는다 하여 《례문암》이라고 부른다. 《례문  
암》을 지나 잔치날 새각시가 타게 되어있는 《가  
마바위》, 그다음은 첫날새각시의 이부자리를 쌓  
아놓은듯한 《금적바위》, 이어서 《풍금바위》와  
《연주바위》가 나란히 있고 조금 아래로 수많은  
장서들을 진렬해놓은듯한 《책바위》, 《노젓는  
사공바위》, 썩 아래로 치우쳐 초가이영들이 서로  
맞붙어 오구구 물켜있는 《초가집바위동네》, 그  
우로 덩실한 《기와집바위》가 위풍당당히 솟아있  
고 날알가마니를 쌓아놓은듯한 《로적봉》이 보인  
다. 멀리로는 달밝은 보름날 선녀들이 춤추며 달  
맞이했다는 《만월대》가 펼쳐져있다.

《승선대》왼쪽켠은 주로 불교와 련관된 명소들  
인데 만개의 절간이 내려앉은듯한 《만사봉》, 천  
개의 불상들이 모여 장엄한 불당을 이룬 《천불  
봉》(내칠보의 주봉이다)은 크메트족이 세운 캄보  
디아의 유명한 《앙코르 와트 불교사원》을 방불케  
한다. 그리고 소승중가운데서 가장 높은 공덕을  
쌓아 《성자》로 불리우는 《라한》바위가 있고 불  
교의 창시자를 불러 올리는듯한 《종각봉》과 《라  
중바위》가 있다.

가장 이채로운것은 불가의 속칭들로 불리우는

《승선대》의 왼쪽켠과 인간생활의 이런저런 모습  
들로 펼쳐진 오른쪽기암들사이에 놓인 얼짜 겨안은  
《부부바위》이다.

나는 이 모든 명소와 명바위들을 차례로 구슬  
처럼 꺾여보았다. 그러자 실로 기이하면서도 놀  
라운 화폭을 발견하게 되었다.

…백년간의 축복을 받으며 《례문암》을 지나  
새서방, 새각시, 칠보단장하고 이부자리 갖추고  
꽃가마에 앉아 초가집마을로 시집오는 새각시,  
그 가마채를 둘러메고 일부러 야료를 부리며 새  
각시를 혼내었을 장난곳은 교군사내들, 결혼행차  
를 축하하여 올리는 풍금소리에 책읽던 선비가  
달려나오고 잔치상에 놓을 생선이 늦어질가봐 해  
칠보에서 떠난 사공이 부지런히 노젓고 켜진 가  
난속에서도 한가정의 인륜대사를 도와 서로 오손  
도손일손들을 거들어주는 화목한 초가집마을…  
그런가하면 백성의 피땀이 고여있는 로적가리를  
하늘가득 쌓아놓고 풍청거리는 세도당당한 부자  
집, 지상의 인간생활을 비웃으며 중생(인간을 비  
롯한 모든 생명체)을 고통의 바다에서 구원한다  
고 어마어마한 사원을 지어놓고 넘볼로 백성들의  
정신을 홀리는 부처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미풍양속이 있으며 그 아름  
답고 소박한 풍속마저도 실현할수 없는 부조리한  
사회적모순이 비껴있다. 혹자들은 내칠보에서  
녀성적인 부드러움을 다분히 느낀다고 하지만 나  
는 과거시대의 사회상과 함께 우리 민족의 세태  
풍속을 집약한 한쪽의 《풍속도》를 찾아보게 되  
었다. 그런데 이 풍속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것  
은 화폭의 중심을 차지하고있는 《부부바위》이다.

전장에서 무공을 세우고 사랑하는 고향산천에  
금시 돌아온듯 투구와 갑옷차림의 림름한 랑군과  
목깃이 가슴아래로 시원하게 드리난 면포(고구  
려 녀인들이 입던 옷)차림으로 랑군의 품에 안긴  
녀인의 부드러운 자태, 녀인이 드리내놓은 팔과  
미끈히 흘러내린 몸의 료팍에는 끝없는 순결과  
강직한 아름다움이 어려있다.

이 따뜻한 정이 오가는 《부부바위》를 보면 저  
기 제 한몸의 영달을 위해 고대광실을 지어놓고  
풍월로 세월을 보내는 관료배의 추한 얼굴이 떠  
오르기도 하고 궁궐같은 으리으리한 사원에 은둔  
하여 중생구제의 넘볼로 해와 달을 지우는 중들  
의 침침한 얼굴이 엇바뀌어 떠오르면서 진실로  
이 나라를 지켜싸우는 주인은 누구이며 그 힘은  
어데 있는가를 실감하게 한다.

나는 이름할수 없이 격앙되는 흥분에 사로잡혀  
《부부바위》에서 눈길을 땔수 없었다. 어느 한 시  
인은 그 《부부》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읊조렸  
다. 뜨거운 정을 나누는 그들이 점직하여 떨어질  
수 있다고 하였지만 나는 웬일인지 가까이 가고  
싶다.

(용서하라, 부부여. 그대들의 포옹이 아직도 끝  
나지 않는 한 나는 그대들의 말을 엿듣고싶노라.)



나는 그 어떤 불가사의한 힘에 이끌려 한걸음 한걸음 다가간다… 불타는 심장의 맞부딪소리가 들린다… 하나로 고통치는 심장의 박동소리… 체온만이 아닌 한몸으로 응결된 심혼의 속삭임이다…

《랑군님! 죽음을 이기고 돌아오셨소이다.》

《고맙소. 님이여, 그대는 아름다운 이 내칠보처럼 나의 믿음이고 무공이고 힘이였소.》

별이 총총한 밤이다.

나는 별처럼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상념에 잠겼다. (어찌하여 나는 《부부바위》앞을 떠날줄 모르는가. 저들을 굳이 살아숨쉬는 실체로 믿으려는 까닭은 무엇인가?)

나의 상념은 가지를 치고 뻗으며 그 어떤 삶의 환희를 찾아 헤맨다.

…진정 저들 《부부》도 《레문암》을 지나 백년 해로의 축복을 받았으리라. 하지만 나라에 전란이 닥쳐오자 사내는 용약 전장으로 달려갔다. 그것은 작별이 아니라 함께 살고자 피의 혈전에 한몸을 던진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그 사랑을 지켜 백년해로의 터전인 고국산천에서 하나의 녀으로, 몸으로, 심혼으로 굳어져 우리 후손들앞에 보석처럼 빛나고있다… 그렇다! 나라를 위한 성전에 피를 바친 사람만이 참사랑을 알수 있다. 사랑은 피의 혈전에서 닦아지는 보석이다. 그러한 참된 사랑의 심장은 죽어서도 식을줄 모른다…

불현듯 나의 눈앞에는 한생을 말없이 나의 뒤바라지에 고스란히 바쳐가는 안해와 함께 수나롭지 못한 사랑의 경난으로 멈춰서버린 나의 주인공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나는 그들모두를 그지없이 애무하고싶다.

나의 공허한 가슴으로 북받치는 환희와 열정, 사랑의 물결이 그들먹이 차오른다.

## 외칠보로 가는 길에서

아침을 일찍 치른 나는 탐승일행과 함께 외칠보를 향해 떠났다. 어제 나는 《개심사》에서 칠보산에 온 탐승객들을 만났다. 북부탄전에서 온 최동무와 어느 한 산간마을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너교원 그리고 두분의 시인들이였다.

《개심사》에서 외칠보의 초입까지 줄잡아 시오리 길을 조금 넘는다고 하니 늦잡아도 두어시간이면 가닿을것 같다.

골바닥을 흐르는 보춘천을 끼고 평탄한 길이 시원스레 뻗있어 걸기가 수월하였다. 보춘천수면 위로 뽕얀 물김이 서려있고 대기는 녹녹하고 잠풍하였다.

보춘천너머숲에서 늦잠을 털고 일어난 피꼬리의 은방울소리가 울리자 이편 날벼랑턱우에서는 재빛 산비둘기들이 깃을 푸드득 차며 연줄연줄 휘젓한 창공을 휘젓다가는 숲에 잤아들었다. 뒤미처 숲에서는 나무잎에 맺혔던 이슬방울들이 후

독후독 떨어져내렸고 서로 음색이 다른 새무리들이 겨끔내기로 지저귀며 고요를 흔들었다.

숲은 활기롭게 설령거리며 숨쉬기 시작한다.

칠보산숲에는 피꼬리며 솔새, 박새, 어치, 딱따구리, 산비둘기, 까치, 도요새, 꿩무리들이 서식할뿐만아니라 독수리, 저팡이와 같은 맹금들도 있다.

즐거이 약동하는 숲의 음향에 귀기울이며 일행과 함께 가벼운 걸음을 짚어가던 나는 맞은편 층암절벽틈바구니에 뿌리를 박은 로송에 눈길이 미치며 멈춰섰다. 참으로 그 모습이 장관이다. 흠한줄 없는 바위절줄을 물고 생존을 이어가는 그 정상은 눈물겨웁도록 애처로우면서도 굳세고 강직한 생활력에 탄복을 금할수가 없다.

칠보는 바위와 기암들에 붙어사는 난쟁이술이나 로송들로 하여 한결 운치롭지만 그자체의 생존은 얼마나 힘겨웁고 간고하랴싶다. 칠보산천을 덮고있는 비옥한 토양을 두고 하필이면 저런 모진곳에 생의 터전을 잡았을까? 바람에 휘뿌려진 씨앗이 주어진곳에서 묵묵히 생존을 이어가는 숙명적인 의미보다도 메마른 바위에도 약동하는 생명을 부어넣으려는 명산의 조화로 느껴진다.

너 풍만한 젖샘을 곁에 두고  
어이 좁없는 바위틈에 안겼느냐  
메마른 젖줄에 입 부르트고  
소슬한 바람결에 여윈 몸 떨어도  
생을 꽃피워 한뜸한뜸  
칠보명산 곱게 곱게 수놓아가는  
애모쁜 그 마음 비길데 없구나

어느새 아침해가 떠올라 숲이며 산정들이 광채를 뿌리였다. 어디선가 실려오는 미풍에 나무잎이 고기비늘처럼 반짝이고 싱그러운 물향기가 흘러퍼졌다. 아지랑이가 아물거리는 산마루의 바위와 기암들이 불그레한 색조로 선명해지였다.

나는 갖가지 형태의 기암들에 발목이 붙잡혀 일행의 뒤꼬리를 겨우 이어가고있었다. 갑자기 앞에서 벽적 떠드는 소리가 들리어 반달음쳤다. 누구인가 가리키는곳에 눈을 주었더니 개울너머 산중턱에 《총각바위》가 보였고 그와 스무나문결을 떨어져 《처녀바위》가 서있었다. 기팔이 장대하고 억센 《사내》가 정중한 자세로 《처녀》를 향해 서있고 《처녀》는 얼굴을 다소곳이 숙이고 눈을 내리깔았다. 얼핏 보아도 첫사랑을 고백하는 총각과 그 불타는 열정앞에서 어쩔바를 몰라 수태를 머금은채 굳어진듯한 처녀로 믿어진다. 처녀의 얼굴은 그지없이 아련하고 부드러웠다.

한길가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들》을 보아주시고 신통스러운 그 모습을 두고 즐거운 만족을 표시하였다는 비문이 정히 모셔져있다.

실로 그들의 모습은 첫사랑을 고백하던 시절을 더듬게 하여 모두의 눈빛은 그윽한 추억으로 물

걸치었다.

…내칠보의 종각봉은 《승선대》의 정면에서 부감하면 불교사원의 커다란 종으로 보이나 멀리 에돌아 측면가까이에서 여겨보면 그것은 처녀와 총각으로 보이는데 사내녀석의 로골적인 상스러운짓에 산이 날아갈듯한 폭소를 터치게 된다.

처녀를 제결에 앉혀놓은 사내녀석이 처녀를 등지고 돌아앉아 오줌을 갈기는 형상이다. 그 모양을 재미있게 바라보던 최동무가 《너 이놈, 여기가 어디라구. 신선들이 사는곳에 이 무슨 발칙한 짓이고?!》 하며 되게 꾸짖었으나 그냥 그 본새였다. 젠장 신선은 오줌을 싸지 않고 이슬을 갈긴다더냐 하는 식의 도전갈아 배를 그려안고 흐트러지게 웃어댔다.

칠보산의 명바위와 명소들에는 가지가지 일화와 육담들로 웃음집을 가득 채우고있다.

명승인 여기에 저런 《절작》이 없다면 어찌 산이 살아숨쉬며 사람들을 끊임없이 맞을수 있겠는가…

바로 지금 장난기어린 최동무는 종각봉의 그 처녀총각을 떠올려 여기 처녀총각을 한결 고상하게 미화하려는것 같다.

《그래 너선생은 저 <처녀바위>를 두고 뭘 생각합니까?》

최동무는 정색하여 중년녀인한테 물었다. 너선생은 종각봉이 떠올린 웃음을 애써 가무리며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다 대답하였다.

《호호… 뭐라고 할가요 ?… 아름답고 순결한 마음도 께비치는것 같군요. 어찌면 한생 저렇게 늙음을 모르고 아름다운 미모에 고운 마음으로 살고 싶군요.》

《난말이요. 우리 처녀들한테 처녀시절을 아끼라고 말하고싶소. 인생의 꽃시절인 처녀시절이 얼마나 소중한것이면 저 불타는 고백앞에서 대답 못하고 굳어졌겠소.》

최동무의 너스레에 또 웃음이 터졌다. 웃음으로 넘긴 말이지만 최동무의 표현에도 일리가 있고 중년녀인의 소박한 감정도 뜻이 깊게 마쳐왔다.

나는 별빛밝은 내칠보의 밤 나의 주인공들에 끝없는 애정을 느꼈던 감정이 다시 밀물처럼 스며들며 그들한테도 꿈처럼 흘러간 저들같은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으리라는 기쁨에 젖어들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은 오래 지속시킬수 없었다. 나의 주의를 아까부터 집요하게 잡아끄는것은 처녀를 형상한 바위의 모습이다. 고개를 짓속인 처녀의 얼굴을 형상한 바위는 몸체를 이룬 바위에 올려놓아 금시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질것 같다.

물리적으로 보면 돌우에 돌이다.

칠보산에는 이와 같은 《위태로운》 기암들이 수없이 많다. 앞으로 자빠질듯 허리를 꺾은 《절바위》, 뒤로 몸을 잔뜩 제끼여 금시 뒤통수가 박

살날듯한 호랑한 《웃음바위》, 펼쳐진 날개가 천길나락으로 떨어질듯한 《매바위》, 층층 만겹으로 쌓은듯 한 아아한 돌산… 천태만상의 그 모든 돌상들은 수만년세월의 폭풍과 회우에도 끄떡없이 한모습이다.

《불안전》의 조화, 《불안전》의 절경, 《불안전》의 극치… 우리는 흔히 물체의 최대의 안전성을 피라미드나 원추형이 아니면 U 형용기의 밑바닥 가운데점을 두고 생각한다.

이탈리아의 《베사탑》은 건설도중에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오늘까지 600여년 내려오면서 세상을 놀래웠고 후에 물리학자들이 물체의 중력설을 무르익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만약 우리 선조들이 일찌기 이 칠보명산을 찾아 저 《불안전》한 조화의 원인을 깊이 파고들었다더라면 그들보다 훨씬 이전에 새로운 진리를 탐구할수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 민족은 유구한 반만년세월 명산을 찾아주고 내세워줄 위인을 모시지 못했기때문에 과학과 문명개화에서 력사의 《지각생》이 되고말았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보아도 우리 인민에게 아름다운 절경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가 얼마나 크고 의의있는가를 새삼스레 절감하게 된다.

봄날의 태양이 하늘중천에서 웃고있다. 두어시간이면 가닿으리라고 믿고있던 길을 만나절이 지나도록 얼마 측내지 못했으니말이다.

## 《만물상》과 《칠보처녀》

5월 13일 오늘은 외칠보 탐승날이다.

칠보명산도 금강산처럼 명소들의 분포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로 구분하였다.

외칠보는 내칠보로부터 동해바다방향인 해칠보와 린접되어있는 넓은 지역으로서 이름있는 명소들은 만물상의 기암들과 덕골의 산수풍경들이다.

칠보산연혁이나 명소들에 대한 친절한 소개문에 의하면 내칠보의 풍경을 우아하고 부드러운 여성미에 비기었다면 외칠보의 명소들은 힘차고 씩씩한 남성미에 비긴다. 마치도 천상배필의 성품을 지닌 화목하고 단란한 내외간처럼 여겨져 칠보명산의 고유한 풍치를 한결 정답게 채색해주고있다.

외칠보의 만물상을 한눈에 부감할수 있는곳은 《조약대》라고 하였다. 《조약대》는 눈썹리 아득한 천길 날벼랑우에 자리잡고있었다. 그 옛날 무술을 익히던 무사들이 수천척 이 날벼랑을 뛰어내렸다가는 다시 솟구쳐올랐다고 하여 《조약대》라 부르는 이곳에 지금은 앞고승이가 건듯 치여든 발판모양의 연푸른 정각을 세워놓아 자못 정가롭게 쳐다 보인다. 《조약대》를 톱아오르는 길은 험한 산타을 깎아 웅벽을 쌓으며 굽이굽이 알

뜰하게 꾸러놓았으나 경사는 몹시 가파로왔다. 초입에서 벌써 졸궂한 땀이 등골로 흘러내리었고 입으로는 단김이 헉헉 뿜어나왔다. 걸음걸음 힘겹게 오르던 우리는 길건너편 절벽바위면에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청송하여 힘있게 새긴 큰 글발이 눈앞에 안겨와 걸음을 멈추었다.

문득 칠보명산을 가꾸어주시려 어쩌면 몸소 이런 험로에까지 로고의 자옥자옥을 남기시였을가 하는 생각이 치밀어올라 눈곱이 젖어들었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초겨울 《조약대》에 오르시어 《만물상》은 오를수록 가슴이 확 트이고 볼수록 장엄하다고 하신 말씀이 되새겨지며 힘든줄 모르고 걸음을 다그쳤다.

퍼그나 시간이 흘러서 《조약대》에 이른 우리는 시원한 바람결에 땀에 흠뻑 젖은 몸들을 식히었다. 《조약대》에서 땀을 들이며 잠시 사위를 두리번거리던 나는 별안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잔등을 짚 누비는 건물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나의 눈확을 깜 찌르며 먼저 천만산악을 거느린 장수봉이 덮칠듯 안겨왔다. 자락이 너슬너슬한 허연 구름을 허리에 감고 하늘이 미여지게 장엄한 머리를 치여든 그 기상은 마치도 서리발번쩍이는 강점을 비껴든 장수가 번개와 우리를 불러 천둥벼락을 내칠듯 눈을 부릅뜨고있는것 같았다. 그 위엄 도도한 장수봉을 웅위하듯 우익으로는 《오태봉》, 《월락봉》, 《결문봉》이, 좌익으로는 《만장봉》, 《형제바위》들이 번쩍거리는 성새마냥 힘찬 위용을 뽐내고있다. 장수봉 발아래 넓게 개활된 등성이에는 칠보경치를 탐내어 하루밤 묵으려다가 칠보산천을 지키는 범의 노성에 겁을 먹고 쫓기였다는 옥황상제의 《침상바위》며 그밤 옥황상제의 잠자리를 지키지 못하여 벌을 받고 지상에 굳어진 수호신 사자바위 그리고 장수의 무술터와 격렬한 싸움의 흔적인양 활촉에 구멍이 숭숭 뚫린 활촉바위, 검붉은 피로 물들인듯한 《촉혈바위》들... 이 모든 대자연의 엄엄한 거상들은 불시에 나의 온몸을 가다듬게 하였다.

...어디선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둔탁한 발자국소리... 그 발길이 닿는곳마다 으깨여지고 박살나며 피비린내를 풍긴다. 이 살벌한 혼잡속에서 성칼스러운 사자의 울부짖음이 산천을 물어뜯으며 뒤흔다. 이 땅의 아름다움을 훔치려 하늘의 통치자 옥황상제가 창검을 비껴든 군신들의 호위를 받으며 사자의 등허리를 타고 야습하련다. 때를 같이하여 온몸에 철갑을 두른 장수봉이 저 멀리 《해물바위》를 거머쥐고 하늘중천의 구름을 휘감아 불태우며 《따-웅!》 범의 노성으로 불호령을 내린다. 그 퇴성벽력에 호응하여 《오태봉》, 《결문봉》, 《월락봉》, 《만장봉》, 《형제바위》들이 서슬푸른 창검을 휘두르며 폭풍같이 전장으로 달려나간다. 칼과 칼이 부딪치고 평평 화살이 날고 와르르- 돌사태가 무너져내린다. 수호자와 침략자와의 피의 격전이다.

... 나의 혈관으로는 더운피가 끓으며 온몸으로 줄달음치기 시작한다. 작은 가슴이 부풀어오르고 심장의 맥동이 커진다. 나의 온몸은 삽시에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무진한 힘으로 용솟음친다.

그렇다! 여기는 이 땅을 지켜 한결음도 양보없는 범의 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상쾌한 메아리로 가득찬곳! 억년세월 끄떡없는 철의 요새인 양 충충 억만겁으로 치솟은 메부리와 메부리들, 강성조국의 위상이 맥맥히 굽이치는 만물상! 아, 아, 얼마나 장엄한 아름다움인가!

나는 온몸으로 퍼지는 뿌듯한 힘과 한없는 궁지로 부푸는 가슴을 펴고 《장수봉》의 품에 안겨 아무런 시름도 걱정도 모르고 살아가는듯한 만물상의 화목한 《식솔》들의 생동한 모습을 하나하나 여겨보았다. 《수닭바위》, 《토끼바위》, 《비둘기바위》, 《기러기바위》, 《부엉이바위》, 《박쥐바위》, 《독수리와 하마바위》...

어느덧 해가 서산마루로 기울어지고있었다. 조금 있으면 《월락봉》의 유명한 달맞이구경을 할 수 있으련만 지금은 아쉽게도 그땀때라 우리는 만물상탐승을 마치기로 하였다.

얼마후 한길에 나선 우리는 뜻밖에 여러문대의 달구지행렬과 마주쳤다. 멀리서 오는지 사람도 소들도 매우 지쳐보였다.

알고보니 칠보보존농장사람들인데 대홍단에서 보름나마 오는 걸음이라는것이다.

《대홍단에서요?!》 우리는 한결같이 놀랐다. 대홍단이라면 예서 어렵짐작으로도 천여리길이다 《애 칠옥아, 우리 칠보를 찾아오신분네들한테 어서 인사를 나누렴. 저 처녀가 우리 〈선봉장〉이 올시다.》

기분이 밝아진 달구지군은 뒤에 대고 소리치며 수염이 더부룩한 입가에 벅글췌한 웃음을 피워올렸다. 그 웃음에는 처녀에 대한 자랑과 믿음이 숨배여있었다. 몸매가 다부지고 복스럽게 생긴 처녀는 흰결차보였다.

수인사를 나눈 우리는 저마끔 어쩌면 이 애어린 처녀가 남정들을 인솔하고 천여리길의 행군을 지휘할수 있었을가 하는 놀라움이 들었다.

나는 그때 이 처녀가 퍼그나 낮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녀는 눈을 내리간채 잔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떼었다.

《저희들이 불원천리 대홍단을 찾아가게 된것은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그곳 감자종자를 가져다 저희 농장에도 올해 감자풍작을 이루고싶어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농장자동차들이 비료운반에 떠나게 되어 감자종자운반을 미루게 되었다.

손등으로 살며시 입을 가리군하는 처녀의 그 나긋한 몸가짐들이 죄다 미쁘게 안겨왔다.

처녀는 철수하라는 농장지시를 받고도 소와 달구지들을 빌려가지고 떠났다는것이다.

《...제일 안타까운것은 씨불임절기를 놓칠가봐였어요. 소들이 마음처럼 빨리 걸어줘야지요. 량강도 고산지대는 아직 햇풀이 성하지 않아 소가 배를 채우자면 반나절은 풀을 뜯어야 했어요.》  
그래 지나오는 동네를 다니며 해묵은 강냉이짚이랑 콩깍지랑 걷어들이기도 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뜨물도 받아들여 배를 불리웠다는것이다.

처녀는 레의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웃으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 그윽한 눈빛으로 잔물결처럼 흐르는 미소는 얼굴에 퍼져서 한없이 순결해보였다. 나는 불쑥 어제 외칠보로 오는 길가에서 보았던 《처녀바위》가 떠올랐다.

나는 처녀의 수고가 헤아려져 그의 마음을 다 소나마 즐겁게 해주고싶었다.

《난 아까부터 동무가 껍 닳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아맞힌것 같소. 내칠보의 <처녀바위>와 신통하거던, 그 눈을 내리까는 모습이랑...》

《내가요? 호호 - 아니 그럴수 없지요 뭐.》

처녀는 방긋 웃으며 도리질을 했다. 그러자 우리의 일행은 이구동성으로 나를 지지해나섰다. 처녀는 한동안 아무말없이 저물어가는 내칠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얇은 미소를 입술에 띄우며 속삭이듯 말하였다.

《제가 어찌 그 처녀와 같을수 있겠어요. 그 처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순결한 모습을 간직한채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지 않았어요.》

《?!...》

나는 무춤 멈춰섰다. 숨엄하고 후더운 열기가 한가슴 확 물려들었다. 얼마나 크고 값높은 세계가 이 처녀의 가슴에 차있는것인가. 인간의 삶의 진가는 무엇을 의미하며 생의 전부는 무엇으로 가득차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처녀, 그런 숭고한 삶을 꽃피울 일념을 안고 고난에 찬 천여리길의 무거운 짐을 그 잔약한 어깨우에 떠멘 역척같은 칠보처녀!

(장하다, 칠보처녀야. 너의 작은 가슴에 저 억년 드늘줄 모르는 칠보산악이, 장수봉이 차있구나.)

나는 처녀를 다는 모른다. 하지만 처녀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칠보산천의 정기와 넋이 고스란히 자리잡고있음을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교장 사람들의 가슴에서 또하나의 순결하고 결국하고 우람찬 칠보명산을 찾게 되었다.

## 외칠보의 덕골,

간혹 높은 지성과 품위있는 인격을 지닌 사람의 이름이 전혀 동에 닿지 않을 때가 있듯이 덕골이라는 이름도 어쩐지 칠보산과는 거리가 멀게 들렸다. 흔히 보아오는 어느 한 산간벽촌의 인심후한 동네이름처럼 생각되어 덕골탐승을 앞두고는 누구나 심상하게 대했다. 만약 덕골에 어버이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찍히지 않았더라면 우

리의 마음을 못견디게 잡아끄는 해칠보의 탐승을 먼저 선택했을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따금 우리의 생활에서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장소에서 곱절처럼 뜻밖에 사무치게 그리운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봉이라든가 하는 행운을 맞는 경우가 있다. 덕골은 그러한 아름다운 기쁨을 안고 우리를 조용히 기다리고있었으나 누구도 그것을 감촉하지 못한채 5월 14일 아침을 맞이하였다.

《참, 이보라구. 오늘 우린 덕골을 좋은 길로 가지 말고 산밭을 타고갑세. 숲에서 혹시 칠보산 신선을 만나게 되겠는지 알겠나?》

정선생의 말에 녀선생이 맞장구를 쳤다.

《웁아요. 숲도 보고 산나물도 뜯자요!》

《그럼 뽕도 따고 님도 봐야지.》

모두 웃음속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다.

보춘리숙소에서 약 십리 못미처 우리는 덕골로 가는 오솔길에 들어섰다. 잔솔들과 인동덩굴들로 덮인 야산에는 갖가지 봄철꽃들이 울긋불긋 피어 향취를 풍기었다. 야산자드락을 지나 계곡에는 드릅나무들이 뽕조름한 망울을 띄우고있었으나 우리는 나무가 상할것 같아 그 향기로운 드릅순을 딸 엄두를 내지 못했다. 울창한 숲과 이어져있었는데 걸음마다 산나물들이 눈에 밟혀와 허리를 펼새 없이 배낭에 따넣었다. 살진 고사리와 솜털이 보시시한 고비, 야들야들한 닥지썩, 깨나물, 참취, 울릉채, 참나물, 삽주... 이루 헤아릴 수 없다. 8월부터 단풍드는 계절까지 송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

수림속은 어둑하고 습윤한 공기가 떠돌았다. 칠보산의 비옥한 부식토우에는 울울창창한 혼성림으로 덮여있다. 넓은잎나무숲은 단풍나무를 위주로 참나무와 박달나무, 자작나무, 물푸레, 사시나무, 월굴나무, 백산차, 참대로 이루어졌고 바늘잎 나무숲은 주로 소나무와 잣나무, 이깔들이다. 바늘잎나무들은 한결같이 20~30여미터정도 미끈하게 올리뿔어 허리꼬부라든 나무 한대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은 봄철이라 연두색의 넓은잎나무숲과 짙푸른 소나무숲은 그 명암이 뚜렷하여 보매 푸른 얼룩무늬웅단을 펼쳐놓은것 같다.

부근부근한 락엽을 밟으며 숲속길을 더듬어가는 우리의 맞은편에 송아지같은 노루들이 몰려있다.

칠보산숲에는 노루만이 아니라 너구리와 청서, 산토끼, 다람쥐, 날다람쥐, 오소리, 산달, 수달, 박쥐 그리고 곰, 범, 시라소니들이 있다고 한다.

잠시후 우리는 10여리구간에 펼쳐진 덕골계곡에 들어섰다.

덕골어귀에서 처음 맞다는 《암담바위》를 지나니 《모성바위》였다. 자연이 조각한 솜씨치고 이룰데 없이 정교하고 깊은 세계를 담고있는듯싶다.

아이를 등에 업은것 같기도 하고 옆으로 꺾인



은것 같기도 한 너인이 함함이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며 아이한테 함뿍 미소를 짓는 모습이 었다.

여태 깊은 사색에 잠겨있던 로시인이 저음 떨리는 음성으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저길 좀 보시오. 저기 숲은 아직 무겁고 컴컴한 빛갈입니다. 그우와 하늘이 아직 흐려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좀더 먼곳에 있는 소나무숲은 환해보이지요?... 구름속을 뚫고 기운찬 해빛이 거기에 쏟아져내리는 까닭이지요. 화려한 록주단을 드리운것 같단말입니다. 그 빛갈로 하여 이편 숲은 얼마나 칙칙해보입니까. 이러한 빛갈의 대조는 자연의 절묘한 조화를 느끼게 함과 동시에 그 어떤 환희와 희열, 적막과 애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깥에서 우리에게 오는 광채의 희롱입니다. 그런데...》 로시인은 격하여 잠시 말을 끊었다.

나는 그의 말에 좀 얼터름해졌다.

《그런데말입니다. 저 모성, 아기를 껴안은 너인을 좀 보십시오. 찌프린 하늘이 머리우에 드리우고있으나 불꽃같은 미소로 밝아져있습니다. 그 불꽃미소는 주위의 모든 물체마저도 환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저 너인의 내부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이 아닐까? 이를테면 저 너인의 가슴에는 등불이 아닌 뜨거운 열이 숨겨져있는듯이 말입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꺾을수 없는 정의와 진리를 말입니다. 그건 죽일수도 꺾버릴수도 없는 등불이지요... 너인의 품에 안긴 저 아이는 또 어떻습니까. 날으는 비둘기나래를 쳐다볼 때 느끼는 그 미쁜 미소를 담고 엄마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인은 자기 아이의 행복과 밝은 앞날을 기원하고있습니다. 저들한테는 고요한 안식과 평온이 떠돌고 끝없는 행복과 창창한 미래가 비껴있습니다. 어찌 예수를 품안고 있는 성모마리아와 건줄수 있겠습니까. 저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걸작품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모델>이 아닐가요?... 예술작품이 살자면 그가 갖고있는 내부의 광채로 빛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성바위》! 실로 거대한 예술적환상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그 예술적감화력에 한자리에 돌처럼 굳어졌다.

이제 또 어떤 《자연의 기적》이 마중하려는지?...새로운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려나며 나는 걸음을 옮겼다. 때마침 비구름이 벗겨지는 틈사리로 비집고나온 해살이 개울너머 등성이에 풍성한 아지를 펼치고 서있는 소나무를 비치였다.

소나무의 바늘잎새들에 달린 물방울들이 록보석들로 반짝이고 그아래로 수정같은 물결이 흘러내렸다. 상쾌한 물소리, 아침과 같은 싱싱한 대기, 날씨가 개일 조짐을 알리는 벌들의 붐붕거리는 소리, 뭇새들의 지저귐...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숨쉬는 자연의 음향에 한껏 취한 나는 또 걸음을 세웠다.

(아니, 저건 또 웬 너인이란 말인가?...)

개울건너 손이 닿을듯한 둔덕우에는 소복단장한듯한 한 너인이 허리를 깊숙이 꺾고 절하는 《큰절바위》가 보였다. 그와 초간히 떨어진곳에는 전장으로 떠나는 《남편》이 투구를 쓰고 서있고...

(장수와 너인의 작별이라?... 그런데 작별도 저렇게 아름다울가... 헤어진다면 밑바닥에는 슬픔이 깔려있겠는데 어찌하여 저들의 작별은 저리도 밝고 환희로울가?... 마치도 살아있는듯이...)

목을 젖히고 그들을 녀없이 바라보느라니 별안간 쇠와 물소리가 들린다. 작별이 아니라고, 전장으로 나가는 남편한테 큰절을 올리는것은 너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나를 흔들어 일깨워 주는듯한 계곡의 물노래소리에 눈을 떨구니 옥돌같이 하얀 너럭바위우로 파아란 물결이 흥떡이며 뛰는다. 하얀돌경사를 따라 쓴살같이 내려왔던 물결은 바위홈에 패인 소에 와서 핑그르 돌며 한숨 놀리다가는 뒤쫓아오는 물결과 숨박꼭질하듯 바위모서리에 와르르 부서졌다 다시 여울에서 만나 춤추며 달려간다.

(춤추는 물이 굳어진 기암에 밝은 정서와 숨박치는 환희... 생명을 부여넣고있지 않는가?... 《정지된 슬픔》을 《춤추는 물》로 채색한다... 정지와 운동의 조화... 산수의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산문예술의 기교가 아닐가?...)

나는 더 음미할새없이 또 걸음을 옮긴다. 이 평화로운 안식과 기쁨이 뛰노는 시원을 찾아해매듯 골짜기를 따라 끝없이 걷고싶다. 마침내 덕골산수가 시작되는곳인 폭포가 나타났다. 덕골폭포는 량쪽으로 흘러내리는 상지폭포와 옥계폭포로 이루어졌다.

나는 옥계폭포가 쏟아져내리는 돌바위에 발을 밟고 앉았다. 억만구슬로 떨어져 부서지는 물결은 나의 발을 건드리지 못해 몸살을 피우듯 튕겨올라 왔다가는 다시 뛰어오르려 한다. 해빛은 물결의 살갗을 살그머니 찢러 물속깊이 파고들어 하얀 조약돌들의 등을 어루만진다. 이럴 때 나의 마음은 달콤한 꿈에 잠긴듯... 나의 가슴에는 역시 맑은 물결이 소리없이 찰랑거리며 자유분방히 뛰는다. 순간 나는 아이가 되어버린듯싶다.

저만큼 떨어진 옥돌우에 앉아 물속에 발을 잠근 너선생이 그윽한 향수에 젖어 나직이 노래를 부르고있다. 노래에는 아이들의 꿈하늘같은 아이가 있고 그 꿈을 깨워 락원의 동산에서 살고픈 희망도 담겨있다.

아, 누구에게나 삶의 환희를 주고 행복한 미래에로 출달음치게 하는 덕골의 이 산수! 이 수려한 산수야말로 아까 로시인이 《모성바위》를 두고 말했듯이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닐가?...

물속에 기둥을 박아세운 덕골정자에 둘러앉아

우리는 이곳 관리소아바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전에는 여기에 탐승길이 나있지 않았지.… 그래서 수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여기 탐승은 길이 험하여 삼가하실것을 간절히 권고했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길을 내지 않으면 누가 헤치겠는가,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찾아올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즐기려면 우리가 먼저 밟아보고 탐승길을 번듯이 꾸려줘야 한다시며 몸소 이 골짜기를 덮고 있던 잡관목숲을 헤치기도 하시고 날벼랑턱을 넘으시기도 하시며 이 덕골폭포에까지 오셨다네.…》

갑자기 세찬 충격이 나의 가슴벽을 두드렸다.

우리 인민에게 이 평화로운 안식과 기쁨, 행복한 미래를 주시려 길없는 길을 몸소 헤쳐오신 우리 장군님! 오늘도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췌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기도 하시고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쪽잠으로 보내실 우리 장군님의 로고가 새삼스레 헤아려져 눈물이 솟구치었다. 나는 비로소 시원을 찾았다. 우리 인민뿐만 아니라 자주적삶을 넘원하는 인류의 평화와 행복한 미래의 시원은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 해칠보의 배고동소리

5월 16일.

넘실거리는 파도를 타고넘으며 고기배가 달리고 있었다. 새벽의 군잠에 취한듯한 바다는 검푸른 멀기로 숨쉬며 이따금 파도머리에 흰 거품을 끓여 올린다. 멀리 재빛운무에 싸인 물은 거무스레한 룰락만 드러내고있었다.

《이제 해돋이무렵이면 황진나루앞바다를 지나게 될게유. 포구까지는 한시간은 푼히 걸릴테니까… 해칠보를 실컷 구경들 하슈.》

조타실창문으로 머리를 내민 선장의 말이였다.

어제저녁 우리는 밤어로작업을 하는 이 고기배에 올랐다. 해칠보탐승은 바다에서 판망하여야 제멋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배가 귀항하게 되는 이 아침에 해칠보의 명소들을 보기로 하였다.

《너선생이 오죽 곤하겠소. 조금만 참소다.》

선장은 입귀에 물린 담배의 연기로 한쪽눈을 실그려뜨리며 시뭇이 웃었다. 너선생이 해풍과 짙물에 그슬린 40대의 선장을 《아바이》로 오해하여 몹시 난처하게 하였다. 그것이 인연이 되여 서인지 선장은 지난밤을 꼬박 새우며 어로작업을 거들어준 너선생한테 원심을 쓰고있었다.

《아니, 팬찮아요. 오히려 지난밤 고기잡이광경들이 떠올라 또 보고싶군요.》

《정 소원이라면 아예 우리 배에 시집오우다.…》

선장의 걸걸한 룬에 고물쪽에서 갑관을 밀대로 닦고있던 어로공들도 우리도 웃었다. 선장의 기

분이 흐물어져있었다. 요즘 이번수성어기를 맞으며 매일같이 어장이 넘쳐나게 고기를 퍼올린다니 그럴만도 하였다.

고물쪽에서 젊은 어로공이 씨물씨물 웃으며 선장한테 다가들어 그의 귀에 대고 무어라 소곤거렸다.

《안돼. 배에서 술은 금물이야.》

젊은 어로공은 어깨가 처져 고물쪽으로 갔다.

《모두들 만선한 기쁨을 나누고싶어 그러겠는데…》

《웬걸, 저녀석은 좀 벌칙을 받아야 하우다. 간밤에 몸풀 제색시를 병원에 두고온 녀석이라니까.》

《아니, 아주머니가 해산해요? 그런데두 작업을 나오다니요?!》

《굳이 말렸지우. 초산인데 잘 돌봐주라구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언제인가 세계축구선수권대회때 최후결승전에 진입한 도이칠란드축구팀의 지도원이 경기를 앞두고 유람을 떠났단나요. 결에서 마른속을 태우지 않겠다는거우다. 허지만 제까짓게 속이 안탈리 있나. 저것 보우다. 안절부절 못하는 꼴을… 마른속을 바짝 태우라지우. 허허…》

고물란간을 쥘고 바다쪽을 내다보며 서성거리는 젊은 어로공의 거동도 우습거니와 선장의 엉큼한 말이 더 재미있었다.

《그래서말이우다. 우린 어제저녁 배가 출항할때 포구와 약속했수다. 색시가 순산했으면 포구의 배고동을 울려 우리한테 알리라고말이우다. 그런데 여태 기별이 없으니… 저녀석의 속이 오죽 타겠수. 젊은것들은 저런 마른속을 태워봐야 제 색시 고운줄 알게 되우다. 허허… 어허, 어느새 황진나루앞바다로군. 이제부터는 해칠보의 장관에 정신이 버쩍 들거우다.》

우리는 아릇한 흥분을 안고 이물쪽으로 나섰다. 눈가까이로 해안의 우중충한 봉우리들과 바위들이 점점 다가왔다.

한쪽의 아름다운 산수화를 그려놓은듯한 채화봉을 가까이할즈음에 수평선우에 불덩이같은 해가 솟아올랐다. 해칠보의 해돋이가 시작되였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덩이는 순식간에 바다를 끓여놓은듯 바다는 거대한 쇠물가마처럼 넘실거린다. 《복수끝바위》에서 소용돌이치는 물결도 불물이요 60여메터의 《직승바위》우에 앉아 부리로 깃을 다듬고있는 갈매기들도 작은 불덩이같다.

절벽바위를 예돌자 눈부신 광경이 펼쳐졌다. 마주오는 해안은 활활 불타는 불꽃바다를 이루고있다. 수백개의 초불을 켜놓은듯 창끝같은 정수리들을 붉게 물들인 길동그런 사원암들이 촘촘히 서있다. 마치도 뽕죽한 첩탐을 세운 불빛현란한 신전들과 사원들이 운집한 대도시같다.

《기가 막히군. 여긴 사원도시같소. 이 세상 사

원궁전들이 여기에 다 모여든것 같애.》

로시인의 격동에 나도 휘말렸다.

《저기엔 예수도 마호메트도 다 있소. 그들은 자기의 교를 퍼뜨리기 앞서 우리 조국의 <교>를 배우러 여기 해칠보에 사원들을 떠돌아왔단 말이요!》

허허... 억측도 상상도 다 좋다. 저 불빛찬란한 신비로운 선경을 두고 그 무슨 환상인들 없으랴!

《선장동지, 배속도를 좀 늦출수 없을까요?》

《그럼세나!》

최동무의 청원에 선장이 제창 기관실에 미속 신호를 보낸다. 그런가위에 배전으로는 술섬이며 《은선굴》, 《몽문탑》, 《칠보암》, 《무지개섬바위》들이 차례로 흘러갔다.

늘 구름이 가득차있는 《운만대》의 아슬한 산상우에 진홍빛안개가 흩어지며 붉은 기폭처럼 날리었다. 그 열정의 기폭에 싸인듯 온통 붉게 물든탑진오절벽, 《련대봉》, 《성벽암》, 《해보암》, 《삼묘암》, 《총석봉》, 《신선바위》, 《선남선녀바위》, 《노을바위》, 《달문바위》, 무수단...

바다도 붉고 하늘도 붉고 나의 가슴도 부글부글 끓는다. 배는 다시 쾌속으로 달린다탑진오절벽, 《련대봉》, 《성벽암》, 《해보암》, 《삼묘암》, 《총석봉》, 《신선바위》, 《선남선녀바위》, 《노을바위》, 《달문바위》, 무수단...

《아, 〈붓바위〉로군!》

나는 환성을 지른다. 불물이 굼니는 물속에 붓끝을 하늘로 곧추 세운 《붓바위》가 나타났다. 붓초리가 붉게 물든 《붓》은 창공에 대고 무엇인가 쓰고 싶어하는것 같다.

《웁수다. 〈붓바위〉 지우...》

조타실창문에 여전히 머리를 내민 선장이 담배를 갈아붙이며 받았다.

《옛적에 해칠보절경을 글 지으러 왔던 선비가 쓰다쓰다 끝을 볼수 없어 저렇게 바다에 붓을 던졌나보우다. 선생들이야 다 써야지우. 허허...》

선장의 말이 뭉클 가슴을 친다. 그래, 써야 한다... 죄다 써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이때 어디선가 은은하면서도 웅글은 고동소리가 메아리쳐왔다.

부-웅

《이게 우리 포구의 배고동소리가 아니야?!》

선장이 조타실문을 차고 돌덩이같이 튀어나왔다. 고물쪽에 있던 어로공들이 어느결에 그한테 확 물려왔다.

《웁쎄다. 분명 우리 포구의 배고동소리웨다!》

《가만! 한번 울려서는 안돼. 사내녀석이면 일곱번을 울리기로 약조가 뒀어. 칠보사내라면 응당 7자를 갖고 태어나야 하니까... 일곱번.》

선장의 흥분은 갑판우의 공기를 초조와 긴장으로

로 죄었다. 그때 또 한번의 고동소리가 길게 울려왔다. 《드-울...》

어로공들과 우리는 일시에 합창으로 되받는다. 련이어 세번...다섯... 일곱번의 고동소리가 울리자 어로공들은 고물쪽에서 점직하여 뒤더수기만 굵적거리고있는 젊은이한테 달려가 그를 에워싸며 부둥켜안았다. 그리고는 함성을 지르며 그를 추어올렸다. 아뿔사... 하늘공중에 쳐들렸던 젊은이의 몸뚱이가 열려진 어창고기더미우에 떨어졌다. 젊은이는 고기더미에 파묻혀 허우적이었다.

하하하... 통쾌한 웃음소리가 바다를 흔들면서 무지개섬바위에 앉아 있을 다들던 물오리떼를 날리었다. 수면을 스칠듯 퍼덕이는 물오리들의 날개에서 주홍빛 물방울들이 떨어져내렸다.

선장은 고기더미우에서 쪽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있는 젊은이한테 성큼 내려섰다. 그의 한손에는 찰랑찰랑한 술이 흘러내리는 하얀 사발이 들려있었다. 그는 한쪽입귀에 물린 담배꽂다리를 뺄으며 다른 손을 젊은이의 어깨우에 얹는다.

《장하다. 룡칠인 이겼어. 도이칠란지도원은 그때 실패했지만 넌 이겼단 말이다! 흥, 내가 모를줄 알았지? ... 자 단숨에 쭈-욱 커라. 어서!》

나는 눈앞이 뿌옇해지며 목이 짹 잠기었다. 아름다운 이 산천, 이 강산에서 화목한 한가정의 식솔처럼 생사도 고락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끝내 나의 눈굽을 뜨거운것으로 적시게 하였다.

태양은 수평선우에서 뚫어넘치는 뜨거운 열정을 뽐으며 온 누리를 포옹하고있었다. 그 열정의 품에 안겨 눈부신 광휘로 번쩍이는 해칠보의 선경들... 춤추는 일망무제한 붉은 바다... 산상우의 붉은 안개기폭... 만선의 승전고와 포구의 배고동소리... 태양의 세례, 태양의 축복을 받으며 새 세기의 생명, 태일이 태어나고...

나는 용솟음치며 소용돌이치는 뜨거운 격정에 잠겨 지나온 탐승의 걸음걸음을 되짚어본다. 내 칠보의 사랑으로 커지고 외칠보의 신념으로 커지고 해칠보의 래일로 커진 날과 날들...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온 나의 주인공들의 앞길도 더듬어 본다. 내칠보의 《부부》와 《칠보처녀》, 해칠보의 배고동소리들에 살아있을 나의 주인공들!...

불현듯 강렬한 충격에 떠밀린 나의 마음은 어느결에 저기 춤추는 붉은 바다에 솟은 《붓바위》를 틀어잡는다.

오, 나는 쓰리라

저 바다의 불물을 찍어

푸르른 이 산천에 쓰고쓰려다

칠보여, 너와 함께 나도

위대한 태양의 품에

환생하였도다!...

《도식은 문학과 독자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다.》

김정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은 문학 작품창작에서 도식주의는 최대의 금물이라는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문학창작에서 도식화는 인간과 생활을 현실에서와 같이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리는것이 아니라 그 어떤 틀에 맞추어 관박이식으로 그려내는 매우 유해로운 경향이다.

현실에 대한 새로운 탐구가 없이 인물들의 성격과 인간관계, 갈등, 이야기줄거리 등을 다 기성의 틀에 맞추어 만들고 묘사 수단과 수법들도 개

성적으로 특색있게 살려쓰지 않고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본따서 만든 작품은 하나의 형타에 찍어낸 상품과 같이 어긋비슷하여 새맛이 나지 않고 볼 재미가 없다.

때문에 독자들은 생활을 도식화하여 그린 작품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학창작에서 도식화의 경향을 철저히 없애고 언제나 독창적이며 비반복적인 형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내 조국의 딸이 되리

정성옥

학창시절 마감짓는 마음의 창가에  
사색의 별들은 수없이 내려  
푸르고 즐거운 추억은 물결치나니

내 걸어온 마음의 길  
인민학교졸업으로 이어진 머나먼 길에  
받은 사랑 받은 은정 그 얼마였던가

한없이 넓은 품에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떠밀어준 그대  
오늘도 끝없이 더 넓게 길을 열어  
나의 꿈 나의 희망 내앞에 활짝 펼쳐주었으니

죄스러워라  
어머니조국의 젖줄기를 빨며  
그대 품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랐건만  
내 아직 어머니조국 위해  
진한 땀방울 흘린적 없으니

허나 조국이어  
나에게 꿈을 주고 행복을 준  
은혜로운 그 품을 잊을수 없어  
이 가슴 불같이 달아올라라

학교길에 선생님과 웃으며 심은  
목란꽃나무도 나에게 속삭여주는가  
조국을 사랑하는 내 마음  
지지 않는 꽃으로 피라고  
별처럼 빛나라고

나는 되리라  
어려움도 힘겨움도 다 이기며  
끓어오르는 용암속에 이 몸을 던진대도  
나는 그대의 딸 조국의 딸로 살리라  
그대가 준 신념을 안고 그대가 준 희망을 나래퍼  
고  
조국을 빛내이리라

아 수령님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 펼쳐주시는  
해와 별 찬란한 내 조국이어  
그대의 딸로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정성옥선수가 해주체육학원(당시)중등반  
졸업을 앞둔 시기인 1990년 5월에 지은 시)



## 기적의 힘

리정옥

그날아침, 우리 집은 어느때없이 흥성이었다. 저저마다 아침일찍부터 일어나 제일 좋은 옷을 꺼내놓는다, 다림질을 한다, 꽃다발을 만든다 하며 제각기 분주당을 피울래기 정신들이 없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조국의 영예를 만방에 떨친 민족의 장한 딸 정성옥선수가 평양에 도착하는 것은 오후라지만 벌써부터 가슴이 뒤흔들여 가만 앉아있을수 없는것이 모두의 심정인것이다. 어른들의 설레임에 아이들도 덩달아 기뻐하며 좋아아 이방저방으로 뛰어다닌다.

우리 집뿐이 아니다. 창문너머로 마주 바라보이는 길건너편 살림집에서도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나들고 경쾌한 음악선율이 집집의 창문들을 흔들며 울려나온다. 정말 온 거리가 명절기분이었다.

《어머니, 어때요?》

새로 지은 저고리의 동정을 여미며 거울속으로 보이는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던 나는 어머니의 이상한 거동에 손을 멈추었다.

어머니는 무엇인가 하염없는 생각에 잠긴듯 까딱 움직이지 않고 벽에 걸려있는 낡고 퇴색한 우승기를 바라보고있었다. 어머니의 두눈굽은 축축히 젖어있었다.

《웬일이세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다가갔다.

요전날 텔레비존에서 우리 나라의 정성옥선수가 제7차 세계록상선수권대회 여자마라손경기에서 영예의 1등을 하는 장면을 보며 오래도록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였다. 그때의 그 감격이 정성옥선수가 돌아오는 오늘 또다시 북받쳐오른것인가.

이윽하여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으시더니 벽에 걸려있는 우승기를 벗겨들었다.

그 우승기에 무슨 사연이 깃들어있는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명절날이나 기쁜 일이 생겼을 때면 의례히 이 우승기를 바라보며 추억에 잠기시곤하였다. 이제는 색이 바래고 금술이 누렇게 변해가는 자그마한 우승기, 이 우승기에 무슨 사연이 있기에 어머니는 이 시각 저토록 가슴젖어하는것인가.

《얘야, 아무래도 이걸 가지고 가야겠다.》

어머니의 말에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어디로요? 혹시...》

나는 더 뒤말을 잇지 못했다. 정성옥선수에게 줄 기념품을 준비해야겠다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서였다. 하지만 그 기념품이 이 우승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웁다. 이 우승기를 기념으로 그에게 주어야겠다.》

어머니는 이미전에 생각이 있은듯 정성스레 찢나무함에 우승기를 정리 넣었다.

《어머니, 그건 너무...》

《그래 낡고 초라하다는거겠지. 나도 안다. 하지만...》

이렇게 말머리를 뻗 어머니는 온 식구에게 그 우승기에 깃든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머니는 련대군의소 간호원으로 전선에서 싸웠다.

어느날 어머니의 부대에 한 신대원이 배속되어왔다. 그는 박태섭이라는 어머니의 고종동창생이었다.

《고종시절 평시에 그는 조용하고 말없이 공부에만 정력을 쏟아붓는 평범한 학생이었지. 하지만 그는 남달리 축구를 잘했는데 경기장에만 나서면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던단다.》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이제 승리하고 돌아가면 마음껏 축구를 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자기의 꿈을 터놓곤했었지.》

...어느날 XX 고지탈환전투에서 박태섭동무는 고지정점에 공화국기발을 꽂는 위훈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그는 가슴에 적탄을 맞고도 끝끝내 공화국기발을 고지우에 휘날렸던것이다.

기발대를 그려안은채로 굳어진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있었고 손으로 짹 움켜쥔 흙은 피로 붉게 물들어있었다. 전우들은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또 그가 목숨걸고 휘날린 공화국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었다.

《그의 배낭속에 바로 이 우승기가 있었지.》

...광복된 이듬해 봄, 학교에서는 체육경기대회를 조직하였다. 학생들은 광복의 새봄을 맞은 희열을 안고 난생처음 가슴을 쭉 펴고 운동장을 마음껏 달리였다.

기술이 높지 못해도 좋았다. 때로 실수가 있어도 좋았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제 나라, 제 땅에서 하는 경기가 아닌가.

축구경기에서는 박태섭동무가 주장으로 활약한 팀이 승리하여 우승기를 받았다.

우승기 뒤면에는 《신원군 제4중학교 해방을 기념하여》라는 글이 곱게 수놓아져있었다.

《난 태섭동무의 배낭에서 나온 이 우승기에 얼 굴을 묻고 울었다. 그렇게도 꿈이 많고 희망이 컸던 그였는데...》

적탄에 맞은 몸으로 공화국기를 들고 나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했겠니. 나서자란 고향산천, 사랑

하는 어머니, 마음껏 배우던 정든 학교, 자기의 꿈을 키워가던 운동장... 이 귀중한 모든것,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다시는 원수놈들에게 빼앗기고 노예로 살수 없었기에 태섭동무는 불사신마냥 일어나 앞으로 달려나간거란다.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자각 하나만으로는 이렇게 할수 없는거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에 대한 사랑, 참된 인간으로서 맞본 기쁨과 행복을 귀중히 여기는 감정이 심장에 짊어져 찬 사람만이 그런 위훈을 세울수 있는게 아니겠나...

난 텔레비존으로 정성옥선수가 달리는 모습을 보며 그때 일을 생각했다.

105리가 넘는 거리를 2시간 26분 59초로 달리자니 오죽했겠니. 주저앉고싶은 그런 때도 있었겠지. 하지만 그는 이겨냈다. 전화의 나날 우리 인민군전사들이 그려했던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가장 어려운 고비를 이겨냈단 말이다.》

어머니의 말을 듣는 나에게는 정성옥선수가 한말이 가슴을 치며 되새겨졌다.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달렸다. 이것이 오늘 나를 크게 고무하였으며 내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흔히 생활에서나 사업에서 더는 참기 어려운 고비, 더는 자기를 이겨낼수 없는 극한점에 부딪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러한 때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한다.

그 극한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강자로 될수도 있고 약자로 될수도 있으며 자기를 이겨내고 승리자로 될수도 있고 난관앞에 주저앉아 패배자로 될수도 있다.

애틀란타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했던 한 선수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나는 제일 힘든 고비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를 생각했다. 이 고비를 넘겨야 <어머니, 우리 이제 는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할수 있겠기때문이다.》

과연 돈의 노예가 된 선수다운 말이다.

그에 비해볼 때 우리 정성옥선수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상한것인가.

자기보다 먼저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경애하는 장군님을 생각하고 자기 개인의 명예보다 조국과 민족의 명예를 생각하며 극한점을 이겨내고 승리한 정성옥선수, 그는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강자로 자라난 강의한 우리 인민, 그 어떤 고난속에서도 끄떡없이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강성대국건설에로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기상과 정신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런 인민이다.

세계는 이제 보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 우리 조선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어떻게 이 땅 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가를...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정성옥선수를 환영하기 위해 꽃다발을 들고 나섰다.

## 상식

# 체력년령을 자체로 측정하는 방법

매 사람의 체력년령은 실지년령보다 10년 지어 20년 차이날수 있다.

체력년령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측면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정할수 있다.

- 균형성: 두눈을 감고 한발을 땅우에서 20센치미터의 높이로 들고 유지시간을 측정한다. 30초가 되면 《급》이다. 오래 있을수록 균형성이 더 좋다는것을 의미한다.

- 민첩성: 땅우에 한번의 길이가 30센치미터 되는 정방형을 그리고 두발을 함께 모아 그 주변을 앞뒤로, 좌우로 뽀뽀기를 한다. 1분간에 몇번 뛰는가를 세어본다. 뛰는 수가 많을수록 더 민첩한것으로 된다. 150번이 중등수준이다.

- 유연성: 허리를 굽혀 땅에 손가락이 닿으면 《급》이고 손목이 닿으면 《우》이다.

- 지구력: 길게 숨을 들이쉬고 멈춘다. 몇분간 숨을 쉬지 않고 견디는가를 보아야 한다. 30초이면 《급》이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폐활량이 더

크다는것을 의미한다.

- 복근력: 사람에게서 배부분의 피부아래는 《지방창고》이다. 지방이 많을수록 배근육은 힘이 더 약하다. 반듯이 누웠다가 배근육의 힘으로 일어나 앉으면 《급》이다. 두손을 머리에 받치고 일어나 앉으면 《우》이다.

- 폭발력: 폭발력은 힘과 속도로 결정된다. 몹시 건장한 사람이라고 하여 폭발력이 큰것도 아니다.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가 우로 뛰어오르고 다시 앉는것을 한번으로 하여 20초내에 15번 하면 《급》이고 25번 하면 《우》이다.

이상의 지표에서 4가지가 중등이상이면 체력년령이 실지년령과 같다는것을 의미한다. 세가지 지표가 《우》에 도달하면 체력년령이 실지년령보다 10살 젊다는것을 의미한다. 4가지 지표가 불합격이면 체력년령이 10살 로쇠했다는것을 의미한다.

## 아침보도는 짧았다

문용철

보도는 짧았다  
우리 장군님 넘고헤친 그 준령의 겨울밤은 길었  
어도  
이 땅에 울리는 아침보도는 짧았다

어이하여  
조국을 지키고 인민을 지킨 령장의 저 걸음  
전선고지의 산, 산봉우리마다에  
승리의 큰 자욱을 찍어오신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보도는 왜 이렇게 짧은것  
이냐

다시 울려다오, 한번 더  
그 보도엔 왜 없느냐  
다시 울려다오, 한번 더  
저러드는 언발을 찬물소랭이에 잠그시며  
또다시 먼먼 그 눈길 이어가셨다는 그 이야기는

우린 다 알고싶다  
장군님 오르신 그 전선고지의 밤하늘은 얼마나  
맑았으며  
바람은 얼마나 불고 날씨는 얼마나 추웠는지  
언땅 전호에 두손 짚으신  
그이의 손엔 장갑이 끼워져있었는지  
긴긴 그밤에 주무신 시간은 몇분인지...

오 밤마다  
이 땅우에 뜨고뜨는 달이여 별이여  
부디 알게 해다오  
우리가 자고난 평범한 그 아침이  
어떤 거룩한분의 몇천몇만리  
눈보라의 밤길로 이어지고 지켜진 새날인가를

그래도 짧아야 할 전선보도라면  
우리 장군님은 오늘도 건강하시다는  
그 한마디로 그 끝을 맺어다오  
그러면 언제든 맘 편히 기다리리  
조국이 통일되었다- 웨칠 그대의 격동된 보도도  
조국땅 어느 지점에서 원유가 터져오르고  
또다시 우리의 광명성이 우주에 뿔다는 그 소식  
도

부디 그래다오  
온 나라 온 조국이  
발걸음을 멈추고 일손놓고  
아기엄마도 보채는 젖아기를 안은채  
기다리는 시간이며  
이 땅의 사람도 산천도 하늘도 태양도  
예대로 억세게 푸르고 빛남을 알리는  
내 조국의 아침보도여!

## 정성옥선수는 시를 썼다!

황명성

정성옥선수  
그대는 시인이 아니였다  
언제 한번 자신이 시인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하지만 영웅이여 그대는 시를 썼다  
희망넘치던 체육학원시절에  
포부가 컸던 선수생활나날에  
시인들처럼 많은 시를 쓰고 또 썼다

행복의 요람에 포근히 안아  
첫걸음마를 떼여준 그 손길 못잊어  
희망의 꿈나래 펼쳐준 그 사랑 고마워

보답할 마음 시와 이야기하였다

105리 주로에 땀을 뿌리며 돌아와  
지쳐 침대에 쓰러졌던 그밤조차  
소스라쳐 다시 일어나  
창문너머 별들과 속삭이며 시를 썼다

소박하게 엮어가는 시행속에  
뜨겁게 뜨겁게 사무쳐왔더라  
이른새벽 전선길에 오르신  
아버지장군님의 모습

아, 언제면 크나큰 기쁨드려

팔된 도리, 효성을 다할가  
간절한 마음 불타는 소원  
날마다 시의 다발로 엮었나니

그 아름다운 시의 다발안고  
정성옥선수 그대는  
사랑하는 어머니조국 멀리 떠나  
썩빌랴경기장에 나섰더라

조선의 영예를 떨쳐야 할 105리  
민족의 슬기를 빛내야 할 105리  
장군님을 그리는 시의 울림, 그 메아리가

정성옥선수의 불굴의 의지가 되었던가

기적의 2시간 26분 59초  
105리 그 주로의 극한점도  
영웅이여 그대가 쓴 시들의  
맹세의 그 노래로 이기고 결승테프를 끊었나니

아, 세계 《마라손녀왕》 그대가 쓴 시들은  
아버지장군님께 드리는  
딸의 진심, 깨끗한 량심의 구슬이었어라  
충효의 아름다운 향기였어라

## 정성옥 그대의 주로를 따라

문동식

정성옥 -

내 조용히 그 이름 부를 때면  
귀전에 뜨겁게 들려온다  
에스빠냐 썩빌랴경기장에서 한  
그대의 소박하고 진실한 그 말

-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달렸다

멀고먼 서방의 한끝  
불더위속에 아득히 뻗어간 주로  
그 길은  
세계 마라손대전의 화선길이 아니더냐

그대는 달렸다, 그 길을  
명성을 떨쳐온 강자들과 함께  
어릴적 희망의 새싹을 키워주신  
아버이장군님을 간절히 부르며

그대는 달렸다  
조국의 8월 불벌속에서도  
최전선의 첩첩한 산발들을 넘으시여  
초소의 병사들을 찾으시는  
장군님의 영상을 눈앞에 그려보며

숨막히는 열파가 살을 지쳐도  
그대는 달렸다  
공장구내길과 북방의 감자포전길  
건고걸으시는 장군님의 로고를  
기어이 기쁨으로 풀어드리려

위대한 태양의 품속으로  
대륙과 대양을 넘어  
수억만리 산발과 강을 넘고넘어  
불새처럼 나래친 그대의 마음  
서방의 끝에서 동방의 끝까지  
충효의 주로를 열어놓았거니

위도와 경도처럼  
행성우에 영원할 승리의 주로  
위대한 장군님께로 달릴 때에만  
최강자로 빛난다는 진리의 주로

정성옥 -

오늘은 그대의 주로를 따라  
질풍처럼 달려간다  
광풍을 헤치며 강성대국 세워가는  
조선의 불타는 충효의 심장들이

달려간다  
그 길로 그대를 따라  
자주의 태양 김정일동지께  
매혹되어 환호하는 만민의 마음들이  
대하처럼 흘러들어 굽이치나니

오, 정성옥 그대는  
달리고있다, 그 진두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으로  
인류를 부르며, 세월을 이끌며  
그대는 달리고있다, 붉은 기발처럼



## 영원한 복무

리중홍

### 추억

(전호에서 이음)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을 이기고 입당하던 날의 감격이랄까 느낌이랄까 지금도 내 가슴속에 그 들먹이 차오르곤하는 그 뜨거운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기전에 사단민청위원회 회의를 하루이틀 전후하여 내가 당한 체험을 말하고싶다.

그 주체42(1953)년 5월 5일은 나에게 있어서 영예로운 조선로동당원의 자격이 있다는 민청의 보증을 받은 뜻깊은 날인 동시에 사랑하는 전우를 잃은 가슴아픈 날이기도 하였다.

사실 그날 나는 우리의 전방에 대치하고있는 《하모니카룡선》너머로 포정찰임무를 맡고 나가게 되어있었다. (어느 지휘관한테서 정식으로 명령 받은것은 아니지만 오늘까지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하모니카룡선》너머 비아리일대에 적들이 새로운 중포대대들을 은밀히 집결하고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단에서는 강력한 포화력으로 일격에 소멸해버리기 위하여 포정찰수 한명과 무전수 한명 그리고 포병지휘관으로 구성된 포정찰조를 그리로 파견하기로 한것이였다.

그 소식을 나에게 알려준것은 바로 그 정찰조에 무전수로 나가게 되어있는 사단통신대대 무전수 김숙영동무였다. 어디서 그 《비밀》을 알아냈는가에 대해서는 묻지부터 않았다. 깔끔한 성미의 그여서 물었잖아 대주지 않을것이 뻔했기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누구한테서 그걸 들었느냐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것이 아니였다. 오래간만에 한바탕 적들을 조려대는 장쾌한 모양을 볼수 있다는 그것으로 하여 나는 기뻐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자동보총이나 수류탄, 보병삽을 차고 적들과 직접 대치하여 싸우는 보병들과 달리 우리 포병들은 제가 쏜 포탄에 맞아 쓰러지는 적들의 물결을 직접 볼수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다. 물론 가까운 거리의 적들을 직접 조준사격으로 때릴 때는 례외였다. 그러나 중포들인 경우 그런 례는 극히 드물었다. 진지방어전의 나날 직사포를 고지에 끌어올려 적들을 내려다보며 답새길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하루밤사이에 직사포들을 고지에 끌어올려다놓고 건너편에서 성가시게 구는 적들의 땅크며 포들을 곧추 쏘아 조려대던 반포 싸움때 우리 포병들은 자기가 쏜 포탄이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리는 적들의 물결을 육안으로 바라보며 몇년 묵은 체증을 뚫 뻗었다.

우리 포정찰수들인 경우에는 포를 직접 쏘는 포병들과는 달리 자기가 계산해낸 제원에 따라 날아가는 포탄의 착탄점을 제눈으로 보는 때가 제일 장쾌하다. 적구로 은밀히 빠져들어가 사단 포병참모부나 련포군에 직접 사격제원을 제공해주어 적집단을 족칠 때도 가슴이 후련해지곤했다.

들어온 말로 《엠데슈사격》이라고 부르는 그 사격을 우리는 《포사격을 나에게로!》라는 시적인 말로 불렀다. 말하자면 때려야 할 적의 목표물 가까이 바투 다가앉아서 포사격을 자기에게로 부르는것이였다. 물론 위험한 사격이여서 부대에서는 좀해 그 사격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목숨을 내대고 그것을 부르곤하였다. 위험한 반면에 명중률이 거의 백프로에 이른다는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기가 직접 보고 계산하여 날려보낸 사격제원에 따라 날아온 포탄이 들부셔버리는 적들의 모양을 직접 볼수 있다는 그때문이였다.

그 순간의 장쾌감, 흐뭇함을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모두들 목숨을 내대면서라도 그 《행운》을 놓치려 하지 않았던것이다.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그 어떤 장쾌감이나 가슴후련한 희열을 한껏 맛보기 위한것만이 아니였다. 조국을 위함이라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함이라면 자기 한목숨도 웃으며 불속에 던질줄 아는 우린 영웅적조선인민군 교유의 육탄정신, 장군님의 명령을 위해서라면 자기 폭탄의 우박도 목청껏 제머리위에 불러올줄 아는 자폭정신이 낳은 영웅적 헌신이였다.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기뻐하게 된 다음 까닭은 바로 그 소식을 전해준 숙영동무와 한조가 되어 움직인다는 그 사실때문이였다. 한정찰조에 속하여 적구로 몇번 들어갔다오는 과정에 서로 알게 된 그는 이 세상에 나서 내가 처음으로 친한 녀성동무였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이였다거나 혹은 마음속으로나마 그와 더불어 일생을 그려본 것도 아니다. 그때 내 나이 갓 열일곱인데 그는 나보다 두살이나 우였던 관계로 나의 의식속에 그런 엉큼한 마음은 깃들수 없었다.

했으나 어쨌든 그와 만난다거나 또는 전화로 한 두마디의 말을 주고받을 때면 다른 동무들을 만난다거나 말을 할 때와는 분명히 다른, 하지만 무어라고 딱히 이름할수 없는 감정을 품게 되는 것이였다.

나는 그를 누나라고 불렀다. 그도 나를 그저 이름으로만 불렀다.

그의 용모를 두고 말한다면 나는 그저 한마디로 고맙다고밖에 말할수 없다. 눈이 어떻게 생겼고 살빛이 어떠하며 입술이 어찌어찌하였다고 방불하게 쓸 재간이 나에게는 없다.

깊은 밤, 전화로 그 소식을 나에게 던지시 암시해주면서 그는 호출이 있을 때까지 모른체하라고 그루를 박아 당부했다. 전화상으로지만 어딘가 밝고 조금 들뜬듯이 느껴지는 억양으로 미루어 그도 나와 같이 나가게 된것을 좋아하는 모양이라고 나는 단정했다.

나도 자꾸만 기분이 들뜨는것을 느끼며 빨리 새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조국해방전쟁이 바야흐로 끝나가던무렵이어서 이러다 혹시 한바탕 싸워보지도 못한채 전승을 맞이하게 되는것이 아닐가 하는 조바심으로 누구나 가슴을 조이던 때였다.

그러한 열광적인 전투갈망증 비슷한 기분은 나에게도 어지간히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날이 밝자 나를 데리러 온것은 경찰조를 책임지고 나가게 된 포병지휘관이 아니라 런던민청위원장동무였다. 그는 오늘 사단에서 입당보증 심의를 위한 민청집행위원회가 있으니 곧 올라가라는것이였다.

나는 《그럼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말이 금시 나가는것을 겨우 억제했다. 입을 열려는 순간에 일체 모른체하하던 《누나》의 간곡한 당부가 떠올랐던것이다.

세포위원장아바이의 바래움을 받으며 사단으로 떠날 때 나는 이제 숙영누나한테서 전화가 오거나 혹시 우리 관측소에 들리게 되면 (전선을 넘으려면 우리가 위치한 룡선을 통과해야 했다.) 이 사정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할가 하다가 어쩐지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다.

입당보증심의는 저녁 늦어서야 끝났다.

밤늦어 관측소에 돌아오니 세포위원장아바이가 기다리고있었다. 거수경례를 불이는 내 손을 잡아 내려주고 식당에 데리고가서 식당근무군인더러 부뚜막에 따로 건사해놓았던 밥이며 국이며를 내주게 하고는 내가 밥을 먹는 동안 말없이 옆에 앉아 있는데 탄피등잔불빛에 우렁이 드러난 얼굴색이 어딘가 좀 침침해보였다.

(무슨 일이 있었을가?)

아무리 굴려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을 안은채 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아바이가 어깨를 잡아 꼭 눌러앉혔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가슴이 후두두 뛰는것을 느끼며 아바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바이는 나의 시선을 피하려는듯이 내 어깨너머 어딘가를 건주어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숙영이가 저녁에 들렀댔어.》

《그래요?!》

《임자가 사단민청집행위원회에 올라갔다는걸 알고 왔더군!》

《?!》

《이걸 줘데.》

그러며 쥐여주는 수첩크기만한 종이봉투를 헤쳐보니 그안에는 당원증주머니와 정성스레 수를 놓은 당원증주머니끈이 차곡차곡 개여져있었다.

나는 속이 뭉클 젖어드는것을 뜨겁게 느끼며 고개를 쳐들고 성급하게 물었다.

《누난... 아니 숙영동문... 전선을 넘어갔어요?》

《갔어.》

《그래요?!》

나는 몸을 벌떡 일으키며 침침한 어둠이 질게 드리운 갱도박을 내다보았다

《언제 갔어요?》

오래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당장 따라나서고 싶은 욕망을 안고 다긋는 나의 물음에 인츰 대답을 앓고 어찌선지 내 얼굴만 이윽히 쳐다보던 아바이가 내 손에 들린채로 있는 당원증주머니우에 한손을 포개여엎고 꼭 감싸쥐더니 힘들게 입을 열었다.

《이걸 잘 건사하라구. 숙영이가 임자한테 남기고간... 마지막유물이야.》

《예?!》

말뜻을 인츰 깨닫지 못한중에도 어찌선지 섬찍한 예감이 들어 나는 아바이의 손을 꼭 붙잡고 한걸음 바투 다가들었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숙영누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선을 넘다가... 잘못됐네.》

《뭐라구요?!》

그 순간의 감정을 나는 무어라고 딱히 이름할수 없다. 놀랐다고 할지, 가슴이 아팠다고 할지... 그렇게만 명명하기에는 그 감정의 덩어리가 너무나 크고 또 예리한것이였다.

나는 입을 하 벌리고 선채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손에 들린 당원증주머니만 멍하니 내려다볼뿐이였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은 그날밤 그 당원증주머니를 머리말에 놓은채 누운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흘렸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세포위원장아바이를 찾아갔다. 새로 파견되는 경찰조에 기어이 넣어달라고 졸랐다. 아바이한테 그런 권한이 주어진것은 아니였지만 때를 쓸만한 상대는 나에게 그밖에 없었던것이다.

《복수를 하겠단 말이지? 좋아, 그래야 돼! 그래야 속에 꼭 들어찬 응어리가 풀리지. 내 체질해 줘마!》

아바이는 빈소리를 하지 않았다.

다음날 저녁에 파견되는 두번째 경찰조에 속하여 나는 전선을 넘었다.

사단포병참모부의 키가 흰칠한 소좌와 나 그리고 전혀 안면이 없는 사단통신중대 무전수동무였

다. 그런데 그 무전수는 남자였다. 그가 누나와 같은 여자동무였더라면 내 가슴이 몇배로 더 아팠을것이다. 후에 안 일이지만 세포위원장아바이는 복수전에 참가시켜달라는 나의 제의를 상급당조직에 전하면서 만약 그 제의가 수락되는 경우 무전수는 꼭 남자동무를 선택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누나가 잘못된 그 전선구역을 우리는 그리 힘들지 않게 돌아왔다. 적들의 탐조등빛에 환히 드러나는바람에 적 순찰대원들의 집중사격을 받고 잘못된 누나의 가슴아픈 희생이 준 피의 교훈의 대가로 쉬이 넘었는지도 모른다.

《하모니카를선》 후면숲속에 감쪽같이 숨어든 우리는 적들이 은밀하게 끌어들인 두개 대대가량의 중포들을 확인한 다음 그 즉석에서 계산해낸 포사격제원을 무전으로 날렸다.

잠시후 전선너머로부터 강력한 포화력이 넘어 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에 본 장쾌한 광경을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사단무전수 김숙영동무가 잘못되었다는 뜻밖의 비보를 접하던 그 순간의 찢는듯한 가슴아픔과 함께 가끔 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알알해지곤하는데 그런 때면 복수전의 그 장쾌한 불바다를 그려보곤한다. 그러면 쓸쓸하고 허전하던 감정이 어느덧 맑고 통쾌하고 후련한 감정으로 바뀌곤한다.

우리가 숨어든 숲속으로부터 적들의 중포진지까지는 불과 5백미터도 되나마나했다.

시사로 쓴 첫 포탄은 중포진지의 맨 뒤쪽끝에 날아와 터졌다. 나는 얼른 제원을 수정하여 무전수동무에게 넘겨주었다. 무전수동무는 그것을 직접 송수화기를 들고 서있는 사단포병지휘관한테 알려주었다. 즉시 두번째 포탄이 날아왔다. 이번에는 포진지의 한중간에 날아와 터졌다. 검붉은 섬광이 번쩍하더니 적의 길다란 포신이 허공 떠올랐다가 떨어져내리는 모양이 불그스레한 화광속에 선명하게 보였다. 동시에 넓다란 철판같은 것이 모재비로 쑥 날아올라서는 어둠속에 곧 묻혀버리는 모양이 보였다. 포가 산산조각이 난 모양이었다. 속에 꽂 땀뻘뻘이 순간에 쑥 내려가는듯한 쾌감이 전신을 휩쌌다.

《맞았다!》

《명중이다!》

레시바를 귀에 걸고 선 무전수동무는 송화구를 입에 댄채로 소리쳤다. 그것이 그대로 사격제원이 되어 세번째, 네번째, 다음 또 다음... 련속 포탄이 날아와 터지는 모양이 병긋거리는 섬광속에 보였다. 어김없는 명중사격이었다. 마치 직접조준사격이나 하는듯이 차례차례 날아와서는 아직 위장 그물도 벗기지 못한채 서있는 아메리칸산 신행중포들을 하나씩하나씩 요정냈다.

나는 말할수 없는 희열로 온몸이 화끈화끈 달

아오르는것을 숨가쁘게 느끼며 계속 포사격제원을 불렀다.

금시 날아와 터지는 포탄의 섬광을 보고 다음 때려야 할 지점을 눈여겨보느라 머리속에서 무엇인가 지끈하고 터지는 소리 같은것이 들리면서 스스로 다음 계산수치가 눈앞에 떠오르는것이였다. 나는 그것을 추호도 믿어의심치 않고 무전수동무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 무전수동무는 다시 그것을 사단으로... 조금 안있으면 나의 눈길이 건주어졌던 적의 밭살스러운 포가 병긋하는 섬광속에 삼키워 버리었다...

사격은 이렇게 한 오분가량 계속되였다. 사격이 시작되어 한 이삼분 지나자 싸이렌소리가 울리고 중포들을 끌어내느라고 헤덤버치는 적들의 물결이 보였으나 우리의 포화력이 얼마나 맵싸고 또 정확했던지 적들은 몇문의 포박에 살려내지 못하였다.

포사격이 몇자 우리는 아직도 검붉은 화염속에서 마지막숨을 쉬며 굼틀거리는 적들의 중포진지를 내려다보며 전선을 넘어왔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누나가 잘못되었으리라고 짐작되는 산중턱의 지뢰원을 넘을 때 잠시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혹시 누나의 혼백이라도 볼수 없나 하는 마음에서였다. 허나 사위를 짓눌러 덮어버린 짙은 어둠과 땅우를 활는 날카로운 탐조등의 불줄기뿐... 쿠궁 거리는 멀고 가까운 포소리만 아니라면 전선이라고 믿을수 없으리만큼 잠잠했다.

어디선가 밤새의 구슬픈 울음소리 같은것이 간간이 들려왔다. 사방 불이 널린 이런 험지에 새가 깃을 붙일만한 숲이 어디 있으랴싶어 새의 울음소리를 따라 시선을 드니 저편 산아래로 휘영청한 달빛아래 불타다 남은 숲의 한모퉁이가 우중충하게 바라보였다. 새는 그 숲에 깃을 들이고 총포소리 멎은 전선의 쉽지 않은 고요를 리용하여 자기의 목가적인 밤노래를 부르는것이였다.

문득 초중시절에 선생님이 감명깊게 읊어주던 어떤 시구절이 생각키웠다. 이북어미 시샘에 죽은 누나가 두고간 아홉동생 걱정엔 접동새가 되어 날아와 밤마다 밤마다 《접동》, 《접동》 슬피 운다는 눈물겨운 시였다. 혹시 우리 누나도 저 밤새되어 날아와 날 부르는게 아닐가?

그러자 그 소리가 금시 날 부르는 누나의 목소리같이 느껴졌다.

《뭘하오? 빨리!》 하고 재촉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에 이끌리듯 걸으면서도 나는 속으로 그 밤새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누나야! 안심하고 눈을 감아. 우린 오늘 누나의 원한을 풀었어. 누나가 못다한 그 임무를 우리가... 이 동생이 다했어.

그러니 누나야, 안심하고 잠을 자렴!》

차츰차츰 멀어져가는 밤새의 울음소리를 《고마워》, 《고마워》 하는 누나의 화답소리로 들으며

나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전선을 넘어 돌아왔다. …이것이 조국해방전쟁에서 내가 참가한 마지막 전투였다. 그 전투에서 세운 공로로 나는 군공메달을 수여받았다. 그것이 또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내가 받은 마지막메달이었다.

그때로부터 두달 남짓하여 우리는 전승을 맞이했다.

바로 그 포병정찰관측소에서였다.

7월 27일 밤 열시가 되자 간단없이 쿠궁거리던 멀고 가까운 포소리도 이따금씩 자지러지듯 따박거리던 소총소리도 하늘을 썰던 비행기소리도 멎고 런던지휘소가 틀고앉은 우리 뒤고지도 적들이 타고앉은 우리앞 《하모니카를선》도 쥐죽은듯 조용해졌다. 것처럼 바라던 전승의 순간이 이렇듯 조용하게 찾아오는가싶은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날도 채 밝기전에 우리뒤 런던지휘소가 차지한 고지우에서 별안간 《만세》의 함성이 터졌다.

그때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채기던 우리는 관측소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고지우에 쭉 떨어져나서 만세를 부르는 런던전우들의 모습이 한여름의 새벽하늘치고는 꽤 높아보는 7월의 하늘을 배경으로 울려다보였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눈속을 찌르고드는것은 누군가의 손에 들려 힘껏 펄럭이며 춤추는 람홍색 공화국기발이었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났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절로 터져나오는 심장의 그 웨침에 우리도 더러는 손에 잡았던 총을 추켜들고 더러는 모자를 벗어 힘껏 던지며 만세를 불렀다.

얼마나 목마르게 바라던 이날이던가.

얼마나 간고하게 마련된 이날이던가.

이날을 안아오려고 장장 3년, 우리 넘고건너온 시련의 강은 그 얼마이며 이날을 위하여 바친 피와 생명은 또 얼마던가.

우리는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다말고 적들이 있는 건너편의 《하모니카를선》을 바라보았다. 그쪽은 반대로 피괴했다.

어느 한놈도 나타나는데조차 없었다.

가끔 한두놈이 참호너머로 머리를 내밀고 우리 쪽을 건너다보다가도 제격 움츠러들곤하였다.

초라하고 풀이 죽어버린 놈들의 그 물결이 우리가 느끼는 승리의 쾌감을 더욱 배가해주었다. 하여 나는 세포위원장아바이의 손을 붙잡고 힘껏 소리쳤다.

《아바이,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먼저 웨치는 나의 목소리도 받아웨치는 아바이의 목소리도 같았다. 그도 나도 너무나 크고 벅찬 감격에 그만 목이 짝 메여버린것이다.》

나는 아바이의 검붉은 뺨으로 번들거리며 흘러내리는 눈물자욱을 보았다. 그도 자기가 울고있

다는것을 느꼈던지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해진 손수건을 꺼내들었다. 그런데… 손수건을 든 그의 손은 자기의 눈이 아니라 내 얼굴을 향하여 천천히 다가오는것이였다.

나는 아바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뒤로 한걸음 물러섰다. 그러는 나의 손에 손수건을 쥐여주며 아바이가 타이르듯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지 말고 어서 눈물을 닦으라구.》

《예?!》

나는 놀라운 눈길로 아바이를 쳐다보았다. 아바이의 모습은 분명 흐려져보였다. 그제서야 나는 나도 울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그 순간에 운것은 나만이 아닐것이었다.

아마도 그 순간엔 이백키로메터가 넘는 전선의 높고낮은 고지와 고지들에서 그리고 이 나라의 많고많은 마을과 마을들에서 모든 병사들과 인민들이 것처럼 소리없는 눈물을 흘렸을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있겠는가.

초연에 그을고 피와 땀으로 얼룩진 병사들의 얼굴에 유난한 자국을 새기며 흘러내린 그날의 그 눈물속에는 참으로 헤아릴수 없이 많고많은 의미가 깃들어있는것이였다. 조국해방전쟁 3년을 이를 악물고 싸워오면서 미제원수놈들에게 잃은 사랑하는 부모처자들과 귀중한 혁명전우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 두고온 고향산천, 그와 함께 광복후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 이젠 그 모든것을 다시 찾을수 있다는 크나큰 환희… 그 모든 감정중에서도 가장 주되는 감정은 승리자의 기쁨-그것이였다.

그렇듯 조국해방전쟁을 이기고 영웅인민, 영웅군대로 온 세상에 이름을 날린 그해 10월 우리편대는 직동령을 넘어 속사리로 옮겨앉았다.

바로 그 행군길에서 나는 몇달동안 미루어오던 세포의 입당심의를 받았다.

어느 개울가 천막속에서였다.

밖에서는 차거운 가을비가 내리고있었다. 산에 들에 단풍이 한껏 붉어진 한가을 우리 당의 창건절인 10월 10일이였다.

당창건의 뜻깊은 날에 세포심의를 조직한데는 나의 입당을 더욱 의의있게 해주려는 세포위원장아바이의 숨은 뜻이 깔려있었다.

입당심의에서는 동철훈아바이자신이 나의 입당보증을 섰다.

세포심의가 끝나고 사단당위원회 심의를 갈 때에는 세포위원장아바이가 직접 데리고갔다. (그때에는 입당심의를 위한 사단당위원회 회의에 세포위원장들이 함께 참가하곤했었다.)

사단으로 향한 도보행군길에서 다른 동무들은 수첩을 꺼내들고 걸으며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나는 그냥 걸었다. 자신만만하다는 생각보다는 책을 뒤져봐야 머리에 들어갈것 같지 않아서였



다.

우리의 뒤를 따라 걷는 세포위원장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들려왔다.

《아바이네 저 교수머린 왜 공불 안하오?》

《그애는 머리가 꺾꺾 도는 애요. 모르는게 없소.》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얼굴이 화끈해왔다. 아이적에 동네 어머니들한테 자랑처럼 하는 어머니의 말을 귀동냥해 듣던 때처럼 면구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든 것이었다. 이러한 체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머니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어머니!

나는 지금 그 말의 진정한 뜻을 새겨본다.

자식들을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것이 어머니들의 욕심이다. 또 자식들을 남보다 더 높이 내세우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자식들에게 때로는 아픈 매를 들게도 하고 때로는 남들앞에 없는 자랑을 꾸며내게도 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정치일군들에게 우리 당이 명실공히 어머니당인 것만큼 당일군들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모든 당원들을 따듯이 대해주고 세심하게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오게신다.

우리 장군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시도 《어머니》라는 서정시이다.

나도 그 시를 펴 좋아한다.

기회가 생겨 텔레비전에서 그 시를 읊는것을 듣노라면 자연히 부드럽고 인자하고 그러면서도 엄하고 대바르시던 고향집 어머니모습이 떠오르고 그 모습이 점차로 동철훈아바이와 같이 내가 걸어온 머나먼 인생의 나날들에 나를 손잡아 이끌어준 잊을수 없는 당일군들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가슴속에 한없이 뜨겁고 숭고한 감정이 고여들군한다. 더 말할나위없이 그것은 철부지전사들을 당원으로, 당일군으로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끝없는 고마움과 다함없는 신뢰의 감정인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늘 말씀하시는 우리 당의 인덕정치, 광복정치도 것처럼 어머니들만이 지닐수 있는 모성에보다 더 뜨겁고 사려깊은 인간애를 지닌 우리 당의 우수한 어머니당일군들에 의하여 더욱 활짝 꽃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지금 동철훈세포위원장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과연 잘난 사람을 보증해나섰다고 나를 힐난할지도 모르지만 모르는것은 사실이 다.

살아있다면 여든살이 훨씬 넘었을 것이다.

함경남도 덕성군 상기리사람으로 해방전에 노

구찌재벌이 우리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건설한 북청-덕성간 철도에서 《철로고우》(철길반로동자)를 했고 정전이 되자 인차 제대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었다. 그후 군직물공장 경비책임자로 일한다는 소식을 10여년전에 들었다. 그것이 전부이다.

한번 가서 꼭 만나본다 만나본다 하면서도 끝내 기회를 만들지 못하였다. 한생이 저물도록 군복과 더불어 살아오는 복잡다단한 군관복무때문인가?

그보다는 내리사랑은 있으되 올리사랑은 없다고 한 옛사람들의 말에서 그 이유를 찾고싶다. 키워준 은혜를 꼭 갚으려는 마음만 있었다라면 천리가 그렇게 먼 길인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를 찾아가본다든가 하다못해 그의 이후소식만은 알수가 있을것 아닌가?

한편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우리들이 제발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 뗏뗏이 걸어갈수 있도록 공들여 키워준것으로 자기의 할바를 다했다고 보는, 하여 그에 대한 그 어떤 《보상》같은것은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분들의 고상한 인품, 정신력, 참다운 인간됨됨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들은 우리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일을 잘할 때에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어김없이 우리들을 찾아와 그 시절처럼 《아이눔의 녀석》하고 엄하게 꾸짖으며 인생의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타이르는 것이다.

조국해방전쟁의 그 나날로부터 어언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매년 8월이 되면 나는 열여섯나이로 군복을 입고 성스러운 전쟁마당에 뛰여든 때로부터 꼭 선해를 맞는다.

강산이 다섯번이나 변했을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많은 추억들을 잊었다. 아니 잊혀졌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잊었던 그 추억들이 되살아온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선시찰에 대한 보도를 접할 때마다 더욱 그러하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나는 포정찰수로 내내 전선동부에서 싸웠다. 그러다보니 전선동부일대의 지형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351고지를 다녀가신데 이어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장과 월비산발전소를 찾으시고 또 제작년 4월 15일에는 전쟁때

우리 수령님께서 몸소 오르셨던 지혜산에 오르시여 경모의 인사를 드리시였으며 적들의 검은 총구가 바로 코앞인 최전연초소들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에 접할 때마다 나의 눈앞에는 전쟁의 나날 측지작업을 하느라고 힘겹게 오르내리군하던 전선동부의 날카로운 산발들과 험한 령길들, 눈뿌리 아찔한 고개길들이 주름주름 밟혀오면서 가슴이 저려들군 한다.

그 아픔을 안고 얼마전에는 조국해방전쟁때의 기억을 더듬어 전선동부일대의 개략도를 내 손으로 그려보았다. 나를 찾아왔다가 그것을 본 동무들이 깜짝 놀라며 정치일군이 지도 그럴줄을 다 아는가? 무슨 지도를 보지도 않고 뜬금으로 그리는가? 하고 물을 때마다 조국해방전쟁때의 기억을 더듬어 한번 그려본다고 어물어물 대답했지만 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밟으시는 전선시찰의 그 험한 길을 더듬어보고싶어서였다. 금강산이며 월비산, 351고지로 나가자면 어차피 우리 나라 내륙지대와 동해안지대를 잇는 외무재령과 그앞의 령을 넘어야 하는데 그 령들로 말하면 가뜩이나 험한 전선동부의 령들중에서도 제일 험한 령들이다.

병무리로 해서 내강리(내금강이라는 뜻)를 거쳐 오르면 15리정도밖에 안되는 외무재령이지만 거기서 유점사로 내려갈 때에는 뱅글뱅글 탈려올라온 길이 무려 50리나 된다. 그러니까 유점사쪽에서 오르려면 50리나 되는 가파로운 령길을 뱅글뱅글 돌아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그 50리길이 가파롭기만... 차는 고사하고 도보로 령을 내리거나 오르던 사람들도 오금이 저려서 차마 령밧을 내려다보지 못할 정도이다. 령우에 올라서면 참나무들이 짝 엮혔는데 령이 얼마나 높고 바람질이 심한지 나무의 우듬지들이 우로 올리뻘지 못하고 큰 칼로 벤듯이 옆으로 짝 퍼졌다. 밤에 오른 사람은 파수원의 사파나무로 삭갈려보기가 쉽다.

바로 그 외무재령에서 유점사를 지나 거기서 온정리로 내려가려면 무려 70리나 되는 험한 길을 뚫아내려야 한다. 왜정때 돈많은 부자놈들이 신고(가마)를 타고 하루종일 올라 유점사를 돌아보곤 했다고 한다.

유점사앞에서 솟는 샘을 오락수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유래만 놓고봐도 령이 얼마나 높고 험한지 짐작하기 과히 어렵지 않다.

옛날에 어떤 중이 골이 깊고 산세가 하도 절묘한곳이라 여기에다 절간을 지어야했는데 한가지 걱정되는것이 물이 없는것이어서 바위에다 대고 며칠동안 꼬박 빌었더니 하루는 까마귀 한마리가 날아와 굳은 바위잔등을 툭툭... 쫓더라고 한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까마귀가 쫓아놓은 구멍에서 맑은 샘이 팔팔 소리치며 솟아났다고 한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오락수라는것이였다. 바로 그같이 령이 하도 높고 험해서 물조차 없던곳을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셨다고 생각하니 그 높고 험한 령 굽이굽이가 눈앞에 선히 떠오르면서 가슴이 얼얼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먼 후방에 앉아서 그 령을 오르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눈앞에 상상해보는것이 전부인 나같은 사람의 가슴이 이리할진대 최고사령관동지를 직접 모시고 동행한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조동지들의 심정이야 오죽했겠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은 더욱

쓰렸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우리들에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잘 받들어모시라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셨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일군들에게 하신 귀중한 가르치심은 모두 최고사령관동지를 잘 모시라는 뜨거운 부탁으로 일관되어있었다싶이하다.

바로 그런 간곡한 부탁의 유훈을 직접 받아안고서도 장군님을 것처럼 험한 길로 모셔드려야 하는 그들의 아픈 심정을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지난해 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으신 전선시찰의 로정을 차곡차곡 따라 밟으며 종군작가의 심정으로 글을 써가고있는 한 젊은 시인을 만난적이 있다. 그때 그에게 나의 심정을 터놓았더니 그는 말했다.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조성원들도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 령들만은 오르실수 없다고 굳이 막아나섰답니다. 그날따라 진눈까비가 몹시 날렸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어떠하셨는지 아십니까?

...동무들은 길이 험하다고 나의 앞을 막을것이 아니라 것처럼 높고 험한 령너머에서 당파 조국을 위하여 묵묵히 청춘을 바쳐가고있는 전사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나의 앞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몸소 승용차의 조향대를 잡으시고 진눈까비 날리는 그 위험한 길을 단숨에 오르셨답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으면서 나는 전화의 그 나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전선동부의 중요고지들을 찾아오시여 전사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가시였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듣고는 흥분된 가슴을 들먹이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일들을 생각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1211고지방어작전을 바주시려 지혜산까지 나오셨다가 가신 소식도 우리는 력 후날에야 알고 흥분으로 온몸을 달구었고 영광의 땅 룡포리에서 전선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을 만나시고 소박한 오락회까지 하고 가셨다는 희한한 소식도 나날들이 수태 흐른 다음에야 알고 그날의 이야기를 자신들이 겪은 일처럼 서로 주고받았다.

그런데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께서 그 길을 쉽없이 이어가시는것이다. 힘겨운 강행군길을 달리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 전환적국면을 열어주시려, 강성대국건설에 일떠선 우리 혁명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시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어제날의 이름없는 수령님의 전사, 오늘은 장군님의 이름없는 로병전사- 나도 끝없이 걷고 또 걷고있다. 추억과 신념의 멀고먼 전선길을...

(다음호에 계속)

## 조국의 품에 닳을 내려

리정택

### 삶의 닳은 어디에...

출항의 시각을 앞둔  
그 짧은 순간도  
내 조국땅을 더 밟아보고싶어  
성벽인양 일떠선 갑문언제우를  
새기듯 자욱을 남기며 걷는다

배길은 험난하여  
때로 풍랑에 항로는 바뀌어도  
변함없을 내 삶의 항로인양  
곧바로 뻗은 언제와 두줄기 철길은  
조국의 품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창창 흰갈기 추켜든 파도  
내 발부리에 밀려와도  
오히려 내 마음 더 든든해짐은  
내 딛고선 언제, 방파제는  
안기면 시름없던 어머니의 품인가

너를 떠나 내 머나먼곳  
그 어디에 가있었어도  
순간도 잊은적 없었다  
해빛에 아롱지는 잔잔한 은물결  
나는 그 은물결의 작은 물방울!

너를 떠나 내 머나먼곳  
풍랑세찬 배길을 가도  
내 마음 봄날의 들판을 건듯 즐거움은  
나를 지켜 자욱자욱 따라서는 방파제 있어  
나는 그 방파제아래 행복한 갈매기!

부웅!...  
출항을 알리는 배고동소리  
먼길로 나를 부르는 조국의 명령  
가슴에 가득찬 조국의 모습  
가슴에 가득찬 조국의 사랑

조국여! 명령받은 이 전사의  
승리의 보고를 기다려달라  
선미엔 감겨오르는 무쇠땀  
고개들어 조국의 푸른 하늘 우러르니  
내 마음에 내려지는 갑문언제의 화강석땀

조국과 바다와 나의 운명을  
생의 연분으로 땀어준  
닳은 나를 보며 말하누나  
- 오, 전사여 그대 마음의 닳은  
조국땅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말라!

### 갑문을 나설 때면

갑실문이 열린다  
대동강이 바다물과 열싸안고 춤을 춘다  
강물이 바래워주고  
바다가 맞아주는 룬무속을  
나의 배는 지난다

어서 떠나거라 배래주던  
정다운 부모들과 이웃들의 마음인가  
승리의 기쁨안고 오라  
힘을 주던 벗들의 마음인가  
배전엔 물의 룬무, 선미엔 갈매기...

가야 할 길 수천수만리  
배전을 넘노는 파도도 헤쳐야 하리  
풍랑세찬 해협도 지나야 하리

가도가도 섬 하나 없는  
고독한 대양도 건너야 하리

배는 흔들리고  
땅은, 조국은 멀어질수록  
조국이 준 임무 귀중해  
마음은 언제나 조국과 함께 있어  
높뛰는 파도는 우리의 숨결!

대양우에선  
배는 나무잎처럼 작다 해도  
마스트에 공화국기 날리니  
바라보는 하늘은 우리의 하늘  
머리위의 태양은 우리의 태양

그 하늘아래  
그 태양아래  
나서자란 향촌의 모습  
그립고 미더운 이웃들과 친구들의 모습  
우리와 함께 있거니

결승테크 가슴에 끓는  
승리자의 모습처럼  
경도와 위도를 테프마냥 타고넘으며

파도와 풍랑을 맞받아가는  
신념에 넘친 배길이어

아, 태풍이 파도를 앞세우고 달려오고  
암초가 배길을 막는다 해도  
우리의 항로는 승리의 항로  
선미에 든든히 감아올린 닻  
그 닻은 조국이 튼튼히 쥐고있기에!

## 그 사랑 끝이 없어

내 조국 떠나  
처음 닻을 내린곳은  
남방의 섬나라 항구였네

열풍은 온몸에 땀 솟게 하고  
거리의 야자수잎새도 더위속에  
죽지부러진 수리개의 날개인듯...

반겨주는 외국인들  
구면인듯 우리 보고 인사하네  
가슴에 빛나는 수령님 영상 우러르며

-김정일동지께서 건강하십니까?  
영웅의 나라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흑진주처럼 반짝이는 눈빛  
마음속 품은 생각까지 비쳐주네  
수령님 타고난 우리에게 대한 부러움

한생 억눌려 속아살아온 인생  
분쟁속에 안식을 모르는 삶  
래일이 없는 생의 탄식

우리를 볼 때마다 신심넘친다네  
자본의 철쇄를 투쟁의 마치로 끊어버린  
조선인민은 승리의 상징!

투쟁으로 찾은 행복을  
투쟁으로 지켜가는 조선의 모습은  
자기들의 영원한 래일의 모습이라네

봄비는 항구엔 수백척의 외국배들  
우리의 배전에 바투 닻을 내리니  
조산이란 대륙이 이 세상에 생긴듯!

삶의 닻을 올린곳은 달라도  
삶의 닻을 내릴곳은 오직 하나  
위대한 장군님 조국 그 품이라네

## 파도와의 대화

-나는 파도  
나는 바다의 제왕  
나의 힘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보라, 나의 밑엔 수장된 도시도 많다  
나의 갈기에 산산이 흩어진 배는 수천척  
너 어서 물에 닻을 내려라

-파도여, 분별없이 날뛰지 말라  
너 보아오지 않았느냐  
생마같은 너의 갈기 틀어잡고  
파도를 발이랑마냥 놀러디디며  
한번 정한 항로 변함없어  
라침판의 바늘도 우리를 따라서던것을

-내 보았노라, 그래서 묻노니  
나의 잔등 칼로 가르듯 날치는  
미국놈의 함선과 시꺼먼 포아가리

언제나 당신들 앞길을 막아도  
파도도 노래로 처갈기듯 꾀꿉이 가는  
당신들의 그 힘 어데 있느냐

-말해주마 우리의 《전함》은  
순풍에 돛을 올린 배가 아니라  
백두의 천리수해에 돛을 올리고  
자력갱생의 마치로 닻을 버리고  
백두의 산발을 파도처럼 헤치며 온  
승리의 《전함》이 거니

넓은 바다는 우리의 활무대  
높은 파도우에 우리 신념 불타고  
원썹들의 위협도 봉쇄도 그것은  
신념넘친 우리 배길의 물거품!  
하여 나의 선미에 추켜든 무쇠닻은  
구보로 달리는 조선의 무쇠주먹



맛은 안식을 의미하지만  
화살표식의 그 모습은  
모진 풍랑에도 흔들림없이  
한번 택한 혁명의 길로  
곧바로만 나가는 조선의 신념  
조선이 비껴든 혁명의 창검!

-내 진정코 알았노라  
수천년 지켜온 나의 힘은  
그대들 배전에 일렁이는 잔파  
그대들, 조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정의의 파도, 불의 파도, 나의 스승!

## 조국의 부름

조국의 부름  
-조국으로 돌아오라!...

내 어릴적  
첫 야영의 나날 그리도 즐거워도  
항시 못있던 어머니 음성처럼  
그리도 기다리던 조국의 부름

내 항행의 서른해세월  
이 세상 그 어데 다 가보았어도  
그 부름 기다려 살아온 한생인듯  
그 부름속에 나의 삶, 나의 기쁨 다 있는듯

어려움도 있었다 ,  
징그러운 웃음도 있었다  
량만도 있었다  
원수들의 위협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있었다  
조타를 잡으면  
항로를 정해주고 이끌어주시는분  
그분은 경애하는 우리의 장군님

어데 가나 우리의 머리우엔  
조국의 푸른 하늘 열려있었고  
넓고넓은 바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바다

어서빨리 가고싶은 마음은  
벌써 들어선다  
스르르 열리는 서해갑문 갑실문  
기다린듯 맞아주는 대동강 맑은 물

침방!...  
닷 떨어지는 소리 귀전에 들려온다  
풍상고초 많은 길에서 돌아온 아들이  
어머니 부르며 그 품에 와락 안기듯

온 대양과 우주 가득 차넘친  
-조국으로 돌아오라! 조국의 부름따라  
천만리도 지척인듯 달려가  
나의 배 무쇠땃 조국에 내리려니

오, 조국이어 믿어달라  
나의 배, 무쇠땃은 조국에 내린다 해도  
마음속 감아든 투쟁의 땃은  
순간도 내리지 않으리라하는것을

집떠난 자식을 기다려  
빳장 지르지 않는 고향집문처럼  
스르르 열리는 갑실문안으로  
내 마음은 벌써 들어선다

조국의 부름  
-조국으로 돌아오라!...

## 가사

## 대홍단아 네가 바로 내 고향

김휘조

그립던 고향을 뒤에 두고 나는 왔네  
장군님 오셨던곳 제대배낭 지고왔네  
푸른꿈을 펼쳐갈 대홍단 넓은 벌아  
그이의 뜻이 어린 네가 바로 내 고향

총잡던 이 손으로 프락포르 몰아몰아  
들가득 감자열매 무겁게 실어가리

나의 보람 넘쳐날 대홍단 넓은 벌아  
그이 뜻 가꾸어갈 네가 바로 내 고향

해마다 만풍년 정을 다해 가꾸어  
병사시절 그날처럼 기쁨만을 드리리  
나의 행복 끝없을 대홍단 넓은 벌아  
그이 뜻 활짝 꽃필 네가바로 내 고향

## 흙, 뿌리

전인광

## 1

송영백은 그 한줌의 흙이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흰 띠구름이 줄지어 흐르는 태평양의 가없는 상공을 날으던 비행기가 어느덧 미국서부해안가를 가까이할무렵, 시창열의 의자등받이에 기대여 공항에 마중나왔을지도 모르는 아들 수민을 생각하고있던 영백은 《손님! 미안합니다.》하는 상냥한 목소리에 옆을 돌아보았다.

진한 화장내가 물결 풍겨오는 유혹적인 취향의 금발머리 안내원이 서있었다. 파란눈을 반짝 빛내며 손에 든 종이묶음에서 한장을 뽑아 건네준다.

《여기 이쪽에 적힌 항목이 반입금지물이에요. 도착전에 적어주세요.》

영백이 받아든 종이장의 한켠귀를 가리키고는 고개를 까딱하며 생긋 웃어보이고, 다음 좌석으로 넘어간다. 승객들이 가지고가는 짐의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있는 세관신고서였다. 짐이랄것도 크게 없는 영백은 새빨간색 칠을 한 그 녀자의 송곳같은 손가락이 짚었던 란을 대충 스쳐보았다.

그러던 그의 시선이 한곳에서 문득 굳어졌다.

《흙이라니, 아니?...》

영어로 표기된 반입금지물내용을 다시한번 찬찬히 뜯어보던 영백은 가슴이 철렁하여 저도 모르게 몸을 반쯤 일으켰다. 《아, 여보시오. 안내원!》 하고 벌써 저쯤 간 그 녀자를 다급히 불렀다. 흠짓 뒤를 돌아본 그 녀자는 얼굴이 굳어진 영백을 보자 습관된 직업감각이 살아난듯 대번에 긴장해지며 돌아왔다. 비행기사고가 빈번하다보니 최근 여객기승무원들은 승객들의 사소한 표정 변화에도 민감하게 신경을 쓴다.

영백은 어지간히 당황한 낮빛으로 《흙》이라고 찍힌 란을 짚었다.

《이것말이요. 그러니까 흙도 반입금지품에 속한다는겁니까?》

안내원은 공연히 놀랐다는듯 호- 긴숨을 내쉬며 커다란 눈을 할짓 흘렸다.

《그래요. 다른 나라의 흙은 절대 들여갈수 없습니다.》

《아니, 미국에선 흙까지도 다 단속한단 말이요?》

영백이 꺼렇게 질린 얼굴로 이렇게 되물자 그 녀자의 얼굴에 의미없이 떠있던 상냥함이 물이 솟배듯 순간에 사라졌다. 노란 홍채막속에서 싸

늘한 눈길이 바늘끝처럼 차갑게 일어선다.

《손님, 혹시 흙을 가지고계세요?》

《아,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만...》

영백은 당황해서 얼버무렸다. 금발머리는 미심쩍은듯 머리를 가웃하고 영백을 알궃게 한참 내려다본다. 그러더니 할수 없다는듯 뺨 돌아서서 앞으로 나간다.

영백은 순간적으로 머리끝까지 치받쳐오르는 분노에 가슴이 후두두 떨렸다. 평소 체내에 응결돼 있던 미국에 대한 반감이 또다시 피줄을 켜기며 살아올랐다.

(이를 어쩐다?)

영백은 막막한 심정으로 잠시 멍히 앉았다가 놀란듯 자리에서 일어나 짐보관함에서 작은 트렁크를 내리웠다. 무릎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연 그는 제일 밑바닥에서 검은 비로도로 만든 작은 주머니 하나를 끄집어냈다. 그것을 감싸쥐자 푸근한 촉감이 느껴졌다. 부드러운 정서의 물결이 일렁이며 차오르더니 한줄기 훈훈한 난류가 취기처럼 그의 온몸으로 퍼져간다.

《애야! 이 흙을 니 아버지 무덤우에 뿌려다오.》

어머니의 갈린 음성이 다시금 귀전에 쟁쟁히 울려온다. 영백은 뜨거운것이 핑 고여오르는 눈길을 시창으로 돌렸다. 고향집 정든 뜨락에서 손저어 바래주던 흰웃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시야를 짙 채워온다.

평생 따뜻한 인간의 감정을 모르고 살아온 메마른 그의 가슴에 생명의 즙을 느끼게 해주고 마침내 그것이 방울방울의 물이 되고 호수가 되어 가슴가득 출렁이게 해준 어머니!

영백은 흙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을 다시금 느끼는듯싶었다. 그는 조국을 오래 떨어져있던 사람들이 조국을 찾게 되면 고향의 흙을 품에 안고 떠나온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었다. 그때는 단순히 조국에 대한 잊을수 없는 정표로 그것을 품에 안고 가는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직접 느껴보니 그런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다. 지금 안고있는 이 흙주머니는 근 50년세월 그가 잊고있던 조선사람의 정신적뿌리를 그의 의식속에 다시 심어준 생명의 넋이었다.

...미국 서남부의 한 소도시에서 자그마한 음식점을 경영하는 송영백이 폐업상태나 다름없는 영업도 뒤편에 두고 부랴부랴 조국방문의 길에 오른것은 고향의 어머님이 생존해계신다는 꿈같은 소식을 들었기때문이었다.

그 소식을 가져온것은 그와 오랜 친분을 가진 공목사였다.

음식점을 찾아올 때마다 열두살에 어머니결을 떠나던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도 외우는 영백의 하소연을 귀에 절도록 들어온 공목사는 조국에서 열리는 범민족통일행사에 해외동포대표단 성원으로 갔던 길에 영백의 고향소식을 알아가지고 돌아왔던것이다.

목사 역시 얼마나 반가왔으면 비행기에서 내려 자바람으로 공항에서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을가.

《송선생, 출추시오. 만세요 만세. 이런 꿈같은 일이 어디 있겠소. 팔십고령의 어머니님이 지금도 정정해서 고향에 생존해계신단 말이요.》

《...》

《어머니를 만나러 갈 차비를 하시오. 하하.》

귀전을 땀 올리는 목사의 갈린 음성이 아득한 하늘 한끝에서 들려오는듯싶어 그 소리를 놓칠가 저어하듯 영백은 송수화기를 귀전에 바짝 가져다 댔다. 심장이 후두둑 뛰다가 쿵쿵하는 규칙적인 박동소리로 돌아올 때까지 멍해서 한마디 말도 잊지 못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송수화기를 꼭 부둥켜잡고 뉘엿뉘엿 중얼거리는 그의 볼을 타고 두줄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영백의 고향은 천봉산기슭 산간마을이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어 아버지가 현물세 쌀가마니를 숨기기 위해 마을사람들과 함께 천봉산골짜기로 들어간 며칠 후 미국비행기의 폭탄파편에 허리를 다친 어머니는 부상이 너무 심해 옆집 경만이네 소달구지에 누워 찻등골 친정집으로 떠나갔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손으로 영백의 언손을 꼭 잡고 《영백아, 엄마 인차 돌아올게. 아버지 말 잘 들어라.》 하고 힘겹게 뇌이고는 누나가 끄는 소달구지에 실려 고개를 넘었다.

오불꼬불 휘어져간 달구지길로 덜컹덜컹 돌부리를 타고넘으며 등성으로 올라가던 달구지우에 맥없이 누워있던 어머니, 피를 많이 흘려 낮빛이 얼음장같이 창백하던 그 모습이 영백의 가슴에 새겨진 어머니의 마지막모습이었다.

돈 한푼이 금쪽같이 귀한 속에서 공목사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조국방문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 영백은 가슴설레이며 고향에서 만나게 될 어머니의 자채를 그려보려 애썼었다.

젊어서는 그렇게 아릿답고 곱던 어머니지만 50년 가까운 세월의 고뇌속에 너무나도 몰라보게 달라졌을것이라고 생각하니 느닷없이 가슴 한귀를 잡고 놓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

헤어보니 올해로 여든셋이 되시는 어머님이셨다. 육체적로쇠의 정도는 나름대로 가슴이 가지

만 그 년세에 혹시 정신적으로는 어떠실가 하는 생각은 부지불식간에 꼬리를 무는 위구심을 불러왔던것이다.

일족이 전멸된다는 적들의 원자탄공갈에 떠밀리운 아버지가 송씨가문의 3대독자만은 살리겠다는 몽매하고 순진한 생각에서 허둥지둥 아들의 손을 끌고 남으로 떠난 까닭을 그때 찻등골에 가있던 어머니는 알리도 없었다. 고향집에 다시 나와 남편과 아들이 남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억장이 무너져앉았을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만나면 팔손이 넘은 어머님께서 술한 마울사람들앞에서 야단이라도 치시면 어쩔것인가 하고 생각하니 은연중 속이 떨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공연한 기우였던가.

영백은 어머니를 만나던 그 순간이 다시 돌이켜지며 가슴이 찌르르해왔다.

평양에서 이틀을 머문후 승용차를 타고 세시간을 달려 천봉산기슭의 고개길에 접어들었을 때 신록이 짙어가는 고개마루에 나와선 한때의 사람들속에서 영백은 첫눈에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아름드리 로송아래 허리가 굽고 머리가 모시바구니같이 하얀 할머니가 서있었다. 어머니다! 하는 육감에 영백은 가슴이 후두둑 뛰며 차가 미처 서기도전에 허둥지둥 밖으로 뛰어내렸다.

《어머니!》

머리에 서리가 허영게 불린 초로의 장년의 입에서 창졸간에 튀어나온 웨침은 열두살 소시적 어머니를 부르던 그 부름 그대로였다.

《어머니, 접니다. 영백이에요.》

두팔을 내밀고 허위허위 다가오던 어머니가 문득 굳어졌다.

뿌리내린듯 한자리에 서서 영백의 얼굴을 훑어지게 바라보기만 한다.

영백도 무정한 세월의 흐름속에 너무나도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얼없이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이렇게 변했단 말인가.)

영백은 너무도 달라진 어머니 모색에 억이 막혔다. 젊었을적엔 온 마을에 인물끓고 마음씨곱기로 소문났던 어머니였다. 늘씬한 키에 굽고 홍조편 둥실한 얼굴, 거기에 강직하면서도 활달한 성격으로 동리어른들이 《그저 샘골집 새애기만큼만 해라.》고 내인들에게 늘쌍 입에 올리던 어머니였다. 영백의 가슴에 오늘껏 그때 그 모습으로만 간직돼있던 어머니는 반나마 굽은 허리며 깊은 주름이 가득 앉은 전혀 판모습의 할머니로 영백의 앞에 나타났다.

어머니는 짓물리기 시작한 눈으로 낮선 사람을 보듯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눈에 불빛같은것이 번쩍 지나갔다. 수십년세월 하루한시도 잊은적 없던 아들의 모색을 어머니는 비로소 찾아본듯싶었다.

어머니는 눈길을 들어 영백의 어깨너머 친구를 뭉개뭉개 떠있는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머니는 《네가 왔구나.》하는 한마디를 속삭이듯 나직이 외우며 눈을 꼭 감았다. 눈귀로 새어나온 눈물방울이 그물같은 주름이 깊은 두볼로 무겁게 흘러내렸다. 아니 그것은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아물지 않은 가슴속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피방울이었다.

《어머니!》 하고 부르며 영백은 한달음에 달려가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서 풍기던 그 달작지근하고 감미롭던 냄새가 그의 폐부로 거침없이 스며들어들었다.

어릴적 어머니품에 파고들며 응석과 어리광을 부리던 갖가지 추억이 아득한 세월의 두터운 덮개를 열고 한꺼번에 떠올라왔다. 수십년세월 그처럼 그리웠던 어머니의 그 따뜻한 온정을 이 시각 온몸으로 느끼게 되니 꿈만 같았다.

영백의 얼굴을 두손으로 감싸쥐고 다시는 놓치지 않을듯 보고 또 보던 어머니는 이윽고 묻는 것이었다.

《근데 너 아버지는 어디 두고 너 혼자 왔느냐.》

영백은 숨이 꺾 막혀왔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어머니가 왜 방금 자기뒤 아득한 하늘가를 바라보았는지 깨달았던것이다. 어머니가 알아본것은 아득한 옛시절 어린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다 자란 아들의 얼굴에서 어머니가 먼저 알아본것은 너무도 남편을 닮은 아니 남편 그자신의 모색이 었던것이다. 영백은 목메여 흐느끼며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아버진, 아버진 그렇게도 어머니를 만나 용서를 빌고저 했는데... 끝내 끝내 오시지 못하고 그만 이국땅에... 후.》

어머니는 마음의 금선이 끊어져나간듯 공허한 시선으로 파아랗게 비껴간 여름하늘을 망연자실한 눈길로 바라보고 섰을뿐이었다...

고향집 첫날밤을 영백은 어머니와 한자리에 누워 새웠다.

《열두살 그때까지도 이 에미 팔을 베고야 잠들던 네가 그래 그 험한 세상에서 이 에미 없이 어떻게 살아왔니, 응?》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은 영백을 이리 오더라 해서 두손을 붙잡고 쓸어보다가는 또 웃동을 벗으라 해서 그의 잔등이며 가슴까지 일일이 살펴보았다. 그러다가는 다시 그의 얼굴을 두손으로 더듬어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예순살이가까운 영백이건만 역시 어머니에게는 아득한 옛시절 철없던 그 아들 그대로일뿐이었다.

영백은 어머니앞에 집을 떠나던 일이며 그간 남조선과 미국에서 살아온 과정을 말씀드렸다.

한겨울의 긴긴밤을 길가의 세멘트판에서 새울

때 수업에 얼음버께가 허영게 긴 턱을 덜덜 떨면서 《영백아, 추... 춥지.》하며 툭툭 부은 영백의 언발을 아버지가 가슴을 헤치고 자기의 체온으로 녹여주던 일이며 그리고 부산자갈치시장의 싸구려 음식점에 식기닦기로 고용되어 식기굽을 잘 닦지 못했다고 음식찌꺼기 동등 떠도는 세척통에 덜미를 처박혀 구정물을 삼키던 일이며 더는 참을수 없어 아버지가 주인놈을 때려눕히자 음식점에 고용된 쟁패들이 달려들어 결국 그들 부자는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 걸레처럼 문밖으로 던져졌던 일을 이야기했다.

《영백아, 이 어리석은 애비를 어쩔거냐. 이 저주맛을델 왜 왔겠니. 으흐후.》

그때 거리 한복판에서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머리로 길바닥을 짓조으며 황소처럼 울부짖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겨운 그 정상이 삼삼히 마주오는듯 연송 저고리고름으로 눈굽을 찍으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서든 제 고향으로 찾아올 생각을 해야지 그 원썬놈의 미국땅엔 왜 갔단말이나. 영.》

그때 영백은 조용히 울리는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한생을 몽롱한 안개속에서 잠자던 뇌리를 울리는 엄청난 진폭의 종소리처럼 들려와 그만 큰숨을 들이그었다.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의 잘못된결은 인생길의 근원을 한순간에 짚어내는것이였다.

영백은 허헉- 가슴을 터치며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의 뜻이 가슴속 정곡을 찢어서만이 아니었다. 팔십고령에도 그처럼 명백한 생활신념과 건강한 정신력을 지닌 어머니가 너무 고마와, 아니 그런 건강한 정신력을 준 고향 땅이 너무 고마와 장판바닥에 엎드려 소리없이 울었다.

## 2

어머님의 그 말씀이 옳았다.

막다른 생활난, 정전이 되고 군사분계선이 막혀 고향으로 갈길 역시 가망없음을 깨닫자 차라리 먼 타국으로 가서 항수병이라도 덜고 살자는 절망의 선택에서 아버지는 끝내 미국이민을 결심했다. 그것이 결국은 그들 부자의 운명에 더 비참한 결말을 가져온 비극의 선택이 되였다.

미국 로스안젤스의 한 교외, 역시 같은 조선이민들이 모여사는 작은 마을이 대양을 건너간 그들의 첫 정착지였다.

그러나 거기 모인 이민들 대다수가 《고국병》을 앓는 사람들인데다 서태평양의 푸른 물결만 봐도 가슴이 설레여 일년도 못넘기고 아버지는 다시 영백의 손을 끌고 더 내륙으로 들어갔다.

네바다주 남부와 아리조나주 서부를 잇는 자그마한 소도시, 미국의 3대사막이 만나는 접경지역



이 그들이 마지막으로 자리잡은 은둔지였다.

년중 모래바람이 그칠새 없고 숨막히는 열풍과 메마른 태양의 찌는듯한 열기에 숨쉬기조차 가쁜 삭막한 고장이었다.

그러나 고향이란 그렇게 멀리 간다고 해서 잊혀지는 그런것이 아니었다. 멀어질수록 그 그리움이 곱으로 증폭되는 인간의 원초적감정의 박우물, 자기 삶의 본향, 고향이란 바로 그런것인것이다.

멀지 않은곳에 도박의 도시로 유명한 라스베가스가 자리잡고있어 그곳을 찾아가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처음엔 과일장사를 해서 아득바득 돈을 벌었다. 몇해 걸린 피나는 고생끝에 그들 부자는 힘들게나마 자그마한 음식점 하나를 장만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향수병은 오히려 더 심해만졌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가에 아버지는 짬만 생기면 창문턱에 몸을 엮고 먼 태평양쪽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곤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에 하얗게 타버리는 삭막한 하늘가에 공허한 눈길을 주고 한식경씩 무엇인가 생각하다가는 느닷없이 웅크리고 앉으며 어허허허 어혈이 저 피눈물이 뭉친 울음을 덩쿨덩쿨 내쫓곤했다. 그들의 음식점에는 단골로 다니는 흑인들과 이민들이 몇이 있었다. 몽유병자처럼 고향생각에 젖어 사는 영백 아버지의 그 가슴 저런 정경을 목격하게 된 그들은 그의 지나친 《향수병》을 오히려 의아해했다.

음식점에 자주 찾아오군하는 월리라는 청과상 주인은 내놓고 비아냥거렸다.

《미스터 송, 고향이 그렇게 그리우면 이 미국 땅에 오긴 왜 왔소. 그렇게 살이 내릴것 같으면 다시 고향찾아 떠나면 될것 아니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할만도 했다.

미국이란 불과 몇백년어간에 본국에서 생존경쟁에 밀려난자들, 이른바 《개척》과 《신분상승》의 야망에 들뜬 인간들이 유럽과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어 급조한 나라다보니 애당초 미국인들에게는 자기들의 뿌리에 대한 존중개념이 희박했다.

최고 꺼멓고 누런 세계의 모든 인종이 다 모인 《인종합중국》, 온갖 사이비신앙이 범람하는 종교의 《천국》이고 또 그 지옥인 땅, 인간이 달할 수 있는 극한의 온갖 타락과 부패, 자유와 방종이 한 남비안에서 지지고 볶고 튀겨지는곳, 그때문에 그 남비가 풍기는 색깔이며 냄새도 세상 어디에도 없는 퀴퀴하고 메스메스함으로 독특한 혼합과 혼탁의 합중국이 바로 미국이었다. 그래서 미국사람들은 술도 섞어마시는 《각테일》같은것을 즐기고 음식도 밀가루에 시금치니 양파니 쏘세지니 햄이니를 두루 섞어만든 피치따위를 최고

로 여기는지 모른다. 여하튼 미국사람들에게는 떠나온 고국이란 필사적으로 탈출해온 생존경쟁의 출발점외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저들을 《정신적인 유목민》이라 부르는것인지... 그런 그들에게 미국의 그 퀴퀴함과 혼탁함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가 이상하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망향의 한에 멍이 든 아버지는 40대중반에 들자 벌써 허리가 굽고 쿨럭쿨럭 병든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술이나 한잔 들어가면 당시 이민들속에 유행하던 《고향이 그리워도 못가는 신세...》라는 노래를 꺼이꺼이 부르다가는 영백을 끌어안고 부르짖곤했다.

《너희 어머니 날 용서 안할게다. 간 세월에 지은 죄는 물릴수도 없으니. 아-》

영탄에 젖은 아버지의 향수병은 실상 두고온 안해에 대한 남다른 정때문에 더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말끝마다 사랑하는 안해에게 용서를 빌곤했다. 오직 그 일념뿐이다보니 주위에서 아무리 강권해도 후취를 앓았다. 영백이 하나를 품에 끼고 모진 생활고를 억척같이 이겨내며 영업을 일궈냈다. 푼전을 아껴가며 영백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고 역시 이민온 중학교교사의 딸과 결혼시켜 가업을 대물렸다. 세월이 흘러 영백도 어느덧 아들딸 오누이를 두게 됐다. 그런데 손주들을 보는 아버지의 낯빛은 기쁨이 아니라 흠뻑으로 더 컴컴하게 굳어졌다 이민 3세로 이국땅에 태를 묻은 대물린 후손까지 보게 되니 더 억이 막혔는지도 모른다.

그 한과 그 고뇌때문에 아버지는 제명을 다 못하고 눈도 못감은채 이승을 하직했던것이다.

운명하던 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영백의 두손을 더위잡고 서쪽하늘 떠창문을 뚫어지게 바라 보며 피토하듯 부르짖었다.

《영백아! 살아서 못갔으니 죽어서라도 고향땅에 묻히고싶구나.》

차거운 가을비가 흩뿌리는 속에 영백은 모래가 절반인 누런 사토에 아버지를 묻었다. 장례회사에 주문해서 모래땅에서도 견딘다는 잔디를 사다가 정성껏 봉분을 올렸다. 그러나 웬일인지 심을 때마다 잔디는 봉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누렇게 말라죽곤했다. 지어는 무덤가에 심은 단풍나무조차 시들어죽고말았다.

뜨겁고 사나운 모래바람타이겠지만 공목사는 죽어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단 아버지의 원혼이 한을 품고있어 그 잔디와 나무가 살지 못하는것이라고 했다. 그 말이 옳은것인가도 모른다.

그런데 아버지를 잃은 그 이듬해 설상가상으로 미국 동남부를 휩쓴 흑인폭동의 와중에 영백의 음식점은 그만 줄지에 풍지박산이 되고말았다.

흑심한 인종차별에 격분하여 들고일어난 흑인

들이 닥치는대로 백인들의 《우월》을 짓부시고 불태우기 시작하자 당국은 중장비건설기계들을 동원하여 흑인거주지역을 밀어버렸다. 그중에 영백의 음식점도 폐허로 되고말았다. 불타고 파헤쳐진 음식점자리에 퍼터앉은 영백은 기가 막혀 땅을 쳤다. 주당국이 피해보상금이랍시고 몇푼의 돈을 던져주었지만 그것으로는 당장 먹고 살 호구지책도 안되었었다.

다 큰 아들딸 두 아이와 안해까지 합쳐 네가솔의 명줄이 달린 음식점을 다시 일떠세우지 못하면 그들의 운명은 물에 던져진 물고기신세나 다름없었다.

영백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30년전 아버지와 첫시작하던 때처럼 림시가설막을 해서 만든 음식점에 간판을 내걸었다. 아들딸의 학업까지 중단하고 네식솔이 교대로 영업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일이 너무 고되다보니 가족들이 이겨내지 못했다. 원체 병약하던 안해가 먼저 덜컥 쓰러졌다. 뒤이어 고등학교 입학시험준비를 하다 졸지에 생업에 나선 딸이 노상 눈물속에 음식남비앞에 마주앉군하다 팔과 다리에 화상까지 입었다.

하지만 영백은 눈을 꼭 감았다.

여보, 그리고 애들아! 이를 악물고 이겨내야 한다. 그러잖음 우린 다 죽어야 한다. 영백은 피눈물을 뿌리며 팔을 걷고 나섰다.

이런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에 부대끼던 바로 그런 때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꿈같은 소식이 날아 들었던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조국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러권수속 자체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급선무는 역시 돈이었다. 수중에 돈 한푼 없는 신세에 북조선까지 비행기왕복료금만도 거액이 들어가는 그 러비를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영백은 기가 막혀 한숨만 푹푹 내 쉬었다.

그때 공목사가 찾아왔다. 영백앞에 많은 돈을 성큼 내놓으며 주저하는 그의 손을 덥석 잡고 《이 돈을 가지고 갔다오게. 옛말에 아들 하나 키우기가 수수 한말 실에 꿰는것보다 더 힘들다 했네. 자네를 낳아 철들도록 다 키워준 어머니품이 목마르게 기다리고있는데 뭘 주저하겠나. 가보게. 가보면 자네가 떠난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던가를 새삼 알게 될걸세.》하며 의미깊게 등을 밀어주었던것이다.

《목사님!》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에서 반과쏘민주화투쟁의 앞장에 서서 싸우다 해외로 망명한 공목사는 가족 친지를 다 남에 두고있는 사람이다. 그런 그로서 한푼의 돈이 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 데도 영백의 일에 그처럼 전심전력이었다.

영백은 목이 꺾 메여 꺾 켜 목사의 손을 언제

까지고 놓지 못했었다. 그렇게 힘들게 떠난 고향 방문길이었다. 공목사가 준 그 돈으로 여행료금을 청산하고 나머지 팔라를 그는 그대로 가지고 조국에 갔었다. 그 돈이 고향에 가서 이모저모 꼭 필요가 있을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영백은 어머니앞에서 평생 잊을수 없는 정신적충격을 받아안게 되었던것이다.

…그날저녁, 온 식솔이 어머니를 모시고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영백은 어머님께 올리는 옷감 몇벌과 내의 한벌 그리고 누님에게 주는 금가락지 한 틀을 내놓았다. 그리고는 빈약한 자식된 도리가 가슴에 맺혀 품에 간직하고있던 팔라를 어머니앞에 꺼내놓았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좀 고생을 겪는 때여서 몇 십년만에 찾아오면서도 이렇게 불효막심합니다.》

스스로 미여지는 가슴을 불안으며 송구한 말씀을 올렸다.

《…》

어머니는 그가 내놓은 돈을 의외인듯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한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말문을 여는것이였다.

《애야! 네 마음은 알만하다만 47년만에 만나는 이 어미앞에 네가 내놓을게 결국 이런 미국돈이라니 가슴이 아프구나.》

영백은 부지불식간에 숨이 가빠왔다.

《어머니!…》

무릎꿇고 앉은 영백은 그만 말문이 막혔다.

추연한 어머니의 그 어조에서 무엇인가 못할짓을 했다는 죄책감이 뇌리를 쳤던것이다.

《미국놈의것을 난 한생 도적놈의것으로 보아왔다. 그런 돈이야 미국에서나 필요하지 우리 고향 땅에 무슨 필요가 있겠니. 너를 다시 보게 된 그것만으로도 난 족하다. 이국살이가 걸음마다 가시발이라는데 그냥 가지고가 한푼이라도 보태거라.》

《…》

그때 머리속인 영백의 눈앞을 스쳐간것은 생전에 아버지가 음식점에 사다 걸어놓았던 어느 서양화가의 그림장면이였다. 부모의 뜻을 어기고 타향으로 떠났다가 갓은 수난끝에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맞는 집안광경이 그려진 그림이였다.

끓어오른 아들의 후회와 자책에 젖은 모습, 놀람과 비난, 용서와 타대로 굳어진 부모들의 표정 격렬한 두 감정의 충돌로 얼어붙은 방안이 주는 싸늘한 여운…

그 그림앞에 설 때마다 영백은 아버지가 왜 처럼 그림을 사다 걸었을까고 생각하곤했었다. 이 순간에야 그 까닭이 석연히 안겨오는것이였다.

아버지는 자신을 바로 그런 불효자로 생각했던

것이다. 언제건 다시 돌아간대도 자기는 그 땅에 불효자로밖에 될 수 없다는 절망의 비애가 그 그림에 어려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결국은 자기 역시 한생을 두고 기다린 어머니의 바람이 무엇인지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천박한 불효자로 이렇게 돌아왔다. 이런 생각에 부끄럽고 죄스러워 영백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때를 생각하는 영백은 다시금 얼굴이 뜨뜻해 온다.

(돈이 곧 법이고 인적인 그 세상에서, 예수와 광휘도 돈으로 빛난다는 그 땅에서 나는 한생 동안에 울고 돈에 떨어 돈에 매달려 살아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진정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고귀하고 소중한 내 삶의 본향은 바로 어머니 계시는 내 고향땅이었다. 고향의 정기 맑게 비친 어머니의 그 순결한 마음이었다.)

### 3

바로 그랬다. 영백은 이번 방문길에 자기가 수만리 타국에 가있어도 결국 떨어질 수 없는 조국의 한 아들이었음을 새롭게 깨달았던 것이다.

고향을 찾은 다음날 아침, 상쾌한 새벽공기속에 마당으로 나선 영백은 어머니의 부지런하고 알뜰한 손길이 어디라없이 습배여있는 랑통기와 집을 둘러보았다. 기름대우라도 낸듯 윤기도는 퇴마루며 장독들이 가지런히 올라앉은 뒤울안의 장독대며 껌질벗긴 찌리로 엮어만든 담장, 그 모든 것을 포근히 두팔로 감싸안은듯 집두리를 돌아가며 심은 구기자나무울타리가 한쪽의 그림 같다.

그 구기자나무울타리 밑에 반나마 기울어져 누운 풍치좋은 향나무 밑에 풍풍 솟는 박우물이 옛날 그대로 정갈하다.

어머니는 이 집에서 누님과 기술지도원으로 일하는 누님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영백은 구기자나무뿌리들이 하얗게 엉킨 박우물에서 얼음같이 찬 샘물 한바가지를 떠서 마시었다. 내장을 훑어내려가는 찬기운속에 유년시절의 가지가지 추억이 한꺼번에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그가 밖에서 장난치다 흙투성이 되여 들어오면 어머니는 늘 그를 박우물에 퇴돌우에 세워놓고 씻겨주곤 했다. 그때마다 옷을 벗지 않겠다고 뒤걸음쳐 달아나는 영백을 꼬당겨안아 목욕을 시키고는 발가벗은 어린 아들을 치마폭에 꼭 싸안고 방안으로 들어가 깨끗이 빨아놓은 잠뱅이를 입혀 주며 불에 입을 쪽 맞춰주곤 했던 어머니였다.

아득한 시공간을 넘어 또다시 피줄을 켜기게 하는 어머니의 그 자심한 온정을 다시금 느끼듯 박우물가에 하냥 앉아있던 영백은 대문을 열고 마을로 나섰다.

고향마을은 너무도 놀라웁게 변모했다.

산천의 모습은 변함없이 예대로이건만 그 산천

속의 고향마을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했다.

즐비한 문화주택, 2층짜리 중학교며 리인민병원, 유치원과 탁아소... 하지만 영백은 그속에서도 분명 수십년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것을 꽤부 가득 력력히 느끼고있었다.

마을의 집집마다 만들어놓은 퇴비장에선 물썩물썩 풍겨오는 썩쓰레하면서 들큰한 거름냄새... 미국에선 언제 한번 맡아본적 없는, 조국의 떡갈잎과 억새풀 그리고 향긋한 썩잎이며 이름모를 들풀들이 꼭 썩으며 풍기는 그 냄새를 말느라니 왜서인지 목구멍에 수십년동안 걸려있던것이 단번에 썩 내려가는듯했다.

자름자름한 자갈과 흙을 섞어다진 길섶에서 하얗게 부풀어난 잎새를 살랑이는 은백양나무며, 치마자락같은 날개를 펴고 자욱히 떠다니다 발머리에 길가에 나뭇이 내려앉는 이름모를 꽃씨들까지 피부로 숨결로 감득되는 너무도 눈에 익은 정경들이다.

수십년을 살면서도 언제 한번 자기것으로 정다옴게 느껴보지 못했던 미국땅의 광막한 큰 평원들과 공허한 협곡들, 코를 찌르는 옥파발이며 어디를 둘러보아도 자극적인 승부욕과 진한 야욕으로 차넘치는 거리들... 그 지겨운 대기, 그 숨막히는 풍경... 그에 비하면 이 고향땅의 모든것은 첫눈에 벌써 내것이고 내 몸의것이구나 하는 감을 주며 살갑게 여겨진다.

스스로 감격한 영백은 마을끝에 이어진 야산기슭의 소나무숲에 이르러 큰 로송밑에 팔배개를 하고 번듯이 누웠다.

동산마루에 떠오른 태양이 뿌리는 빛살이 선명하게 숲속에 비쳐든다. 솔잎이 가득 쌓인 둔덕옆에 눈에 익은 풀이 있어 한손을 뻗쳐 뜯어보니 마타리였다. 일제때 그렇게 많이 뜯어다 국을 끓여 먹은 산나물, 너무나 감회깊어 그 쓴것을 한입 뜯어 입에 넣고 씹는다. 씹썩하면서 향긋하고 감미롭게 느껴지는 그 나물맛이 또다시 어릴적의 추억을 불러온다.

싱아대같은 가냘픈 다리를 하들거리며 예닐곱 살난 철없는 영백이 산나물을 다래끼에 뜯어안고 들어오곤할 때면 어머니는 늘 어린 동생을 산에 끌고 다닌다고 누나를 꾸짖곤 했다.

《그럼 난 혼자 산에 다녀도 일없단.》

그때마다 누나는 뽀로통 앵돌아져 돌아왔곤 했다. 불과 두살우인 누나를 업마는 다큰 아이치부했지만 기실 먹을게 없어 매일같이 산나물을 뜯으려 산으로 혼자 가는게 무서운 누나였던것이 다.

그게 언제 있는 일이었던가. 한번은 너무 배가고파 이웃집 경만이와 함께 옷골에 사는 팍파부 집 보리밭에서 청대를 해먹다 들킨 일이 있었다.

팍파부가 영백을 바닥골에 사는 성수라는 아이로 잘못보고 그 집으로 잉그르르 달려내려가 야

단을 쳤다. 성수 부모가 맞붙어 온 동리가 법석하게 싸움이 일었다. 그때 집에 들어온 아들의 토스레잠뱅이자락이 불에 탄것을 본 어머니가 다우치는통에 영백은 사실대로 토설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머니는 두말없이 아들의 손을 끌고 싸움이 한창인 성수네 집으로 갔다. 팍파부와 성수 부모 앞에 사연을 실토정하고 그자리에서 아들의 종아리를 걷어올리고 매를 쳤다.

째지게 가난했지만 남에게 욕되는 일을 하지 않고 떳떳하고 정직하게 살아왔고 또 아들딸 자식들을 그렇게 키운 어머니였다.

아, 어머니의 그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한점 티없는 옥처럼 습배여있는 이 땅!

가슴 뭉클 젖어오는 정회를 금할수 없어 영백은 락엽이 깔린 산비탈에 엎드려 두팔을 한껏 벌리고 고향땅을 그러안았다.

훈풍에 달아오른 초여름의 대지에서는 어머니 가슴에 매달린 어린것만이 느끼는 젖냄새같은 그런 냄새가 풍겨온다.

어머니의 품, 이 땅, 이 대지에 영영 돌아와 살고싶은 강렬한 열망이 온몸에 끓어올라 영백은 가슴을 진정 못했다.

그날밤에 영백은 누님과 함께 웃골에 사는 조카딸의 집도 돌아보았다. 비록 아버지가 남으로 나갔지만 누님의 아들과 딸은 다 대학을 나오고 아 들은 작업반 기술지도원으로, 딸은 리병원의사로 일하고있었다. 집안살림을 둘러보니 없는것이 번듯하게 다 갖춰놓았다.

참으로 고마운 제도와 당의 혜택속에 인간다운 삶을 살고있는 그들과 미국에서 눈물범벅이 되어 생존경쟁에 허덕이는 아들딸의 모습이 대조되어와 또다시 눈굽이 찢히니 젖어들었다.

읍에 있는 딸네 집에 나갔다가 영백의 소식을 듣고 허둥허둥 달려왔다는 죽마고우 허경만은 그가 집에서 어머니가 차려준 뽕면을 먹고있는 마당에 뛰어들었다. 신발을 벗는등마는등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며 《야! 이 송영백이! 그래 제 고향에 끝내 찾아오긴 오는구나 응? 이 시라소니같은 자식아!》와락 끌어안고 코맹맹이소리를 하며 잔등을 두드린다.

한뼘 농장원으로 일해왔다는 경만은 상고머리를 하고 아직도 검붉은 얼굴에 혈기가 넘쳤다.

《어머니, 나도 한그릇 좀 주시우다.》하고 부엌에 대고 허물없이 소리치고는 영백에게로 돌아왔으며 곧바로 훈계로 넘어간다.

《자네가 미국서 음식점을 경영한다니 먹는 문제처럼 중한 일도 없다는걸 물론 잘 알테지. 그렇네. 우리 나란 요즘 어려운 고빌 겪네. 바로 자네가 사는 그 땅, 그 미국것들이 경제붕쇄를 하지, 전쟁소동에 미쳐날뛰지 례년없이 가물피해, 큰물피해가 겹치지. 그래서 이렇게 강냉이로 끼

니를 잇는 때도 드문하네. 하지만 이런 고난이 몇해 가겠나. 수천년세월 사면팔방 침략자들에게 밟히고 눌리며 빗없이 살던 우리 조선이 이제는 자네네 미국놈들보구두 팡팡 큰소리치는 나라가 됐는데, 그놈들두 우리앞에 허리굽석하는 그런 존엄이 있는데 좀 고생한들 대순가. 넘려말게. 우리 장군님과 당에서 길을 열어주고계시니 우리도 더 잘 살 날이 꼭 오네.》

영백은 한생을 벌에서 농사만 지었다는 경만이 어찌면 저렇게 나라문제를 놓고 경우가 밝게 말을 잘할가 하고 생각했다.

그자신은 한평생 정치라는것에 관심없이 살아왔다. 먹고사는 생존이 너무도 다급한 그에게 언제 그런데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고 또 그 덕을 본적도 없었다. 그저 내 아니면 남이라는 생각, 오직 나자신만이 나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다는 일념으로 한생을 자기자신만을 위해 허덕이며 아득바득 살아온 그였다.

그러나 조국에 와보니 확실히 팔십고령의 늙은이도 평범한 농장원도 자기 한몸을 민족이라는 집단속에 뻗수 없는 유기체로 결합시키고 그 전체의 운명속에서 자기의 운명을 찾으며 고생과 락을 함께 해나가는것을 궁지로 여기고있었다. 그처럼 어렵고 간고한 속에서도 한뜻으로 뭉쳐 이처럼 훌륭한 고향을 일떠세운 이들앞에 참으로 영백은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남쪽출신인 공목사가 조국을 찾아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있을 때 자기는 어찌하여 자기 처지만을 탄식하며 고향의 어머니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개인의 울타리속에서 애잡잡한 향수에 젖어 우울하게 살아왔던가. 너무도 어린 나이에 조국을 멀리 떨어져 너무도 모르고 산때문인지도 모른다.

순간 아니하고 영백은 머리를 저었다. 그것만이 아닌것이다. 기실 자기는 오직 자기 한개인을 위해서만 사는 미국의 풍토에 너무도 젖어있었던것이다.

아버지가 한생 그토록 가고싶어 몸부림쳤고 그 자신도 꿈결에도 그러보던 그 땅이 자기 한사람의 고향땅이기전에 우리 민족의 조국땅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것이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다는 결심이 굳세게 가슴속에 비집고든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방금 뭐라고?

《경만이, 자네 날 보고 자네네 미국, 자네네 미국 하던데 이런 교악한 인사불성이 어디 있다. 이래봐도 조선사람의 뉘은 잃지 않고 살자는 이 송영백일세.》

영백은 진심으로 섭섭해났다.

《아, 내가 그랬던가. 자 그럼 사회할셈치고 우리 고향의 소주나 한잔 쪽 따게.》 하며 경만은 껄껄 웃는다.



회포를 나누며 퍼그나 시간이 흘러 서먹하던 분위기도 일정하게 가셔지자 경만은 《영백이!》하고 정색을 하고 건너다보았다.

《물론 자네야 철없을 때 아버지를 따라 고향을 뺏으니 잘못이야 없지. 하지만 이사람, 자네 아버지와 자네를 기다려온 어머니의 정성이 어떤 것인지 모를거네. 어머니는 매해 자네 생일날이면 어린 시절 제일 가까운 친구였다구 손수 음식을 차려놓고 나를 찾곤했네. 한두해도 아니고 수십 년세월을 그랬지. 그게 무엇때문인지 모르겠나. 자넨 죄인일세. 한생을 기다려 속이 까맣게 타든 어머니 그 마음앞에 암, 죄인이고말고...》

감정도 극에 달하면 소원해진다지만 산같이 크게 마주오는 어머니의 마음앞에 영백은 눈물만 앞설뿐이었다.

#### 4

밤늦도록 마을로인들과 마주앉았다 늦게야 잠들었던 영백은 뒤울안에서 닭이 해치는 소리에 눈을 떴다. 옆을 돌아보니 잠자리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 부엌에서 쉼-하는 수도물소리와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도 참...)

떠나는 아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한끼 별식이라도 차려주려고 누님이 일하는 부엌으로 나가신 듯 싶었다.

늦잠을 잔 자신이 쑥스러워 부지런히 자리를 걸으려던 영백은 안방으로 통한 사이문썸으로 보여 오는 광경에 멈칫했다.

방벽을 마주하고 소박하게 차린 제사상앞에 흰 옷을 입은 어머니가 앉아계셨던 것이다.

《?!...》

의외의 광경에 영백은 발을 저저디디며 사이문앞으로 다가갔다.

상우에는 검은테를 두른 아버지의 젊었을적 사진이 놓여있었다. 그 사진은 영백이 이번에 고향에 와 처음 본 사진이었다. 조국이 광복된 이듬해 분여받은 샘골논에서 마을적으로 제일 많은 소출을 내고 모범농민으로 뽑혀 군에 올라가 읍사진관에서 찍었다는 사진이었다.

소달구지명예에 한손을 얹고 빙그레 웃고있는 바지저고리차림의 젊은 남편의 사진앞에 어머니는 그린듯 앉아있었다.

전몰과도 같은 감동이 영백의 온몸을 굽이쳐갔다. 간다는 기별도 없이 아들 하나만 훌쩍 데리고 불시에 떠난뒤 수십년세월을 날을 세고 달을 쬔으며 기다려온 남편이었다. 잘못 걸은 걸음을 깨닫고 돌아올것이라 믿은 그 남편이 결국은 대양 건너 수만리타국의 황량한 사막 한귀에 무주고 혼으로 묻히고말았다는 기구한 소식을 안고 열두살 어린아들이 예순살이 다된 낯설은 장년이 되어 나타났으니 어찌 기가 막히지 않겠는가.

(어머니!)

영백은 걱정을 누를수 없어 사이문을 열었다. 머리를 돌린 어머니는 저고리고름으로 눈굽을 닦았다.

어머니는 슬픔의 빛을 씻은듯 가시며 그 주름 많은 얼굴에 애써 웃음을 담았다.

《마침 일어났구나. 영백아, 너 지금 나하고 좀 잤다올데가 있다.》

그러시며 천천히 자리를 일었다.

《어딜말입니까?》

《글쎄 따라오면 안다.》

어머니는 영백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있었던것 같았다. 영백은 영문을 모르고 어머니를 부축하고 마루로 나갔다.

밖은 온통 안개천지였다. 뽕안 물보라같은 안개 발들이 스러지고 밀리며 길들과 채마밭들에 질게 깔리어 집집의 지붕들은 마치 강물우를 헤여가는 크고작은 배들같았다.

안개발을 휘적휘적 헤저으며 동구밖으로 나가는 어머니를 옆에서 부축하고 걸었다. 길길이 자란 한여름의 강냉이들이 물기가 번들거리는 장잎을 한발씩 빼들고 미풍에 설렁이는 동구밖의 발머리를 돌아든 어머니는 샘골쪽으로 향했다. 샘골어구의 강냉이밭을 지나고 콩포기들이 치마자락을 적시는 논배미를 지나 어머니가 이른곳은 큰 로송들이 우거진 논머리였다.

초여름 대지의 싱그러운 훈향에 실려 구수한 땅냄새가 코안이 मे게 풍겨왔다.

그제야 영백은 어디로 왔는가를 깨달았다. 어머니는 토지개혁때 분여받았던 그 논머리에 아들을 데리고 나온것이였다.

《영백아, 니아버지가 운명하면서 우리 수령님께서 주신 여기 논에서 농사짓던. 애기를 했다지. 예가 그 땅이다. 너도 생각날테지.》

그때 영백은 일곱살이였다. 땅 한패기 없어 번지주의 자갈밭 세마지기를 겨우 얻어 피죽으로 연명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던 영백이네도 토지개혁과 함께 샘골 논밭 3천평을 분여받았다. 한생남의것을 주무르는 수난으로 나무뿌리처럼 파드러든 두손바닥에 흙을 움켜쥐고 만져보고 쓸어보고 《이게 내 땅이란 말이지. 내 땅!》 눈물이 즐벅한 뺨을 발고랑에 부벼 흙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꿈같이 웃던 아버지!

아버지는 장 논밭에 나와 살았다. 밭낯없이 자갈을 쳐내고 거름을 저내렸다. 모도 제일먼저 냈다.

어느날 어머니가 차려준 점심밥구력을 들고나오니 논두렁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영백아! 이리온.》 하고 불렀다.

《너 저 땅이 숨쉬는 소리 들리지.》

논머리 잔디밭에 밥구력을 놓은 영백이 가만히 귀기울이니 산자드락의 술술을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소리뿐이였다.

천진한 영백이 행 코방귀를 끼며 《아버지, 땅이 무슨 사람이나? 숨쉬게.》 하자 아버지는 《예끼 너석!》하고 그의 뒤통수를 질러댔다.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그때 부여받은 그 땅의 숨결을 분명 느끼고있었다.

그 땅과 함께 숨쉬는 자신의 피와 체온을 느끼고있었던것이다.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가 노상 앉곤하던 바로 그 논머리어방에 조심히 앉으시였다. 그리고는 논두렁의 곁흙을 헤치고 시꺼멓게 거름살이 오른 흙을 한줌한줌 티없는 샘물이라도 떠내듯이 정히 떠서 가지고나온 검은 비로도로 만든 주머니에 담았다.

주머니에 흙을 채운 어머니는 이어 논머리에 잇닿은 로송밀의 잔디밭으로 갔다. 그리고 뽕죽 뽕죽 솟아오른 잎새들사이로 솟아오른 바늘같은 대우에 까맣까맣하게 익은 잔디씨들을 손으로 조심히 풀어서는 주머니에 넣고 또 풀어서는 넣곤 했다. 한참을 그렇게 한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영문 모르고 선 영백에게 주머니를 내밀었다.

《영백아! 이걸 가지고 가져라. 이 고향의 흙에 섞은 잔디씨를 니 아버지 무덤우에 뿌려다오.》

영백은 떨리는 손으로 흙주머니를 받아안았다. 부식된 검누르스레한 흙속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잔디씨가 섞인것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정바로 쳐다보는것도 수줍어 남편과 마주서면 귀밀이 발강게 물들곤하던 젊은 나이에 홀연 헤여져 근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안타까운 기다림속에 살아온 어머니! 그러나 결국은 지구의 한쪽 끝 사막 한귀에 한을 품고 묻히고만 그 남편을 은혜받은 이 땅의 한줌 흙으로나마 감싸안아주고 싶은 어머니의 그 마음이 전류처럼 영백의 피줄을 켜켜 왔다.

영백은 흰 치마저고리를 깨끗이 입고 아침해빛 환한 들판에 서계시는 백발의 어머니가 고향의 냇을 지닌 신성한 령혼의 체현자처럼 눈부시게 안겨왔다. 어머니의 그 마음을 소중히 받아안듯 흙주머니를 가슴에 정히 감싸안았다. 손바닥을 미쳐 가슴에 부드럽게 감득돼오는 흙, 어머니가 안겨주는 이 흙은 바로 떨어저선 살수 없는 이 땅, 이 사람들인것이다.

아버지와 영백자신은 바로 그 은혜받은 고향의 대지와 떨어졌었기에 것처럼 비참한 운명의 그늘속을 오늘껏 헤매일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그 소박한 철리를 한줌의 흙으로 깨우쳐주는 어머니 앞에 영백은 저도 모르게 무릎꿇으며 《어머니!》하고 목메어 불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구길에서 어머니는 자기를 부축하고 걷는 영백에게 미국에 있는 아들딸에 대해 물었다.

그들이 아직 조선말을 잘 모른다는 말을 듣자 어머니는 말했다.

《다음번 올 땐 우리 말로 노래하는 그애들 목소리나 가져오려무나. 사진일랑 함께...》

영백은 어머니의 당부에 자식들에게 조선사람의 녂조차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꾸중이 담겨있음을 느꼈다.

생업에 눈코뜰새 없는 속에서도 결국은 4대독자가 된 아들만은 미국사람으로 만들수 없다는 막연한 사명감으로 영백은 아들이 학교에 입학해서부터 짹짹이 조선 말과 글을 배워주었다. 그러나 아들은 조선글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

《수민아! 너는 조선사람이다. 넌 이걸 잊어선 안된다.》

아무리 강권해도 듣지 않았다. 나중엔 때까지 들었으나 그래도 소용없었다. 종아리에 시퍼렇게 멍이 든 아들은 아버지를 쏘아보며 울부짖었다.

《아버지! 난 과연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인가요, 코리안인가요. 미국에 살면 미국사람이 되면 되는거지 왜 또 코리안이 돼야 합니까?》

영백은 그만 분노가 극도에 달해 아들을 후려쳤다.

《이놈자식! 뭐가 어찌고 어째. 어찌면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됐나. 자기 민족을 모르면 금수나 한가지라는걸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나 ?》 아들의 두눈이 번뜩였다.

《코리안이 그렇게 좋다면 아버지는 왜 그 땅을 버리고 미국으로 왔습니까, 예?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학교에 다니는지 알거나 합니까. 그 백인새끼들이 날 보고 누런 땅개래요. 누런 땅개가 저들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고 모두 매를 때립니다. 자기들 조상도 영국과 에스빠냐에 고향을 둔 이 민들이지만 어쨌든 미국은 저들의 미국이지 코리안의 미국은 아니라는겁니다.

아버지! 대답해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분명한 코리안이라면 왜 매일같이 햄버거, 피자를 먹고 록키산맥을 배워야 하고 남북전쟁사를 읽어야 하는 이 미국땅에 사는겁니까, 예?》

한동안 억이 막혀 서있던 영백은 그때 후드득 떨리는 다리를 더 주체할수가 없어 아무말도 못하고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너무나도 옳은 말이였다.

나는 어찌하여 한생토록 이 저주로운 미국땅에 살며 두고온 고향땅을 그리워하기만 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때문에, 어째서... 아, 과연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미국인 아니면 조선사람?...

말없이 학교에 잘 다니는줄만 알았던 아들에게도 이처럼 미국의 인종차별과 타민족에 대한 적대감으로부터 쌓이고쌓인 울분이 있었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영백은 아들을 결코 중학생으로만 볼수 없음을 느꼈다. 원래 내성적인 아들 수민이는 그 일이 있은후부터 말수더구가 더 없어졌다.

어느날 저녁인가 하루영업을 마치고 립종전 아버지가 늘 매달려있던 태평양쪽 창문에 팔굽을 엹고 사막위로 꺼져내려가는 저녁노을을 바라보고있던 영백은 뒤에서 자기를 지켜보고있는 수민을 보았다. 그때 얼핏 보니 아들의 눈굽에 물기가 어려있었다.

그날저녁 아들방에 들어갔던 영백은 수민이 무엇인가 펼쳐놓고 꼼꼼히 들여다보는것을 보았다. 등뒤로 보니 세계지도첩이었다. 아들의 눈길은 태평양건너 조선땅우에 머물러있었다.

그 순간에 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가늠하기는 어려웠지만 왜서인지 가슴이 찢르르해와 인기척없이 돌아나왔다.

영백이 조국방문을 떠나게 되었을 때 비행장까지 따라온 수민은 주저주저하다 묻는것이였다.

《아버지! 할머니가 미국에 나같은 손자가 있다는걸 모르실테지요?》

그 일이 있은후 단숨에 성숙해버린듯 깊은 사색과 모태김이 담긴 아들의 진중한 물음이었다. 영백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잔등을 쓸어주고는 비행기로 올랐었다.

이제 돌아가면 이 흙주머니부터 수민이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며 말할것이다.

《애야! 이 흙이 바로 네 할아버지, 아버지 고향의 흙이다. 온 세상에 주체의 조국으로 그 빛나는 얼굴을 높이 들고나가는 네 진정한 조국의 흙이다...》

이렇게 생각을 몰아가느라니 영백은 문득 고향을 떠나던 마지막날의 일이 돌이켜져 다시금 가슴이 메여왔다.

배웅나온 리간부들, 마을로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도 어머니가 나오지 않아 영백은 토방을 올라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방안에 조용히 앉아계셨다. 말없이 문을 연 아들을 응시하는 어머니의 눈길은 추연히 떨리고있었다. 영백은 격해지는 마음을 누르며 어머니앞에 절을 올렸다.

《어머니! 떠나렵니다.》

그래도 미동없이 아들을 주시하기만 하던 어머니는 갈린 음성으로 뇌였다.

《애야, 꼭 가야만 되느냐?!》

너무도 절곡하게 울리는 그 물음앞에 영백은 대답을 찾을수가 없었다. 어머니에게 또다시 큰 죄를 짓는것만 같은 자격지심에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이제 가면 다시는 어머니를 못볼것만 같은 불안이 가슴을 옥죄인다.

《어머니! 밖으로 나가십시다.》하며 영백은 어머니를 두손으로 정히 안아올렸다. 영백의 품에 안긴 팔손로인은 가벼운 질단을 안은듯 너무도 가벼웠다. 그것이 또 가슴을 저리게 했다.

영백은 조심히 토방으로 나와 마루우에 어머니를 앉히었다. 그리고 옆에 섰던 누이에게 박우물

한대야를 떠다달라고 했다. 누이는 무슨 일인가 싶어 묻는 눈길이었다. 영백은 어서 떠내와줘요 하고 재촉했다.

누이가 향나무밑의 박우물에서 커다란 세수대야에 맑고 정갈한 샘물을 담아들고 왔다.

영백은 리간부들과 마을사람들을 둘러보며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떠나겠다고 했다. 둘러섰던 사람들의 얼굴에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영백은 어머니의 거칠고 주름뿐인 자그마한 발을 두손으로 모두어 대야에 소중히 담그었다. 그리고 조심조심 문지르며 정성껏 씻어드렸다. 조용히 눈을 감고계시는 어머니의 눈굽에 물기가 맺혔다. 영백도 눈물이 콧 솟구쳤다.

잠안에 들만큼 어머니의 발은 작았으나 어머니는 이 발로 팔십평생 단 한발자국도 다른 땅을 밟아본 일이 없었다. 추우나 더우나 비오나 눈오나 고향의 흙만 밟으며 살아온 강인하고 굳센 어머니시였다. 이 어머니품을 떠나면 언제 다시 올것인가.

《어머니! 어머님이 주신 그 흙을 제 어머니품인양 소중히 간직하고 떠나렵니다.》

이렇게 외우며 어머니의 발에 뜨거운 눈물방울을 떨어구는 영백의 얼굴은 온통 눈물투성이였다. 옆에 섰던 경만이도 울고 누이도 울었다. 모여섰던 동리사람들이 그 정경에 다 울었다...

## 5

그때 일을 생각하는 영백은 다시금 진정할수 없는 걱정으로 눈굽이 화끈하고 가슴이 후두둑 떨려 왔다.

바로 그런 흙이다. 이 흙은 다시는 한시도 떨어 질수 없는 영백의 생의 뿌리이고 모태인 어머니의 분신이었다. 다시 안긴 조국의 품이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서자란 그의 아들딸들의 의식속에 조선사람의 넋을 심어줄 조국의 령혼이었다.

이것을 어찌 빼앗길수 있단 말인가.

영백은 세관신고서를 트렁크뚜껑우에 꺼놓았다.

그리고 《흙》이라고 표기한 그옆에 《없음》이라고 써놓고 주머니안의 흙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구실로 변명할수 없을가 해서였다.

가만보니 신통히 언젠가 기관지염에 몇첩 달여 먹은적있는 황삼가루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치 못해 단속이 되면 고려약재라고 하면 어떨가 하고 생각했다. 그럴상싶었다. 하지만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 쿵쿵 뛰는 심장을 눅눅히기라도 하듯 영백은 심호흡을 크게 했다.

...한낮의 로스앤젤레스공항은 복잡하게 붐비었다.

화주로는 형형색색의 객객기들이 대기를 찢는듯한 굉음을 내지르며 연방 오르내린다.

눈이 시도록 해빛을 반사하는 유리구조물인 공항건물 측면의 세관출입구로는 갖가지 차림의 여행자들이 물결처럼 들고나고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며 앞으로 나가는 영

백의 심장은 세관원이 가까와지자 쿵쿵 뛰기 시작한다.

출구를 막아서서 소지품을 일일이 검열하는 세관원은 물소같이 우람한 체격의 사나이였다. 앞선 사람들의 짐을 하나하나 검사하는데 그닥 까다로와보이지는 않았다. 그의 순서가 올 때까지 동남아계로 보이는 한 승객이 러권이 불비한듯 단속되어 옆방으로 갔을뿐이었다.

그런데 점차 가까이 가면서 보니 출입구로 밀려드는 수백명의 승객을 마음만 먹으면 단신으로 옥 하고 밀어낼것 같은 거구의 사나이는 표범같이 작고 세모진 눈과 꼭 다문 각진 턱이 여간 만만찮은 인상이었다. 누구도 다른 생각을 품고는 발이 저려 그앞을 지나칠 엄두를 낼것 같지 않았다. 아마 그런 심리적효과를 노려 그런 장신에 함독한 인상의 사나이를 세워놓았는지도 모른다.

영백은 진땀이 잔등으로 흐르는것을 느꼈다. 드디어 그의 순서가 되었다.

세관원은 극히 실무적인 표정으로 먼저 영백이 열어보이는 회색멜가방에 흰장갑진 손을 들이밀고 별 흥심없이 대충 휘저어보았다. 그리고는 뺐다는듯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영백은 저도 모르게 후 숨이 나갔다.

이런 정도면 통과인가.

그런데 피륙 그의 표정을 훑어본 세관원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가방옆의 트렁크를 열라고 가리켰다.

영백이 트렁크뚜껑을 열자 그는 하나하나의 물건을 헤쳐보고 두드려보며 간간히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거구의 체격만 가지고있는것이 아니었다. 그가 입은 정복단추에 박아넣은 독수리의 촉각같은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있었다.

끝내 트렁크 맨밑바닥의 흙주머니를 뒤져낸 세관원은 두툼한 입가에 랭소를 머금으며 영백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이건 뭐니까?》

《예, 그건 고려약재입니다. 황삼탕을 만드는… 기관지염에 특효지요.》

영백은 손세를 써가며 설명했다.

《어디 좀 봅시다.》

세관원은 주머니를 영백에게 주었다. 풀라는 것이었다. 영백은 주머니를 열어보였다. 세관원은 주머니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냄새까지 맡아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손바닥에 주르르 쏟아 눈을 쏘프리고 들여다보더니 불현듯 영백을 던지시 건너다보았다.

《당신 이거 흙 아니요?》

영백은 그만 맥이 풀렸으나 약재가 분명하다고 우겼다.

《제가 워낙 기관지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길에…》

그때였다. 옆에서 《가만!》 하는 목소리가 들려

왔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체소한 체구에 문째메 끼웠다 나온듯 길고 매끈한 얼굴의 다른 세관원이 다가오더니 싸늘한 눈길로 그의 온몸을 내리 훑었다.

그러더니 검열하던 세관원에게 영백을 가리키며 무엇인가 쭈근쭈근 물었다.

영백은 순간 그 사나이 저뒤편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레의 그 녀자, 금발머리가 유표한 승무안 내원을 보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가 영백을 밀고 한것이 틀림없었다. 영백은 어이없이 허거픈 웃음을 짓고말았다.

검사대열에 팔짱을 끼고선 그 녀자는 영백과 눈이 마주치자 알뜰게 코웃음치며 담배연기를 조롱하듯 몽골몽골 내보낸다. 언제 것처럼 상냥한 녀자였던가싶었다. 영백은 그만 땀심이 풀렸다. 그러고보면 걸려도 단단히 걸려든셈이다.

상급인듯싶은 체소한 사나이는 영백의 러권을 넘겨받아 찬찬히 훑어보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영백은 입이 쓰거워났다. 그가 세관원을 따라 개찰구옆의 한방으로 들어가자 그는 자기가 직접 영백의 짐을 이잡듯 살살이 뒤지기 시작했다. 짐을 꺼내 찬찬히 훑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트렁크 벽을 두드려보고 했다. 결국 다른 특별한것은 없이 흙주머니만 확인되었다. 세관원은 좀 랭패한 표정이었으나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냥감은 된다는듯 낮빛이 멍멍했다.

그는 조소어린 눈길로 영백을 훑어보며 흙주머니를 손가락으로 꺾く 찢었다.

《당신 우리 눈을 속일수 있으리라 생각했소? 뭐, 황삼가루? 흙, 이런건 공항소각로에 태워버리게 돼있소.》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으시오.》

절박해진 영백은 세관원도 인간인이상 고향의 흙을 가져가는 심정을 알게 되면 이해할수도 있지 않겠는가싶었다.

그래서 사정하대실이 설명했다.

열두살에 갈라진 어머니와의 한이 맺힌 리별, 고향에 그토록 가고싶어했고 고향땅에 묻히고싶어 했던 아버지의 그 눈물겨운 소망에 대해서…

그러다 영백은 문득 말을 끊었다. 이야기가 깊어져도 세관원의 눈빛은 무미건조했고 지루한듯 나중에는 마늘쪽같은 이마에 깊은 주름살이 패워졌다.

《여보, 그런 감상주의가 무슨 필요가 있소. 어떤 목적이든 신성한 미합중국령토에 다른 나라의 흙은 절대로 들여갈수 없소. 이 흙은 회수요.》하고 이죽거리며 조소된 눈길로 영백을 치며본다.

영백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야 그는 한생 자기에게 가슴찡는 불행만을 강요해온 미국이라는 거대한 악마와 또다시 마주했다는것을 새삼스레 느꼈던것이다.



영백은 세차게 머리를 저었다. 절대로 놔들에게 흠주머니를 빼앗길수 없다는 결심이 가슴속에 부그르르 끓어올랐다.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으로는 이런자들과 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영백은 문득 안주머니에 깊이 간직한 돈에 생각이 미쳤다. 손이 저절로 가슴노리로 올라갔다.

비행기왕복료를 충당하고 남은 그 돈, 어머니이 결코 돈으로는 살수 없는 인간의 넋을 일깨워준 바로 그 돈이었다. 그 돈 아닌 그 어떤 수백만금의 보물을 준단들 과연 이 흠주머니와 바꿀수 있단 말인가.

세관원은 영백이 주머니에서 꺼내놓은 딸라를 보자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뭐요? 그러니 당신 이 돈으로 흠주머니를 다시 찾겠다 그지요?》

영백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날 놀리는거 아니요?》

자존심이 살아오른듯 세관원의 한쪽입술이 실룩 거렸다.

《아니요. 정말 그 흠주머니만 돌려주시오. 다른 무엇이 더 요구된대도 드리겠소.》

《허, 당신 정말...》

세관원은 세상에 이런 바보도 있는가 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면서도 어디나 흔한 흥덩이에 불과한 저것에 자기로서는 이해할수 없는 불가사의한 무엇이 숨어있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듯 아리송한 표정으로 영백을 멀뚱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복잡한 생각을 싹 단념한듯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젓더니 돈뭉치를 책상서랍에 밀어넣었다. 금시 일변한 세관원은 그 흠주머니를 마구 다룰수 없다는 어떤 의식에 잠혔는지 두손으로 슬그머니 밀어놓았다. 황금의 힘박에 모르는 자들에게는 돈의 가치만 가지면 그것이 흠이든 쇠덩이든 단번에 우대상대로 격상되는것이다. 바로 이런자들을 녀두에 두고 어머니이 미국에서나 필요한 돈이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른다.

## 상식

# 지력이 높은 사람의 성격적특징

지력이 높은 사람은 민첩한 관찰력을 가지며 모든것을 항구적으로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관찰하며 일반사람들이 쉽게 흘시하거나 발견하지 못하는것을 발견하는 능력이 강하다.

또한 심리와 행동 과정이 주동적이며 정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무의미한 활동을 맹목적으로 하

영백은 무지막지한 패덕한에게 앓겼던 젓아기를 꺼안듯 갑절로 더 소중해진 흠주머니를 품에 안고 문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쭈그리고 앉았다, 주머니를 무릎우에 놓고 그안에서 피가 통하는 생명체처럼 느껴지는 흠 한줌을 꺼내 두손바닥에 폈다. 가슴몽클한 감동이 찌릿하게 온몸을 굽이쳐갔다.

흠주머니를 주시며 이 흠 한줌은 그것이 키워내는 쌀 한줌이고 쌀 한줌은 그것이 먹고자란 따뜻한 햇빛 한줌이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전을 가득 채우며 들려온다.

영백의 눈에는 금시 보이는것만 같았다. 아버지 묘에 뿌려진 흠속에 티끌처럼 섞인 고향의 잔디씨들이 생명의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치며 자라는것이...

생명을 싹틔워 키워주고 생을 끝마친 다음에는 다시 그 품에 안아 고이 잠재워주는 조국의 이 흠속에서 움튼 잔디는 풀지 못한 한을 안고 이국땅에 묻혀있는 아버지의 혼백을 포근한 누비이불처럼 덮어줄것이다. 수민이와 수희의 메마른 가슴들에도 조국의 따뜻한 자양을 안겨줄것이다.

령롱한 이슬방울이 풀잎마다 구슬마냥 맺힌 잔디의 숲이 영백의 시야가득 안겨온다.

인간이 자기의 넋과 혼을 뿌리내릴 토양은 어느곳에나 있는것이 아니였다. 비록 그 흠이 포화의 불비에 타고 시련의 눈비에 젖어든다 해도 설사 생활의 곡절이 일시 아프게 파고든다 해도 그 땅을 자기의 생명의 전부로 여기는 사람은 남들이 부족점이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사랑하며 자기의 온 심혼을 바쳐 그 땅에 자기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법이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수 없듯이 씨앗은 흠을 골라 뿌리를 내릴수 없는것이다...

내 만약 조국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내 역시 이 한줌 흠속에 묻히리라.

그는 감동에 젖어 주머니속의 흠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생각이 넓고 련상하기를 좋아하며 하나를 보고 열을 알며 추리와 예견하기를 좋아하고 생각이 빠르며 론리가 있게 말한다.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정신이 강하며 다방면적인 기호와 다방면적인 능력을 가진다.



## 뜨거워다오 외 2 편

김송남

내 잠들 때에도  
잠없이 맥박치며  
온몸을 더웁히는 나의 피어  
생명의 불꽃같은 그 방울방울  
사랑에만 뜨거워다오

만약 내 가슴속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이 식는다면  
이 몸의 피는 뜨거워 무엇하랴  
그런 때엔 즉시 식어버리라  
싸늘히... 차가이 ...

참되게 살자고 너를 지녔다  
진정 내 사람답게 사는 때에만  
불처럼 뜨거워다오

나의 심장  
나의 붉은 혈조여

오직 땅을 따르는 한길에서  
설사 쓰러진대도  
마지막 조용한 웃음과 함께  
방울방울 불꽃같은 그 뜨거움만은  
이 땅의 붉은 흙에 남기고가리

그러면 그 뜨거움  
강성변영할 이 땅의 래일  
조국의 영원한 생명속에 깃들려니  
아, 그렇게 그렇게만 뜨거워다오  
내 사랑의 불꽃이여!  
내 생명의 불꽃이여!

## 지령전화 막장을 찾네

착암기 정대를 갈아맞추고  
한대씩 붙여문 짧은 휴식참  
찌르릉 찌르릉 탄광의 지령전화  
밤깊어 때아니게  
막장을 찾네

새로운 지령인가  
그 무슨 경보인가  
긴장한 마음들을 녹갯혀주며  
어허, 뜻밖에 울려오는 그 말은  
소대장네 집에서 생남이라네

웃음이 터지네 기쁨의 웃음  
박수가 터지네 축하의 박수  
《딸부자》소대장에게 착암수감 생겼으니  
이제야 탄부의 《자격》있다고  
이것도 전환의 해가 맞이한  
하나의 《전환》이라고...

-지령전화루다 무슨 그런 소릴  
싫은듯이 한마디  
소대장은 착암기 지그시 끌어안네  
지동치는 센 바람 틀어잡으며  
왜서인지 그 눈길 축축히 젖네

어이 안그러라  
마음속에 어려오는 아들애의 고운 웃음  
《제재》로도 《봉쇄》로도 흐릴수 없는  
그 웃음처럼 밝고밝은 우리의 래일이  
이밤의 막장끝에 함께 어려오는데야

아, 자기의 첫아들 태어난 그 소식이  
정녕 마치고 그 무슨 새 지령인듯  
번쩍이는 탄벽앞에  
조국의 미래앞에  
제 가슴 더욱 뜨거이 마주세워주는데야!...

## 해녀와 손녀

일요일의 해수욕장 연두색 물이랑에  
등실 고운 어깨들은 피어난 꽃들인가  
파도와 어우러진 꽃웃음속엔

보인다, 유치원생 어린 손녀와  
그 옛날의 제주도해녀 그의 할머니

- 할머니, 나 해염 잘 치지?!

- 오냐, 우리 분이 못하는게 없지!  
구멍대 등등  
귀여운 손녀는 물위에 멀어져가고  
그 먼곳을 바라보는 할머니 생각깊다

미역 다시마 오리오리에  
목숨이 매여있던 제주도기슭이 떠올라  
파내여도 파내여도 선주놈에게 다 빼앗겨

끼니걱정에 온식구가 한숨이던  
그 옛날을 못잊어...

살자고 물에 사는 인생이던가  
죽자고 물과 맺은 인연이던가  
바다는 무서워  
세상도 무서워  
청춘을 짓눌렀던 옛날의 해녀

숫아올라 숨가쁜 휘파람을 뿜을 때  
눈물고인 그 눈에 비끼던 다도해  
방울방울 짙물이 눈물일 적에야  
알았던가, 바다가 아름다운줄  
바다를 타고 노는 이런 기쁨 있는줄...

미워나도 무서워도 못버린 바다  
쓰시마로 나고야로 반생을 떠다니다  
귀국선 꽃배에 몸이 실려와  
그가 본 이 바다는 새로운 바다  
나머지 그의 생을 노래우에 실어준 물...

이제는 나이많은 양식장을 떠났어도

일이 기쁨이던 정든 포구에도  
손녀와 함께 노는 오늘의 유원지에도  
인민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려 견고걸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자욱이 있어  
가슴뜨거운 생각으로 다시 보는 이 기슭...

- 할머니, 바다는 좋지요!  
- 종구말구, 바다는 좋지!  
해녀의 마음속엔 파도가 인다  
세상엔 아직도  
무서운 바다가 있다는걸 모르고  
바다를 기쁨으로 끌어안은 손녀를 보며

아, 내 나라의 고마움에 복받치는 마음이어!  
이 하늘 이 땅처럼 바다도 행복이 된  
사회주의 좋은 세상 헤엄쳐가는  
즐거움이 즐거움이 포말처럼 훑날린다  
해녀의 가슴앞에  
손녀의 가슴앞에 ! ...

- 마전해수욕장에서-

## 그도 간호원이었다

서영희

그도 간호원이었다  
이제는 나이또한 나와 동갑이인...

안영애영웅  
가렬한 결전의 고지마다에  
누이처럼  
어머니처럼  
병사들과 함께 있던 처녀간호원

포연도 가서지던 그 웃음  
힘을 주고 신심을 주던 그 맑은 노래소리  
닳고싶어 닳고싶어  
전우위해 바치던 그 붉은 피  
이 가슴에도 흐르게 하고싶어

이 마음 세워보노라  
그결에 그 위훈의 순간순간에  
동지를 위해 적탄도 막아서던  
최후의 그 순간에도 세워보노라

천리훈련길 땀에 젖어도

영웅의 자욱을 따라짚노라  
회진의 길 걸을 때에도  
비발치는 적탄을 헤치며 달리던  
영웅의 그 눈빛 그려보노라

그러면 그릴 때면  
자꾸만 아득히 돋보이는 삶  
나도 간호원  
나이 또한 같지만  
같지 않은 높이에 서있는 영웅

우리 장군님 기억속에  
영생하는 당의 참된 딸  
조국과 더불어 빛나는 그 삶이  
참된 병사의 거울로 나를 이끌어

숨결을 맞추노라  
새 세대 병사인 나의 숨결을  
그결에 언제나 자신을 세워보노라  
오늘의 안영애로 참되게 살  
내 마음 내 심장을!

## 5 천년을 찾아

강성일

## 1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고있었으나 해빛이 환히 비쳐드는 서재안은 아늑했다. 창가림을 통해 비쳐드는 따스한 해살은 집필에 여념이 없는 은성오박사의 몸을 안온하게 어루만져주었다.

은박사는 한참 펜을 달리다가는 두툼한 참고서를 끄당겨 도수높은 안경너머로 자료를 확인하고는 다시 펜을 달리곤했다.

은성오박사가 자기의 90평생의 총화작인 배달민족의 태고선사시대에 관한 저작의 집필에 착수한지도 한달이 지났다. 장구한 민족의 력사에 대한 한없는 애착을 가지고 까마득한 선조의 옛자욱을 깊이 파들어갈수록 단군민족의 슬기로운 발자취에 가슴뛰이는 긍지를 느끼며 사대와 허무주의의 진창에 빠져있는 얼빠진 무리들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게 되는 그였다.

옥을 깎아다듬은듯한 로인의 원숙한 필체가 하얀 원고지우로 짙짙 뻗어나갈 때마다 세월의 망각속에 사라져버리고 배타의 오욕속에 외곡된 민족사의 참모습이 자기의 위상을 새롭게 하며 움쭉움쭉 살아 일어나는듯싶었다.

로인은 더없는 희열을 느끼며 다 쓴 원고지를 연송 뒤집어넣었다.

또 한개 절을 마친 로인은 안경을 벗고 두눈을 가볍게 문지르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가에도 다가간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기지개를 켜다.

창밖은 어제부터 내려쬐인 하얀 눈으로 하여 온통 은세계를 이루었다. 눈을 한뼘이나 인 정원가의 오동나무가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몸을 떨며 눈가루를 푸실푸실 날린다. 눈부시게 펼쳐진 설경에 정신이 한결 더 맑아지는듯싶었다. 돌연 회오리바람이 일더니 결층의 눈가루를 까불려가지고 제법 눈보라를 일군다. 바람에 휘말려 날아난 눈싸락들이 창유리를 간지럽히며 쓱쓱 소리를 낸다.

지금은 연말, 엇그제 동지도 지났다.

《한해가 또 이렇게 가는군. 이젠 마흔 여덟해...》

오동나무의 앙상한 가지들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들거리는 몇오리의 말라든 나무잎들을 바라보며 로인은 무심치 않게 한마디 뇌였다.

민족분열의 력사에 또 한돌기 년륜이 새겨지는 것이다....

상념에 잠겨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로인은 등뒤에서 나는 인기척에 천천히 돌아섰다.

X대학 대학원에 다니는 막내손녀 은나리이다.

두볼이 새빨갳게 언 그는 두손을 호 불며 다가왔다. 그의 반듯한 이마우에 멋스럽게 내려드러운 한가닥의 머리칼에 하얀 성에까지 붙여있다.

《몹시 추운게로구나. 어이구, 다 얼었구나. 저런, 목도리는 어떻게 하구. 고깔이라두 올려쓸것이지. 쫘쫘.》

로인은 자못 놀라 혀를 끌끌 차며 손녀의 곱은 손이며 볼을 쓸어주었다.

나리는 걱정스레 자기의 볼을 감싸친 할아버지의 잔약한 손을 슬며시 잡아내리며 말없이 창가에 다가섰다. 그리고는 박아세운 조각처럼 까딱도 않고 창밖만 내다본다. 여느때없이 뺨기를 풍기는 그의 거동에 로인은 아연해졌다.

《애야, 무슨 일이 있었나?》

《...》

여전히 미동도 않는다. 누구한테 모욕이라도 당했다.

금년나이 스물여덟. 며칠 있으면 또 한살을 먹는다. 혼기를 놓친다고 곁에서 아부재기를 치던 것도 이젠 몇년전의 일이다. 어려서부터 예쁘고 총명하여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나리였다. 그 이름과는 달리 처녀는 담기있고 자립의식이 강했다. 대학원에서 박사론문을 쓰고있는 그에게 녀자가 박사는 뭐냐고 집안사람들의 지청구가 그칠새가 없었지만 그때마다 대답인즉 녀성도 인류지성의 거봉에 올라설수 있으며 또 올라서고있다는것, 결혼이 인간완성의 필수전제는 아니며 더우기 서울바닥에서는 《랑군님》으로 평생 섬기고싶은 사나이도 보지 못했노라고 오연하게 고개를 쳐드는것이였다. 제일 야단할줄 알았던 할아버지마저 《네 생각대로 해라.》는 바람에 이제는 집에서도 《통일된 다음에 8도강산 다니며 사위취재 해야 할가보다.》하고 뿔뿔로 굴뚝버리고만다. 민족어와 민족문화연구에서 한생의 보람을 찾겠노라고 선포한 나리였다.

《어느 시시한 녀석이 상스럽게 굴더냐?》

로인은 곱게 쌍가풀진 손녀의 눈가에 박히기 시작한 가시주름을 알곤하게 여겨보며 조심히 물었다.

《아니예요. 할아버지.》

《예, 나리야. 여기 와 앉거라.》

로인은 얼음덩이같이 찬 처녀의 손을 잡아 자기가 입은 두툼한 세타주머니안에 넣어주며 쏘아예 앉혔다.

나리는 고개를 수그린채로 호 - 한숨을 내쉬었

다.

《할아버지, 사람이 이름을 버리면 뭐가 되나요.》

로인의 수북한 흰눈썹의 귀가 쫑긋 쳐들린다.

《뭐라고?》

《해방전 왜놈들이 총칼로 〈창씨개명〉을 강요할 때 우리 조선사람들이 목숨걸고 항거하던걸 할아버진 직접 목격하셨지요. 그 이름을 이제는 스스로 버려요.》 로인의 표정은 삽시에 심각해졌다.

《방금전에 길에서 미경언니를 만났됐어요.》

《미국류학간 네 사촌오빠의 덕내말이나?》

미경이는 나라의 녀고시절의 상급생이었다. 학생때부터 자벌했던 그들의 인연은 나라가 미경이를 제 사촌오빠와 엉뚱하게 붙여놓는바람에 정말 한집안사람으로 되고말았던것이다.

그런데 오늘 나라가 빠스정류소에서 아이를 데리고오는 미경이를 만났던것이다.

《예, 〈토마스〉, 고모에게 인사!》

동토대려행이라도 떠난것처럼 두눈알만 내놓고 온통 부얼부얼한 털가죽으로 덧씌우고 감고한 어린 아들의 등을 나리쪽으로 내밀며 미경이가 한 말이였다. 그러자 다섯살난 아들이가 씩 웃으며 《하와유?》 하고 《인사》했다.

나리는 그애를 담썩 안아 눈등에 입을 맞춘후 이마를 쥐여박는 시늉을 했다.

《못써요. 우리 말루 해야지. 그런데 언니, 애 이름이 왜 그래요. 《토마스》가 뭐예요?》

《이름을... 고쳤어.》

《고치다니요?》

손수건으로 아이의 코를 닦아주던 나리의 손이 툭 멎는다. 울케를 쳐다보는 나리의 눈꼬리가 서늘해졌다.

《신 학교에 다니는것도 아닌데 왜 서양식으로 고쳤나 욕하는거지. 정말 나리같은 애국녀성앞에서 면목은 없지만 어떡하겠니. 애아버지의 요구인걸...》

별로 스스럼없이 하는 미경의 말이다.

《아니, 오빠가요?》

《그래, 래년에 졸업하면 미국에 영주하겠다는 거야. 미국에 가서 살바치고 미국식으로 고치는 게 나쁘지 않지 뭐야.》

《그-렇군요.》

진하게 화장한 미경의 얼굴을 곧바로 마주보는 나리의 어글어글한 눈매가 매워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경이도 좀 당황했다.

미경이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나리는 아직 대학생이었다. 그때 미경은 그닥 내켜하지 않는 남편을 들쭈서 나리에게 애기이름을 지으라고 성화를 먹였다. 녀류문필가요, 어학전문가요 하면서 추어주었지만 실은 나리에 대한 변함없는 정애의 표시와 함께 할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나리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면 가정적인 친목도 도모할듯

싶은 미경이의 녀인다운 타산도 없지 않았던것이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파분한 기대와 신뢰에 저르기 감동되었던 나리였다.

나리꽃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이름을 지어준 할아버지처럼 손 고유한 우리 말로, 아기의 이름을 잘 짓느라고 궁리를 짜내던끝에 조카의 행복 한 미래를 그려보며 《큰길》이라는 의미에서 《한길》이라고 지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새 생명, 자기와 성도 같고 피줄도 같은 조카에게 평생 간직하고 후세에도 남길지 모르는 귀중한 이름을 짓고나서 난생처음 느끼는 전세대의 책임과 사명감으로 잠들수 없던 그날밤 미리 마련해두었던 애기옷의 앞섶에 수실로 《은한길》이라고 곱게 새겨넣으며 처녀가 침대머리에서 끝없이 그려보고 부풀렸던 아름답고 황홀한 꿈은 오늘도 가슴속깊이에 그지없이 소중하게 간직되 여있었던것이다.

참기 어려운 수치와 모멸감으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나리는 미경이가 쓴 부들부들한 알라스카산 녀에가죽모자밑으로 흘러내린 노란 양가발을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그러니 언니의 이름도 곧 〈엘리자벳〉이나 〈프란체스카〉가 되겠군요.》

추억이 소중할수록 배신에 대한 원망은 배가되는법이다. 분개한 나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미경의 결을 썩 바람이 일게 지나쳐 총총걸음을 쳤다. 한참 오다가 보니 문득 자기가 머리에 쓴 목도리가 생일날 미경이가 선물한 미국제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는 불어지는 눈바람도 아랑곳않고 목도리를 벗어 주저없이 집어던졌다. ...

은박사는 아무말없이 손녀의 두손만 끌어주다가 어지러운것을 털어버리듯 백발이 뒤덮인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리고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꼭 감았다. 그의 수북한 흰 눈썹이 우들 우들 떨렸다.

누군가 어느 강연회에서 개탄했었지.

《모두들 〈미쓰〉, 〈미쓰〉 하니 이 땅엔 처녀가 없다. 모두 미국놈 줘버렸다.》

별로 새삼스러울것도 없는 일이다. 자기의 모 든것, 자기의 정신과 존엄마저 다 잃고 미국의 딸라와 외래의 정신과 종교에 마취된 이 땅의 반 세기가 빚어낸 비일비재한 일화에 불과한것이다.

《할아버지.》

심상찮게 변해가는 할아버지의 낯색을 살피던 나리가 조심스레 물었다. 은박사는 대답없이 움쭉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세차게 물아치는 바람이 성애가 불린 창유리에 눈가루를 뿌려던졌다.

《그애마저 미국인이 된다... 그런데 이름까지! 내 자손중에도 끝내 그런놈이...고현놈!》

은성오는 망연하여 하얀 눈세계가 펼쳐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

사대로 망한 조선봉건왕조 오백년보다 더 극심한 친미사대의 일로를 줄담음쳐온 이 땅의 현실이다. 광주사태를 겪고나서도 아직도 미국을 《고마운 나라》, 《가장 친근한 나라》로 《짝사랑》하는 속물들 - 이것은 미국의 정신침략, 문화침략의 악후파로서 자기 민족의 역사와 민족의 긍지를 알지 못하는데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미국의 백인학교에 다니면서 황색피부의 얼굴이 제발 희여지라고 하루에 다섯번씩이나 세수를 한다는 어리석은 녀석들은 그 백인들, 앵글로색슨족의 조상들이 아직 원시적인 부족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에 자기네 조상들은 동방아시아의 광활한 지역에 위대한 국가를 세우고 고대의 문명을 창조한 슬기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또 알고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할아버지.》 나리가 은박사의 곁으로 다가오며 걱정어린 어조로 조용히 불렀다. 은박사는 돌아서며 나리의 어깨를 마디굶은 손으로 툭툭 두드렸다.

《애야, 바로 이 망국풍조를 바로잡아보려고 내가 이 나이에 다시 펜을 들지 않았느냐. 자, 이 글이나 좀 봐다우.》

## 2

《...력사를 알려고 하는것은 과거를 다만 과거로서 알려고 하는것이 아니다. 야담을 흥미본위로 기억하기 위함도 아니요 배부른 호사가가 소일거리로 어루만지는 골동품과 같은것은 더욱 아니다. 나라는 력사와 더불어 이어가며 발전한다. 우리는 고귀하고 찬란한 민족혼을 잃고 남의 정신에 살다가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노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조상의 력사를 잊어버렸을뿐더러 또 잊어버리고있다. 벌써 반만년전부터 우리 배달겨레는 한밝산(백두산)을 중심으로 하고 동으로는 창해, 서로는 룡서에 이르는 드넓은 강토에서 광휘로운 삶을 영위해왔다. 제 조상과 제 력사, 제 민족의 얼을 찾지 못하고 민족 독립과 자주를 운운한다는것은 헛된 입타령이다...》

나리는 온몸에 넘치는 의분과 격동을 느끼며 할아버지의 원고를 계속 번져나갔다.

《...우리 고유의것을 찾아내려면 먼저 철저한 민족정신과 비판적리성을 가지는 동시에 종교, 철학, 한문, 리두, 력사지리 등 고급한 학문의 습득을 필연코 전제로 하게 된다. 고급의 책들을 깊이 살펴보면 과거 동방문화의 창시자들과 이름난 임금, 인물의 다수가 바로 우리 배달겨레의 후손들이것이다. 이 명명백백한 사실에 대하여 〈박학〉하고 〈현명〉한 우리 학자님들은 그저 멍하니 놀랄뿐이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원고를 읽으며 그 세계에 완전히 침취된 나리는 초인종이 거퍼 울려서야 원고를 손에 든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밖에는 O 대학 리문기교수가 서있었다.

《아이, 선생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문기는 은성오의 옛제자였다. 그와는 사제간치고도 류다른 친분이었는데 요즘은 작년에 나온 박사의 저서 《잃어버렸던 5천년》의 일문판 출판문제 때문에 더욱 왕래가 잦았다.

《리문기교수, 어서 오시오. 자, 여기에.》

은성오는 나리의 안내를 받으며 서재에 들어선 문기에게 자리를 권하였다. 나리는 문기에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갔다.

문기는 들고온 서류가방을 탁자우에 올려놓으며 현재 은박사의 저서가 재일교포학자인 박상문교수에 의하여 일본어로 거의 번역되었는데 곧 출판에 회부될것이라는 연락이 도쿄에서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말입니다. 박상문교수는 지금 평양에서 단군통발굴에 착수한데 대하여 학계와 사회계에서 논의가 분분한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식으로 문의해왔습니다.》

은성오는 안경을 벗어 탁자우에 올려놓았다.

《선생의 견해는 어떠하시오?》

리문기의 얼굴에 한가닥 의미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물론 반가울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정말 희소식이 아닐수 없지요. 그 발굴과정에 단군의 실재성이 확정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말이지 저는 이 놀라운 소식에 의문도 없이 않습니다.》

문기는 로인의 낮빛을 조심스레 살피며 말을 끊었다. 로인은 그건 어떻게 하는 소리냐하는듯 피곤이 실린 두눈을 흘렸다.

《지금까지 북조선 력사학계에서 단군의 실재여부에 대하여 거론된적이 별로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단군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는 이 발굴사업이 급기야 벌어지게 된데는 필시 학술적인범위를 초월하는 그 어떤 정치적의도가 깔려있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다분히...》

은성오가 두눈을 감으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선생, 북조선사람들은 유물론자들로서 그 어떤 허구나 가설보다 객관적인 실재를 시종 주장하오. 지금까지 억울하게도 단군이 실재인물이나 허구적 존재나 논의대상으로 된것자체가 객관화된 실체의 부재에 기인하는것이였소. 단군의 유골이 발굴된다면 그야말로 학수고대하던 속망이 이루어지는 셈인데 의문이란건 뭐요.》

은성오는 총애하던 옛제자의 기대에 버그러지는 태도에 자못 노여움을 느꼈다.

《선생님, 그러나 학술문제에 정치가 개입되는 경우, 정치의 간섭을 받는 학문이란 대개...》

문기는 더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노성에 가까운 은박사의 격한 목소리가 그의 말을 중등무이



했던것이다.

《문기교수, 선생은 그래 그걸 단순히 학술문제로 생각하오?!

선생, 력사란 학문이기전에 민족의 낮이고 정신적인 뿌리요. 력사란 단순히 민족이 살아오고 발전해온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나 학술적인 론증이기전에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고 긍지란 말이요. 이걸 단순한 학술문제가 아니라 민족사적 문제요. 단순하게 단군이 실재한 존재인가 아니면 신화속의 허구적인 인물인가 하는 학술적인 문제 이기전에 우리 민족의 뿌리를 밝히는 력사적인 대업이란 말이요.

그런데도 뭐 정치의 〈개입〉, 〈간섭〉… 흠, 우리 서울사람들은 저 썩어빠진 군사 〈정권〉이 부식한 〈반공리념〉을 골백년 묵은 가훈이나 하느님의 섭리처럼 품고있다니니 눈에 잔뜩 티가 끼여 만세를 불러야 할 이 거족적인 대사에 오히려 의아해하고 있는거요.》

문기는 전에 없이 열이 올라 어성을 높이는 은성오를 놀랍게 쳐다보았다. 로인의 주름 많은 두 볼에 경련이 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겹게 한두걸음 움직이다가 다시 멈춰서서 한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문기교수, 목소리를 높인걸 용서하시오. 그런 객관적인 시각, 논리적인 심장으로는 력사를 못하오. 내 그래도 선생만은…

참, 허무한 일도 다 있소. 이 은성오의 자손들 중에도 미국인이 되어보겠다고 미국식으로 이름을 고친 녀석이 나타났소. 미국류학을 간 내 손주녀석말이요. 미국꿈이 이 나라의 넋을 무섭게 쭈먹고있소.》

문기의 낮빛이 차츰 꺼매지고 머리가 수그러졌다.

은박사는 더욱더 갈린 목소리로 무겁게 떠엄떠엄 뇌이였다.

《해방전 왜놈의 〈창씨개명〉에 결사항거하던 배달민족의 후손들이 이 미국식 〈창씨개명〉에는 명청해있을뿐더러 부러워하는 놈쟁이들마저 있소.

이 땅에 민족혼이 있는가? 민족정통성에 있어서 북조선은 백점이요! 우리 〈한국〉은 령점, 아니, 마이너스로 내려가고있소. 그래 이 땅의 썩은 정치는 무엇을 하고있는가 대답해보시오!》

《…》

문기는 몹시 당황했다. 그는 은박사의 여느때 없는 이 흥분과 격노의 원인을 알아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켰다. 무엇이라고 더 할말이 없었던것이다. 은성오박사, 그는 평생 민족사와 민족혼을 지켜보려고 안타까이 몸부림쳐온 량심적인 학자였다. 망국과 더불어 몰락한 량반가문에서 태어나 남다른 민족적자각을 가지고 있던 은성오는 청년시절 서울에서 《배제고보》를

다닐 때에도 그후 대학을 다닐 때에도 사각모에 금단추달린 교복보다도 조선바지저고리에 고무신을 더 즐겨신고 다녔다. 그런다고 누구도 그를 함부로 깔보지 못했다. 그는 대학축구팀의 중앙공격수였고 호머와 쉼스퍼어의 작품들을 원문으로 읽었던것이다. 그는 그 시절에 벌써 일제의 어용기관인 《조선사편수회》에서 내는 기관지 《청구학총》에 맞서 민족주의자들이 발간하던 조선사학보인 《진단학보》에 첫 논문 《단군세기를 론함》을 내었다.

그때로부터 어언 반세기도 더 넘는 세월, 때로는 작가협회에도, 때로는 문교부의 관직에도 있어보았으나 그의 민족사연구는 중단된적이 없었다. 말년에 은퇴한 다음에도 지칠줄 모르는 정력으로 고조선의 문자인 《신지글자》의 해독에 팔걸고 나섰는가 하면 겨레의 위대한 력사를 외국에도 알리고 저 자기의 저서를 영문과 일문판으로도 내고 유네스코잡지에도 기고하였다. 지어는 외국의 대학들과 교회, 미군부대에까지 찾아가 단군력사에 대한 수집차의 강의를 하고 명예시민증과 여러개의 학위, 훈장을 받았다.

작년에 은박사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묶어 《잃어버렸던 5천년》이라는 부피큰 저서를 내놓았다.

고조선-고구려-고려에 이르는 민족사의 법통을 생동하게 펼쳐보인 풍부한 깊이있는 과학적론증과 명망높은 문학박사의 필력이 결합된 걸작이었다. 저서는 출판되자 력사학계는 물론 일반독서계에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어느 대학신문은 이 책을 평하는 글에서 은박사를 《국사학, 동방사학의 코페르니쿠스》라고까지 격찬했다. 그러나 의례히 시비군들이 따랐다. 《정사에 기초하지 않은 사이비 〈사학〉》이라니,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양서이지 학술가치는 없다》니, 《야담, 신화에 학문의 옷을 입히고 문장가의 기교로 멋진 치장을 한데 불과하다》니… 지어 《조상전래의 광대한 령토를 외적의 침노로부터 완보한 것은 백제도 아니요, 신라도 아니요 일단 검을 뽑아들면 천하에 적이 없던 대고구려제국뿐》이라는 문구는 색깔이 이상하다고까지 곁들었다. 또 고려시기에 들어와 권력싸움이기는 하지만 자주를 표방하던 묘청이 성공하여 인종왕이 만약 개경으로부터 민족정기가질은 서경(평양)으로 천도했다라면 수치스러운 사대의 력사는 끝장이 나고 단군이래의 세계적인 강대국이 일떠설것이라는 대목을 곁들들면서 은박사는 《빨갱이》라고 중상하는자도 있었다. 어떤 지독한 실증주의비평가는 《단군》이란 실체가 어디에 있는가, 론의할 여지조차 없는 황당무계한것이 아닌가고 곁들었다.

로인은 곧 위력있는 논박을 가했다.

《… 〈정사〉라니, 그래 그네들의 말로 한다면 우리를 〈오랑캐〉로 규정한 배타주의력사가들이 쓴

사서들이 〈정사〉인가, 아니면 사대에 빠져 그들이 쓴 책을 그대로 옮겨베껴 우리가 조상의 옛땅으로 진출한것은 도적이 쳐들어간다는 뜻인 구(寂)자로 표기하고 그들이 우리를 침범한것은 정계라는 의미를 가진 벌(伐)이라는 글로 표기한 사대주의 두목 김부식의 망국적인 〈삼국사기〉가 민족의 〈정사〉란 말인가?)

《…신화란 결코 허황한것이 아니다. 신화는 고대인간의 소박한 의식수준과 념원, 그들의 지향의 반영으로서 무시할수 없는 역사적진실이 숨어있다. 수천년동안 신화로만 치부해왔던 고대의 서사시에 준거하여 거대한 트로이유적이 발굴된 줄 그대들은 정녕 모르느뇨?...》

《단군의 실체》를 꼬집어뜯는 비난에는 눈물겹도록 안타깝기만 했다.

아 단군님이시여, 정녕 어디에 계시나이까?! 단군실재를 론증함에 있어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단군릉, 꿈결에도 가고싶은 단군왕검의 성지가 바로 반나절이면 가닿을 평양에 있었으나 《국가보안법》의 서슬푸른 버리가 온몸을 칭칭 감고. 발목을 잡아매었다. 로인은 통분하여 가슴을 치며 평생을 총화짓는 마지막저술에 달라붙었던 것이다...

문기는 로인의 그 절박한 념원을 망각했던 자신을 마음속으로 질책하며 겨우 머리를 쳐들었다. 아직도 흥분을 삭이지 못하고 서있던 로인은 휘적 휘적 서류함쪽으로 걸어가더니 신문 한장을 꺼내들고 문기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신문지의 한쪽 귀퉁이를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연거퍼 쿡쿡 찢어냈다.

《여길, 여기를 좀 보시오. 똑똑히 보시오!》

문기는 금시 벽력같은 노성이 터질것 같은 로인의 기상에 긴장을 느끼며 신문을 받아들였다.

거기에는 유럽에서 진행된 《세계지명표준화에 관한 유엔토론회》소식이 실렸다.

《조선동해》를 표기하는 문제에서 북조선대표와 일본대표사이에 열띤 론전이 벌어졌다. 북조선대표는 예로부터 《조선동해》라고 표기해온 이 수역이 수세기전부터 세상사람들에게 《조선동해》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해양국들의 지도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음을 자료적으로 증명하고나서 《일본해》라는 낱말은 지난 세기말 《정한론》의 대두와 함께 발생한 것으로서 일본의 국수주의, 식민주의 잔재이며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일본해》를 고집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과 인류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신랄하게 규탄하고있었다.

그런데 격분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소위 남조선 《대표》라는자의 얼빠진 수작이다. 가부를 물을것도 없는 명백한 자기 바다 《조선동해》를 두고 정정당당하게 목소리를 합쳐 일본을 닦아세워야겠으나 한다는 소리인즉 일본측 주장도 북의 강변도 다 수궁할 여지가 있으니 《일본해》와 《조

선동해》를 둘다 사용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조선》이라는 명사에서 북조선을 가리키는듯한 어감이 풍겨 반공의식에 저촉됨을 느꼈는지 아니면 일본을 맞대놓고 때리기 두려운 굴종근성에서인지 이렇게 얼간이같은 망발을 늘어놓고있는것이다.

《이게 바로 이 땅의 정치요.》

로인은 탄식했다. 문기는 침묵을 지켰다.

《이런 멍텅구리들이 통일은 어떻게 하구 잃어버린 5천년은 언제 다시 찾겠느냐 하는거요!》

로인은 본격을 못이기더니 다시 안경을 찾아끼고 다른 원고지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알뵈다》라는 제목으로 본회의에서 당국이 보여준 비굴하고 용속한 처사를 추궁하는 서리발이는 필치의 수필을 써서 그날로 신문에 던졌다.

### 3

그때의 분노가 너무 격했던탓인지 은성오는 혈압이 훌쩍 뛰여오르고 손발에 마비가 와서 고통을 받다가 새해에 잡히면서 두달가량의 입원치료까지 받았다. 침상에 누워 이리다간 글을 마무리 못하고 눈을 감는가부다 하고 맥없이 뇌이군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할아버지의 악화된 병세때문에 늘 상심하여 소침해있던 나리가 전에 없이 얼굴에 함백 웃음을 담고 로인이 누워있는 방으로 날듯이 뛰어들었다. 뒤미처 일본에 갔했다는 문기교수가 따라 들어섰다.

《할아버지!》

《선생님!》

허리굽혀 인사하고나서 얼른 다가온 리문기는 일어나 앉으려고 허우적거리는 로인을 도로 눕히며 로인의 연약한 두팔을 부둥켜잡았다.

《선생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젠... 죽을 때가 지났지. 너무 오래 사니...》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로인은 웃으려 했으나 주름투성이 얼굴에 웃음이 지어지지 않았다.

《그래... 뭐 일본에 갔댔다지.》

로인은 거센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다.

문기는 은박사의 저서 《잃어버렸던 5천년》의 일문판 출판문제로 일본에 다녀온것이다.

《선생님, 이번걸음에 소득이 컸습니다.》

그는 들고온 트렁크를 열고 그안에서 약꾸레미와 알팍한 서류가방을 꺼냈다. 그러자 아까부터 입을 열지 못해 안달아하던 나리가 끝내 참지 못하고 빠른 말씨로 말했다.

《할아버지, 평양에서 단군유골을 찾았대요. 유골의 년대를 확정하고 단군릉 건설을 새로 시작했대요.》

《뭘 평양에서... 단군릉을?》

로인의 귀가 번쩍 트이었다. 리교수가 설명하

는 약꾸레미를 물리치고 서류가방을 받아든 로인은 그안의 자료철을 뽑아 주의깊게 읽어내려갔다.

북조선에서의 단군릉 및 단군관계연구와 관련한 자료들이었다. 언제나 주체적인 민족사의 정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오신 **김일성** 주석님께서 주체82(1993)년 한해에만도 단군 및 고조선 연구와 관련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교시를 주시었고 단군릉 발굴과 관련한 자료를 수시로 보고받으시고 단군연구를 심화시킬데 대한 과업을 주신 자료와 단군유평발굴 조사보고 고고학적인 검증자료 그리고 대대적으로 개건확장될 단군릉 공사를 주석님께서 친히 지도하신다는 자료들이었다.

따로 정히 포장한 껍에는 평양시 강동군의 단군릉을 현지에서 돌아보시며 력사학자들과 담화하시는 **김일성** 주석님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머리 흰 과학자들에게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석님의 확신에 넘친 모습이였다.

로인은 일으켜달라는 말도 없이 저절로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안경알을 손수건으로 닦아끼더니 그 사진을 다시금 정중히 받쳐들고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로인의 섬약한 어깨가 흥분을 못이겨 솟았다내렸다했다.

**김일성** 주석님께서서는 바로 단군릉 옛 기적비앞에서 말씀하고계신다.

아, 잊을수 없는 저 기적비.

58년전 주체25(1936)년 강동의 《단군릉수축기성회》의 초청을 받고 여러 선배들과 함께 개축한 룡비와 기적비를 돌아보았던 은성오이다. 아득한 세월의 언덕을 넘어 끝없이 밀려오는 회억의 파도... 목메이게 북받쳐오르는 감격...

은성오의 두눈에 눈물이 그득하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다시 자료철을 집어들고 **김일성** 주석님의 교시내용을 읽어나갔다. 단군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조선의 고대사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조선인민의 민족적자부심을 더욱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신 주석님의 교시를 거퍼 읽으며 밑줄을 그었다.

주석님께서서는 단군의 지위가 말살된 원인은 일제의 야만적인 동화정책에 있으며 왕검성의 위치를 룡동지방으로 보는것도 대륙이 조선반도보다 문화적으로 먼저 발전한것으로 보는 낡은 도식과 사대주의적사관에 포로된데 있다는 명철한 해명을 주시였다.

천만번 지당한 말씀이다.

《보시오, 주석님은 천재이시오! 민족의 스승이시며 가장 위대한 애국자이시오.》

로인은 교수의 손을 덥석 잡으며 웨쳤다.

홍안의 청년시절부터 은박사의 손탁에서 민족

사를 배워온 리교수도 감개무량하여 어쩔줄 모른다.

《선생님, 여기에 〈선물〉이 또 있습니다.》

리교수는 트렁크안에 손을 찢어넣더니 목이 긴 술병을 하나 꺼냈다.

술병을 받아든 로인의 눈이 빛난다.

《〈청류소주〉? 그럼 평양에서 만든...》

로인은 《청류소주》라고 붓글씨로 흘려쓴 소박하고 깨끗한 상표를 쓸어만지며 병에 가득차 찰랑거리는 맑은 액체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감회깊이 뇌인다.

《내 대동강 청류벽을 마지막으로 본지도 50년이 넘었네.》

《선생님, 건강도 여의치 않으신데 제 한잔만 부어올리겠습니다.》

《그래주게.》

나리가 어느새 상을 준비해가지고 올려왔다. 그러자 문기는 술잔에 찰랑찰랑 넘치도록 부었다.

《마시자구.》

두사람은 쭉 소리를 내며 잔을 비웠다. 그러나 훌쩍 마셔버리는 교수와는 달리 마치 굳은 안주를 씹듯 볼을 우물거리며 술을 《씹는》 로인을 보며 나리는 가슴이 몽클해졌다.

로인은 술맛을 음미해보듯 입을 다셨다. 로인에게 금시 활기가 되살아난듯싶었다.

《평양술맛은 원래 서선지구는 물론 전조선적으로도 유명했지. 나리아, 거 〈밀양소주〉 있지.》

은성오는 낯사발에 《청류소주》와 《밀양소주》를 같이 쏟아부었다.

《자, 이 술 이름은 〈통일주〉 이다. 마시자.》

로인이 한모금 마시고 돌린것을 리교수도 한모금 마시고 나리에게 내밀었다.

《나리, 한모금 마셔보라구.》

로인의 눈시울이 불그레해졌다.

《애야, 마셔라. 너는 모르지, 〈을밀상춘〉 이요, 〈부벽완월〉 이요 하는것을... 이제 통일되면 청류벽도 구경하자. 내가 길안내를 하지.》

로인은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르겠다. 로인이 선창을 떼자 교수도 나리도 따라불렀다.

백두산 높은 터에 신단을 쌓고  
삼신님이 주신 근본 그대로 받아  
아침해 먼저 뜨는 배달나라에  
...

《개천절축가》이다. 음정이 잘 맞지 않는 로인의 거센 목소리와 수십년의 대학강의로 다듬어진 리교수의 무게있는 성량과 나리의 명량한 목소리가 그런대로 화음을 이루었다.

로인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두팔을 휘저으며 책상으로 다가가더니 책상우에 놓여있는 단군의

화상을 마주보며 아뢰듯 말했다.

《한배검이시여! 민족이 드디어 조상을 찾았나이다.》

그는 책장에서 두툼한 원고봉테기를 꺼내며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원고의 앞머리에는 《단군-민족력명의 일폐지》(가제)라고 써여있었다.

로인은 그것을 단번에 죽 그어버리고 그우에 힘있게 써넣었다.

《다시 찾은 5천년!》

#### 4

금년엔 정말 운이 트이는듯싶다.

작년초부터 《핵문제》로 당장 전쟁이 날듯이 세상이 북적 끓더니 북조선의 초강경대응에 미국이 물러나면서 증축해지다가 금년 카터의 평양방문 이후 분위기가 삼시간에 달라져버렸다. 카터가 김일성주석님의 접견을 받고 그 풍모에 완전히 매혹되어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위대한분이시라고 칭송하는가 하면 서울당국자도 주석님을 뵈오려 당장 평양행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떤 입빠른 사람들은 《8.15통일》소리까지 하는가 하면 벌써 북에 있는 친척형제를 만나려고 보따리를 꾸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구월십 평양방문을 고대하던 은박사도 레외가 아니었다. 8.15에는 꼭 단군릉에 간다며 제자들과 가족들에게 차비를 분부했다. 평양행은 기정사실이되 무슨 자격으로 가는가 하는것을 가지고 좀 싱갱이가 있었다. 로인은 그저 한 연구자의 명분으로, 개인의 이름으로 가겠다고 하는것인데 리문기교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대중교의 교직자의 자격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사님이 우리 대중교의 성직에 계신지도 이제 20년이 넘지 않습니까.》

교직 20년...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

학문연구에만 정진하던 로인이 대중교의 교단에도 직접 나서게 된다는 충격적인 동기가 있었다.

...남해의 어느 외진 섬에서 바위우에 새겨진 신지글자 비슷한 유적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고증을 위해 길을 떠났던 은박사는 뽀스칸에서 뜻밖에도 그리스도교전도사와 파계승과의 싸움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승객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느니 부처님을 믿어야 한다거니 하며 제가꿈 자기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몸싸움으로까지 나가는것이였다.

《수행공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불심이 지극하여 부처님을 성심으로 공양하는자는 부처님의 덕을 입게 되는데...》 ~

《여러분, 아닙니다. 20세기 현대사회에 미개한 우상종교를 믿는것은 웃음거리입니다. 그리스도교야말로 현대인이 신봉할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국가들은 다 문명하고 평화로운 락원에서 살

고있지만...》

《개수작 말어. 중세기에 십자군원정으로 동방 침략을 한게 누구냐? 1차대전, 2차대전 일구고 사람죽일내기를 한것은 다 그리스도교국가들이였다. 아메리카대륙에서 인디안의 머리가죽을 벗겨 돈벌이한것도, 흑인을 짐승처럼 노예무역한것도 다 그리스도교인들이였다. 너희 예수님 태어난 이스라엘은 아직도 전쟁을 한다. <중동평화의 암> 이란 말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문명개화에 들어선것은 그리스도교선교사들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 더러운 수작 듣지 마소. 여보시오, 예수쟁이, 이 산마루를 넘어가면 유명한 온천이 있소. 당신께서는 더러운 수작을 하였으니 그 입을 깨끗이 씻고 나는 더러운 수작 들었으니 이 귀를 깨끗이 씻어야겠소. 자, 함께 내립시다.》

중은 전도사의 손목을 잡고 운전사한테 가더니 세워달라고 했다. 손가락이 희고 긴 안경쟁이전도사는 법사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허사였다. 수도의 여가에 소림권법쯤은 익혀두었음직한 그 중은 숨쉴있게 전도사의 손목을 비틀어잡고 꼼짝 못하게 제압하고 끌고나갔다.

실로 많은것을 생각해 하는 극적인 장면이였다.

자기의것이 없는 이 땅, 정신도 문화도 모두가 남의것이다나니 세상에 보기 드문 《종교백화점》으로 된 이 땅이 아닌가.

은박사는 《수행공덕》이라는것을 애초에 믿지 않았다. 그리스도교는 더 말할것도 없다.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 무엇을 해놓았던 말인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문명》을 가져오고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라도 한듯이 떠들지만 가소로운 역설이다.

독립운동자들을 무리로 체포처형한 《105인사건》때 일본 헌병대에 밀고한자가 바로 프랑스신부가 아니였던가. 하느님의 《사도》들인 《청렴한》 미국선교사들 중에 조선의 금광과 산림에 손을 대지 않은자가 과연 있었던가. 수백만 그리스도교신자들이 국토가 분열된 그날부터 주일마다 통일을 이루어달라며 울면서 기도드린다지만 그 통일이란 민족상잔을 초래할 《북진통일》, 《멸공통일》인것이다.

민족의 얼을 다시 찾자면 민족의 시조를 섬기는 토착종교인 대중교를 크게 부흥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교단에 성큼 들어선 은성오였다...

로인은 주위사람들의 권고를 듣기로 했다.

《좋아. 80만 교인들의 신임을 지너보자.》 그리하여 대중교의 교직자의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게끔 락착을 지었다. 나리는 너무 기뻐날뛰며 손수 옷감을 끌라 사들고와서 할아버지가 입고갈 명주바지저고리를 특별히 주문했다. 로인의 평양



방문준비는 순풍에 돛을 단듯 착실히 진척되어갔다.

## 5

우수수...

바람결에 오동나무가지들이 설렁거리더니 황이든 잎사귀 하나가 너울너울 날아내려 발치에 떨어졌다.

한잎 또 한잎...

찌물कु던 삼복철도 끝없이 쏟아붓던 장마도 다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선기가 돈다.

마당가의 오동나무밑 의자에 앉아있는 은박사는 무릎우에 떨어지는 오동나무잎을 하나 집어 들고 한참 들여다보았다. 이제는 또 가을이다.

(인생은 주마갈도다.)

그렇게도 고대하던 8.15도 여느때나 다름없이 실망만을 한가득 남겨놓고 홀 지나가버렸고 환희로 들먹이던 가슴들에는 아물지 않을 상처가 앉았다.

악몽같은 나날들이었다.

7월의 청천벽력 - 지구가 깨어져나간데나 비할 수 있을런지. 민족이 울고 세계가 비분으로 몸부림쳤다.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을 예감하며 들썩이던 7천만동포가 하늘이 꺼지는듯한 억함에 가슴을 쥐어뜯었다.

민족의 위업은 천추에 한을 남겼다. 그런데 재차 더욱 참혹한 고통이 가해졌다. 《문민》당국이 《전군》에 《비상》을 걸고 파쑈광란을 일으키며 일체의 추모행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던 것이다. 불의의 국상을 복침의 호기회로 여긴 후 안무치한 야만행위였다. 그러나 민족해방의 구성이시며 통일운동의 선구자이신 주석님에 대한 추모의식은 방방곡곡에서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은박사도 서재에 빈소를 꾸려놓고 조의를 표했다.

로인은 도대체 의분을 금할수 없었다.

**김일성** 주석님은 식민지노예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이던 민족에게 광복의 새봄, 재생의 활력을 안겨주신 애국명장이 아니신가.

망국의 한을 새길바 없어 독약을 마신 사람도 지사라고 한다. 세비로를 꼭 빼입고 서울료정에서 전화로 왜놈경찰에 《독립선언》을 한 사람도 애국자라고 하고 일본 《천황》을 죽이겠다고 길목을 지키다가 어찌보지도 못하고 감옥에 끌려간 사람도 의사라고 떠든다.

하물며 20성상 바람세찬 남북만주의 험산준하를 뚫고 헤치며 백척간두에 오른 민족의 운명을 구원코저 혈전고투하여온 불세출의 대영웅, 만고의 위인에 대하여서는 어떤 경모와 숭앙이 가당할것인가.

로인에게는 지금도 흥분을 금치 못하고 돌이켜 보곤하는 심장에 새겨진 추억이 있다.

기억도 새로운 주체25(1936)년 9월.

나날이 기울어지는 국운과 쇠잔하여가는 민족정기를 어떻게 하나 버티어보려고 모지름을 쓰는 국내의 유지들과 함께 은성오는 새로 개축된 강동의 단군릉을 찾아 그 령전에 무릎꿇고 엎드려 큰절을 올리면서 귀족같은 원수 왜적을 토멸하고 민족의 독립을 구하게 해주십사 절곡하게 빌고 또 빌었다.

그런데 그 피타는 기원이 과연 령험이 있었던지 그 이듬해 6월 돌연 백두산기술에서 3천리를 뒤흔드는 장엄한 퇴성이 터졌다. 왜놈들이 《금성철벽》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압록강경비진을 뚫고 넘어온 **김일성** 장군님 령솔하의 조선군대가 국경요충지인 보천보를 들이친것이다.

무변광대한 만주의 전토를 몇달동안에 집어삼키고 날이 갈수록 더욱 살기등등하여 당장 관내로 쳐들어갈듯이 기승을 부리는 왜놈들의 오만방자한 《위세》에 놀려 비탄과 절망속에 허덕이던 온나라 백성들은 왜놈의 정수리를 답새긴 이 전투소식을 듣고 재생의 환희로 몸을 떨었다. 보천보전투가 있은지 얼마후 《**김일성** 부대를 소탕》한답시고 《천황폐하》께 엄숙히 《맹세》하고 요란한 환송행사까지 벌리고 출동했던 조선주둔군의 방대한 일본군 정예무력이 이번에는 간삼봉골짜기에서 또다시 무서운 불벼락을 맞고 처참한 피멸을 당하였다는 희한한 소식이 편이어 날아와 은성오는 울머웃으며 만세를 불렀다.

팔도강산을 다니며 조선독립을 념원하는 동포들로부터 해마다 군자금을 걷어가면서 정병 1만을 양성하면 곧 국내로 쳐들어오리라던 《상해림정》의 군대는 있는지 없는지 소식이 묘연하고 한때 개가 높던 《군정서》의 독립군도 쇠진하여 씨비리로 몰려서 재기할념도 잊고 그곳에서 눈치밥 먹으며 휴경지나 두치고있던 그대.

이러한 때에 《동방의 맹주》요 《군사강국》임을 자랑하는 《무적황군》과 정면으로 맞서 련전련승하는 불패의 조선군대가 상해도 아니고 연해주도 아니고 연안도 아닌 바로 백두산에서 나온것이다.

은성오는 격동되어 두주먹을 흔들며 웨쳤다.

《백두산은 과시 조선의 제일명산, 동양의 제일신산이요!》

당시 일본에 이런 격언이 있었다.

《북해도엔 꿈이 있고 대만에는 야만이 있으며 조선에는 범이 있다.》

19세기말부터 대외침략에 혈안이 되어 날뛰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류레없는 포악성으로 청나라와 로씨야라는 엄청난 두 대국을 차례로 꺼꾸러뜨리자 편이든 중전에 도취되어 정복열과 팽창욕에 들떠있던 일본국민들의 현훈중에 경종을 울리던 당대의 격언이었다. 그 무서운 《조선의 범》이 결국은 《백두산호랑이》- **김일성** 장군님이시였



던것이다.

《**김일성** 장군님의 이름과 떼어놓고 조국광복과 민족중흥에 대하여 생각이나 할수 있는가. 이것은 야만행위이다. 력사의 반동이다.》

움켜쥔 로인의 잔악한 주먹에 피줄이 퍼렇게 살아났다.

은성오는 리문기교수와 나리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오는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망연한 눈길로 푸른 하늘가를 바라보며 앉아있었다.

《저, 선생님, 일본에서 박교수가 인편으로 보내온 물건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것이라고 하면서 선생님께 시급히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아까부터 로인의 침중한 기색을 유심히 살피면서 청명경에나 말없이 서있던 문기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로인은 꿈쩍하지 않는다.

《선생님!》

《...》

리문기교수는 자지 가방에서 잘 포장된 팩 하나를 꺼내어 나리에게 주면서 은박사쪽으로 눈짓했다. 로인은 나리가 봉인을 떼고 내미는 팩안에서 중대한 자료를 입수했으므로 믿을만한 인편으로 보낸다는 박교수의 편지와 《중대자료》라고 쓴 쪽지가 붙은 록화테프 한개를 꺼내어 앞뒤로 돌려보더니 도로 나리에게 내밀었다.

《집에 들어가서 보겠으면 보려무나.》

은박사는 평양방문의 좌절과 당국의 반공화국 광판에서 받은 충격으로 하여 거의 절망상태에 빠져 있었다. 락심과 번민, 심한 수면부족으로 별경계 충혈된 두눈을 비비며 로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름 한점 없는 가을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나 로인의 눈동자에 비친것은 처연한 수심뿐이었다. 건뚫 불어온 한줄기의 바람이 로인의 저고리안섶을 헤치고 들어와 재가 얇은 가슴을 조심히 어루만져주었다.

침울한 표정으로 끝없는 상념에 잠겨있던 로인은 방문을 벌컥 열어제끼며 뛰쳐나온 나리가 와락 안기는통에 와뜰 놀랐다.

《왜 그러느냐?》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시지요. 리문기선생님, 선생님도 함께 들어가십시다. 예, 어서요.》

웬일인지 나리는 북받치는 감격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사위를 둘러살피더니 할아버지를 부축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서재의 텔레비존앞에 로인을 앉히고 보청기까지 귀에 끼워주고나서 나리는 록화기의 스위치를 눌렀다.

텔레비존화면에 미국 씨엔엔텔레비존마크가 나오고 이어 방송원이 최근보도를 하면서 북조선에 대한 소식을 알린다,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 **김정일** 선생께서 평양시 교외에 있는 단군릉을 시찰하셨습니다. 단군은 5천년전에 고조선을 세웠다고

전해지는 신화적인 인물이였습니다....

남자방송원의 목소리를 따라 화면이 펼쳐졌다. 텔레비존촬영기가 원경으로 포착한 화면에 백회색의 화강석으로 포장한 방대한 부지의 룡전경이 나타났다. 은성오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학자들은 최근의 고고학적인 연구성과에 토대하여 신화로만 남아있던 단군의 실재를 확인하였습니다.》

민족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노력해오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룡을 개건확장할데 대하여 교시하시고 이 사업을 지도

하시던중 지난 7월 8일 갑자기 서거하시였습니다.다...》

웅대한 부지에 어울리게 우뚝 솟은 화강석축조의 단군릉은 국내와 국외에 남아있는 고조선, 고구려의 석조무덤양식과 류사했다. 룡으로 올라가는 화강석층계의 단들과 룡의 주위에 비파형단계를 형성한 청동검탑이 인상적으로 안겨왔다.

화면을 주시하던 은박사의 두눈이 불을 켜듯이 밝아졌다.

(아! **김정일**지도자입니다.)

룡의 주위를 돌아보시고나서 내부의 단군유골을 돌아보시면서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영명하신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는 은박사는 온몸에 넘쳐나는 활기와 용솟음치는 새 힘을 느꼈다.

수수한 잠바차림의 모습이었지만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위풍과 천리혜안의 예지, 하늘땅이 뒤집힌다 해도 드물지 않을 장군의 기상이 어려있어 로인의 가슴을 더욱 후덥게 하여주었다. 허나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수척해보이는 그이의 영상에서 **김일성** 주석님을 잃은 민족의 통한이 다시금 새겨지는것이 여서 눈굽이 축축히 젖어올랐다.

남자방송원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김정일** 선생의 이번 시찰은 주석님의 서거이후 처음으로 되는 공식활동으로서 애국, 애족, 애민의 주석님의 유지를 끝까지 실현하실 그분의 경륜을 시사하여주는것으로서 차후 그이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화면은 이내 꺼졌다.

로인은 두팔을 허둥거리며 텔레비존앞으로 다가갔다.

《다시 돌려라, 다시!》

얼굴빛이 붉게 상기된 문기도 흥분하여 재촉했다. 나리가 텔레비존을 또다시 돌리자 로인은 어린애처럼 기뻐하며 《사진기!》 하고 소리쳤다. 사진기를 꺼내드는 나리의 두볼에 발갛한 홍조가 피어났다. 그는 할아버지가 사진기를 찾는것을 오늘 처음 보았던것이다.

《나리아, 나를 한장 찍어다오.》

손녀에게 당부하는 로인의 어조는 간절했다. 나리는 연신 방글거리며 텔레비존결에 바싹 붙어선 할아버지의 저고리 앞자락을 정히 여미여주었다.

나리는 단군릉의 전경이 나타나는 순간에 맞추어 샤타를 눌렀다.

《한장 더!》

로인의 주름깊은 얼굴에 다함없는 기쁨과 환희가 한껏 넘쳐났다.

《문기선생님, 선생님도 한장 찍어드리겠습니까.》

문기는 빙긋이 웃으며 텔레비존결에 가섰다.

실로 행복의 한순간이었다.

이때 전화종소리가 요란스레 울렸다. 나리는 깜짝 놀라 얼른 텔레비존을 끄고 전화를 받았다. 뜻밖에도 미경이한테서 온 전화였다. 미국 로스안젤스에서 미국시민서약을 한 사촌오빠가 할아버지에게 작별인사도 하고 가족도 데려갈겸 곧 올것 같으니 될수록 장기출장이나 여행은 피해달라는 당부였다.

나리의 입가에 씩씩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야기를 듣고난 로인의 수북한 눈섭이며 주름진 두볼이 조각처럼 굳어졌다.

《미국에 영주했다? 이 할애비에게 인사하러 온다? 흠.》

로인의 근엄한 기상에서 문기는 폭발직전의 격노를 읽었다.

은성오는 여느때의 그답지 않게 오른손을 쳐들어 힘있게 복쪽을 가리키며 선언했다.

《그녀석더러 이 할애비를 정 만나보겠거든 평양으로 오라구 해라!》

나리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할아버지!》 하고 새된 소리로 부르짖었다. 리문기교수도 흠칫 놀라 굳어져 제 귀를 의심하는듯 은성오박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리는 할아버지가 당장 떠나기라도 하는듯 싶어 은성오의 허리를 부여안았다.

《할아버지, 〈공안정국〉의 칼부림이 스산한데… 좀 기다리시는게 어때요? 그러느라 당국의 대북관에 변화가 생겨 혹시…》

나리는 금시 할아버지의 온몸을 결박한 포승줄을 눈앞에 보는듯하여 전율했다.

《50년간을 기다려왔다. 림수경이 아니래도 통일을 위한 북행길의 소중함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말이다. 통일념원이 공산리념으로 매도되는것을 꺼려했던것이다.》

할아버지를 부둥켜안고 그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나리의 두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할아버지, 통일이… 언제쯤이면 될가요?》

《통일은 되는것이 아니다. 하는것이다. 꼭 해야만 하는것이다.》

내가 배달민족의 기개와 거대한 판도에 대하여 평생 구가해오다가 한지맥으로 잇닿은 민족의 성지에 한번 못가보고 〈일모도궁〉이라는 유한을 남기게 될가봐 무섭구나.》

나리는 할아버지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안다.

《하지만 할아버지, 만약 도중에… 혹시…》

나리는 할아버지를 부여안고 흐느꼈다

리문기교수가 무거운 걸음새로 다가왔다.

《선생님, 나이도 있으신데 그러다…》

은성오는 나리의 어깨를 쓸어만지며 침중하게 뇌이었다.

《백범선생은 〈대통령〉 직도 마다하고 북행길에 오르셨네. 나같은 졸부가 그런 애국자에 비길바는 못되지. 그러나 〈일신의 구차한 안일과 영화를 취하느니 차라리 38선을 베고 죽겠다.〉고 하신 백범선생의 령전에 부끄러운 눈물을 흘렸던 나일세.》

나리는 목이 짹 메여 더 말을 못했다.

문기교수의 눈가에서도 맑은것이 반짝이었다.

은성오는 품에 안긴 나리를 떼어놓고 창가로 다가가 북쪽하늘가를 추연한 눈길로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꼭 다물린 그의 입귀가 일그러지며 푸들푸들 떨렸다.

《애국은 입으로 하는게 아니지.》

리문기교수, 내 언제인가두 말했지. 력사란 제민족, 제 겨레에 대한 사랑이구 뜨거운 심장을 가지구 해야 하는게라구.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한 길인데 내 한몸이 뭐겠나.》

리문기교수는 《선생님.》하고 격하여 부르짖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과 함께 가렵니다.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평양에 가겠습니다.》

《예, 교수선생님께서도요?》

흠칫 놀라는 나리의 눈물에 젖은 두눈이 생기를 띠고 반짝였다.

《그래, 가겠어. 기어이, 기어이 갈테요!》

리교수의 어조는 자못 결연했다.

옛제자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로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손녀에게 그루박듯 또박또박 뇌이었다.

《진정한 민족의 력사는 진정한 애국자가 있는 곳에서 빛나는 법이다. 내 90평생 내 나라, 내 민족의 진정한 력사를 찾아 몸부림쳐왔는데 이제 민족의 은인께서 조상을 찾아주셨으니 내 더 지체하지 않겠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직하였지만 나리는 할아버지의 가슴속에서 대하가 격랑치는 소리를 들었다.

《애야, 단재의 시가 생각나는구나. 력사만이, 민족의 위대한 력사를 되찾는것만이 진정 자주독립의 길이 된다고 확신한 단재 신채호선생이었

지.》

로인은 나리를 품에 안은채 시를 읊었다.

나는 네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랑 사이 칼로 썩 비면  
고우나고운 피덩어리가  
줄줄줄 흘러내려오리라

갈린 목소리로 시의 뒤구절을 잇는 나리의 두  
볼을 타고 맑은 눈물방울이 가닥지어 흘러내렸  
다.

한나라땅에 끌고루 뿌려

떨어진곳마다에 꽃들이 피면  
봄맞이하리

다난했던 구한국시기부터 민족사의 고통을 가  
슴 아프게 느껴온 로세대와 조국의 복讎땅을 단  
한번도 밟아보지 못한 분렬의 새 세대가 다같이  
피나게 갈구하는 통일에 대한 절규였다.

X

그때로부터 얼마후 은성오박사는 개천절을 맞  
으며 남조선대종교 교단의 성직자의 자격으로 몇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민족의 성지인 평양의 단  
군릉을 방문하였다.

## 인생과 병사시절

조창제

묻지 않아도 알수 있더라  
한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출장길에 만난 초면의 사람이든  
어제날 군복을 입었던  
그런 사람들은

알수 있더라 여느 사람들과  
말하는 품이 달라  
일하는 품이 같지 않아  
쉬이 알수 있더라 그 사람이  
제대군인이라는것은

그렇더라  
비내리고 찬바람 불어칠 때면  
웃으며 남먼저 일판에 뛰어드는 사람들  
높은 산을 보고도  
언덕이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병사출신들이더라

정녕 그렇더라  
어머니의 품을 떠나  
조국이라는 큰문을 열고  
이 나라의 산야를 땀으로 적시며  
소나기 내리는 혼련의 진펄길에서도  
휴식의 단잠자는 법을 배운 사람들

한몸을 내대는 육탄정신으로  
조국을 지키고  
조국의 하많은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면  
심장의 피가 더 붉어진 사람들  
가슴이 더 넓어진 그 사람들이

우리 장군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대군인들이더라

그렇게 아, 그렇게  
심장이 후터워진 사람들이어서  
딸을 가진 집들에선  
사위감이 나설 때  
제대군인인가고 그 말부터 묻더라  
새로 온 일군이 제대군인일 때도  
어쩐지 마음에 더 들더라  
배짱이 맞더라

그렇더라 그렇더라  
한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도 노래도 채부도  
병사시절이 주더라  
밤을 모르는 프락포르소리 대홍단벌에 울려가며  
강성대국의 새 아침을 부르는 제대병사들처럼  
생을 가장 빛나게 장식하는것도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사는것이여라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사나이의 넋을 주고  
조국앞에 자서전을 뗏뗏이 내놓을수 있는  
신성한 행복을 안겨주는 병사시절이여

총잡고 보낸 병사시절이 없이야  
어떻게 한생에 생기는  
삶의 공백을 메울수 있으랴  
혁명대학시절-병사시절이 없이야  
아 어떻게 인생의 최우등생이 될수 있으랴  
아아 어떻게 뗏뗏이 인생을 론할수 있으랴

# 내 고향 바다가의 푸른 잣나무

리진혁

내 고향 바다가  
흰갈매기 날아에는 산언덕에 오르면  
내가 심은 한그루 잣나무 푸르러

고향집 트랙에 나서면  
벼랑가의 억세인 그 자태 먼저 보여와  
이제는 습관되어 먼저 찾는 잣나무

나와 함께 나이먹으며  
이제는 해풍에도 끄떡없는 그 푸르름  
내 젊은 가슴에 물들어물들어

너를 보면 마음 굳세여진다  
파도가 세차도 끄떡없는 그 아지  
해일이 밀려와도 변함없는 그 모습

간밤에도 파도에 온몸을 씻고  
아침노을 아지우에 휘감고 선  
그 장한 모습 바라보니

저기 아슬한 벼랑가에  
내가 서있기라도 한듯  
달려가 정을 다해 그리안은 잣나무

벼랑가 바위우 닻함이 없이  
한번 뿌리내린 그 땅을 그리안고  
아름다운 거목으로 나날이 푸르러

창창한 바다를 굽어보며  
바다를 마시고 자라는 성미  
폭풍을 이기면서 꺾이지 않는

너는 고향에 뿌리내린 나  
너처럼 내 푸른 젊음 다 바쳐  
이 땅에 보태는것 있다면 무슨 한이 있으랴

오, 조국이 부르는곳이라면 잣나무야  
폭풍이 사나운 언덕에도 너처럼 서있으리  
제일 앞장에 기상도 푸르게

## 청춘의 졸업증

한대준

이 땅에 생을 지닌  
그 누구에겐들 없으랴  
조국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공지와 자부심이

우주를 정복하는 탐구의 나날속에  
열정을 잃지 않는 청춘도 있으리  
이국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울리며  
조국을 빛내이는 청춘도 있으리

허나 나는 병사  
온 세상을 틀어쥐듯  
젊음에 넘친 이 손에 총대를 잡고  
조국을 지키는 병사

그때문에 오, 그때문에  
이 땅 그 누구보다도  
남다른 공지와 자부심이 있나니  
총을 잡은 그때문에

훈련장에 뿌리는 땀방울  
수천리 강행군길에 찍은 자욱뿐  
아직은 결전의 고지에서 떨친

크나큰 위훈이 없어도

전호가에 총잡고 지새우는  
병사의 낮과 밤에 이어  
조국의 세월이 이어진다는 공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지닌 그 모든 공지도  
내가 총대로 담보한다는 자부심

인생의 봄시절부터  
열정의 이 시절을  
남모르는 초소에서 보내는 나는 병사  
불구름도 불비도 다 막아내는  
나는 조국의 성벽  
조국위해 장악된 나는 총폭탄

세월은 흘러흘러  
추억속에 오늘을 돌아볼 때 있으리  
그러면 옷장안에 걸어놓을 이 군복이 말해주리라  
그 앞섶에 빛날 이 군공메달이 대답하리라  
군사복무-이는  
조국에 바친 고귀한 사랑의 증표라고  
청춘의 가장 값높은 졸업증이라고!

## 고려태조의 신하

강상호

후삼국시기인 931년(신묘년) 겨울, 개경 남대문으로 한 일행이 빠져나왔다. 그 일행은 셋이었다. 그중 한사람은 누런 배옷을 입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팔뚝이 굵었다. 얼굴의 골격도 굵직굵직하고 하관은 빠르는데 수염으로 꺼렇게 덮여있었다. 그의 큰 체구가 뒤에서 따르는 병사들과 대조적이었다. 두 병사는 창대를 추켜들고 그를 호송하고있었다. 시절이 어수선하다보니 법의 틀이 잡히지 않아서 함거에 실어 호송하지는 않으나 분명히 귀양을 가는 일행이었다.

싸늘한 바람이 불었다. 겨울의 찬서리에 살점을 다 떼운 길옆 미루나무는 애처로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산들에 덮이었던 눈발이 흩날렸다.

새빨갭게 언 손을 호호 불던 한병사가 자기 보짐의 덧저고리를 꺼내들고 앞에서 걸어가는 기골이 장대한 사나이를 따라갔다.

《장군, 흠뻑을 입고 추우실텐데 이걸 걸치사이다.》

《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병사도 권하였다. 호송하기는 하나 죄인에게 존경을 품고있는 모양이다. 얼핏 보아서는 호송이 아니라 호위같았다.

앞서가던 죄인은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나는 귀양살이를 가는 죄인이다. 너희들이 죄인에게 인정을 쓰는것은 나라를 옳게 받드는 행동이 되지 못한다.》

병사들은 더 권하지 못하였다.

그 《죄인》은 당시 명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대왕(고려초기 정2품 무관벼슬) 유검필이었다.

## 1

바다물이 철썩덕 기슭을 쳤다. 바위에 부딪치며 하얗게 물갈기가 일어났다. 하늘에서는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울어대고있다.

유검필은 자기가 귀양살이를 하는 처소인 바다기슭의 띠이영의 초가집을 나와 모래불로 향했다.

거기에서는 역사질이 한창이었다. 옷옷을 벗어 제긴 사나이들이 씩씩거리며 도끼와 자귀로 나무를 깎아내고 자르고있었다. 바다기슭에는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 배 한척이 모래불에 자리잡고있었다. 송진내가 풍기는 생생한 나무로 만들어졌다. 배앞에는 쇠뿔이 삐죽 나왔는데 그것으로 들이받으면 그 어떤 배도 부서지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나오셨소이까?》

흰 두건을 쓰고 검은 선을 댄 흰 저고리를 입은 상투쟁이 하나가 유검필의 앞에 머리를 숙였다. 나이 삼십이나 되었을가? 눈이 부리부리하고 어깨가 벌어지고 두팔이 길었다. 어깨에는 활이 걸려있었다.

《오- 명령이나?》

유검필의 얼굴에 웃음이 비졌다.

《그래 함선만드는 일은 어찌 되었느냐?》

《오늘 한척을 끝낼것 같소이다. 벌써 여러척이 오이다.》

《그럴수밖에...》

그가 귀양을 온지도 벌써 해를 넘기고 지금은 임진(932)년이다.

《수고들 했구나. 군사들의 훈련도 잘되겠지?》

《저길 보시오이다.》

명령의 손끝이 가리키는 바다가기슭에서 젊은이들이 창과 칼을 번뜩이면서 훈련을 하고있었다.

유검필은 그들이 훈련하는 모양을 지켜보았다.

북소리와 휘(지휘기)에 따라 방진(네모난 전투서렬), 원진(둥근 전투서렬), 곡진(꺾쇠형전투서렬)으로 진을 바꾸던 젊은이들이 일시에 흩어지며 오운진을 이루었다. 오운진은 말그대로 까마귀나 구름처럼 흩어졌다 모였다 하며 병력을 전개하는 전법인데 방패진 사람, 활쏘는 사람, 창쓰는 사람, 칼쓰는 사람 등 각이한 병사 다섯명이 한 오를 이룬다.

훈련모습을 바라보던 유검필은 만족하여 수염을 내리썰며 머리를 끄덕거렸다. 이들은 그가 직접 키우는 군사들이다. 주로 이 섬과 주변섬의 젊은이들이다.

《그런데 ?》하고 유검필은 명령의 땀흐르는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를 찾아오던 길인고?》

《그렇소이다!》

명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속삭이였다.

《물에서 전함을 타고 어떤 장수 하나가 넘어왔는데 우리가 함선을 제조하는것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래져서 장군을 찾소이다.》

유검필은 흠칫했다. 검은 그림자가 마음에 비껴 들었다.

《알겠다.》

그는 우정 천천히 걸음을 옮겨 자기의 처소로 향했다. 초가집앞에 갑옷을 입은 무관이 자기쪽을 바라보고있었다. 그옆에 몇사람이 더 서있다. 유검필은 입가에 미소를 그렸다. 그 무관은 자기



동료인 대광 만세였다.

《장군이 어떻게 ?》

유검필은 반가움에 빠른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섰다. 만세는 의혹이 비낀 눈길로 유검필을 지켜보기만 하는데 뒤에 서있던 사람들중에서 한 젊은이가 앞으로 뛰쳐나왔다.

《아버지!-》

크나큰 충격이 홍벽을 울렸다. 유검필은 놀랐다.

《네가 ?》

그는 아들 관유였다. 아들의 두눈이 흥건히 젖어있었다. 불편을 실록실록하며 다가오더니 아버지의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얼마나 고생하셨소이까 ?》

《오냐 .》

유검필은 눈곱이 뜨거워지는것을 느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들이요? 여기에 다 오고 ?》

부자간의 상봉을 보며 뒤에 서있던 만세는 대답없이 유검필을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한참후에 물었다.

《그대는 어찌자는지요?》

유검필은 떨떠름해졌다. 그자리에 굳어져 눈을 홑떴다.

《무엇을 녀두에 둔 말인지?...》

《그래 함선을 못고 군사를 키우는것은 무엇을 위함이오?》

《그거야 이 섬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니까... 대우도가 점령당하고 이 곡도와 포을도를 빼앗기면 제해권을 거의 잃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후백제를 제압하고 삼국을 통합하겠소? 여기 와 보니 중요한 지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요.》

만세는 놀란 눈길을 들었다.

《그래서 군사를 키웠단 말이지요?》

그는 한손으로 아래턱을 꼭 잡으며 피로운 얼굴빛을 감추지 못했다.

《이걸 꼭 그대가 해야만 하겠소?》

《왜 그러우?》

뒤에 서있던 관유가 유검필의 팔굽을 잡았다.

《개경에 어떤 소문이 떠도는줄 아십니까? 아버님이 자기를 귀양보내데 대한 원한을 품고 반역할 군사를 키운다고 하오이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유검필은 아연실색하여 만세와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보았다. 기가 막히는노릇이다. 어이가 없었다.

《허허...》 유검필은 양천대소를 했다. 《내가 반역을 한다. 삶은 소대가리 옷다 꾸레미 터질노릇이군!》

그는 계속 소리내어 웃었다. 한바탕 웃고나자 공허감이 가슴을 휩쓸었다. 쓸쓸한 외로움이 갈

마들었다.

《그래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하고 다니우?》

《마군장군 환선길이 그런 소리를 함디다.》 만세가 대답했다. 《귀양살이하는 사람이 군사를 키울때는 판속심이 있을거라며...》

《환선길이...》

유검필은 신음소리를 냈다. 자기 운명에 계속 엇걸리는 환선길의 시뻘건 얼굴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모함하자는것일까? 유검필은 환선길의 마음속을 알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유검필이 귀양을 오게 된것도 환선길리와 련관되어있었다.

그당시 왕건은 복잡다단한 나라일들로 하여 궁전에서만 땀돌고있었다. 임금의 얼굴에는 시름이 떠날 때가 없었다. 그것을 보는 유검필은 막 안타까웠다. 창검을 휘두르며 천리를 단숨에 달리던 임금이 궁전에만 있으면서 복잡한 정사일에 시달리자니 얼마나 고달프랴! 임금과 함께 말을 달리고 사냥한 매패지를 구워놓고 사발로 술을 돌리며 호호탕탕하게 웃어대던 옛시절이 그리웠다. 사냥을 다니며 그곳 지형을 익히는것도 삼국통일에 해되는 일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여 임금에게 청했다. 자황포(황적색의 도포)를 입은 임금의 얼굴에 반가운 기색이 어렸다가 인차 사라졌다.

《임금이 사냥을 다니면 나라일이 어찌 되겠느냐?》

《소신이 보건대는 안에서 고심할 때보다 나와서 말을 달리는 때에 일이 풀리는 경우가 더 많았사오이다.》

그의 말을 듣고 왕건은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에 나갔다. 공교롭게도 그때 견훤의 군대가 고려의 령토를 침입해들어왔는데 임금이 자리를 뜬 때여서 제때에 소식이 가닿지 못했다. 개경에 돌아왔을 때는 형세가 불리해진 때였다.

이것으로 하여 유검필은 탄핵을 당했다. 탄핵한 사람은 임금의 호위무관인 마군장군 환선길이였다.

유검필이 임금을 사냥에 청한것은 신임을 독차지하려는 간사한 꾀이며 그것으로 하여 나라일을 그르쳤은즉 용서해서는 안되리라는것이 탄핵의 내용이였다.

《나라일이 다망한 때에 김후직이처럼 충성을 다하여 간하지 못할망정 이것이 당한 일이오니까?》

유검필은 환선길이 김후직이 소리까지 할줄은 몰랐다.

김후직은 삼국시기 신하였다. 임금이 사냥을 좋아하므로 여러번 간하였으나 소용이 없게 되자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임금이 사냥다니는 길목에 물어달라고 하였다. 신하로서 임금의 허물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였으니 죽어서라도 깨우쳐주겠다는 것이었다.

후날 임금이 사냥을 나가다가 도중에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마치 《가지 말라!》고 하는듯했다.

임금이 돌아보면서 저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고 물으니 수행하던 신하들이 고하기를 김후직의 무덤에서 난다고 하였다.

그에 임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서 간하다가 안되니 죽어서도 잊지 않고 저렇게 호소하는데 내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앞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무슨 면목이 있겠느냐고 이후로는 종신토록 사냥을 다니지 않았다는것이다.

그 소리를 하면서 탄핵하는데 유검필은 변명할 만한 구변이 없었다.

환선길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유검필이 깨를것은 임금이 사냥을 떠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어째서 일이 터진 다음에야 그렇게 나서서 떠들어대는가 하는것이다. 자기가 임금에게 사냥을 청할 때도 호위무관으로서 곁에 있지 않았던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때 막아나서야 했을것이다.

유검필을 꼭도로 귀양보내라는 어명이 떨어졌다.

유검필은 두명의 호송군사에게 이끌리어 궁전을 나서다가 급하게 들어오는 대광 만세와 마주쳤다.

《이게 무슨 일이요?》

만세의 얼굴이 하얘졌다. 사연을 들은 그는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렸다.

《그럴수 없소. 장군이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던것이 그렇게 됐는데 내 성상에게 간하여 장군의 귀양을 취소할테요.》

유검필은 황급히 만세의 팔을 잡았다.

《나는 귀양을 가야 하오.》

《?...》

《임금이 이제 귀양을 취소하면 어명이 너무 가볍게 되오! 그렇게 돼서야 우리 어찌 임금의 옥좌를 보좌할수 있겠소?》

만세는 한숨을 쉬며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

유검필이 그때 생각을 하며 서있는데 만세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내 그대의 진심을 모르는바 아니오만 군사를 키우는 문제는 심사숙고하길 바라오.》

유검필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환선길이를 생각할수록 이해할수 없었다. 어째서 귀양을 가있는 사람에 대하여서까지 포함하는가? 명백한것은 환선길이 자기를 꺼리고있으며 어떻게든 임금과 자기사이에 썩기를 박고저 노력한다는것이다. 질투라면 너무 지나치다.

《생각은 그만하고 배에 오르세.》 하고 만세가 팔을 잡아끌었다.

《그건 왜?》

《글쎄 오르라니까!》

아들도 따라 권하는 바람에 유검필은 어리벙벙해서 만세가 타고온 전함에 올랐다. 만세가 거처하는 방에 들어가니 술상이 차려져있었다. 조촐하였다.

《이건 뭐요?》

《장군이 귀양살이를 하는 괴로움을 위로할가하여 준비한것이요.》

유검필은 가슴이 뭉클했다. 우정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속에 밀물처럼 몰려들었다.

옆에서 아들 관유가 한마디 더 했다.

《만세 장군이 출전하면서도 아버님을 생각하여...》

그 말에 유검필은 굳어졌다.

《출전이라니? 만나자부터 나를 공격하는 바람에 묻지 못했는데 그러니 장군은?...》

《그렇네.》 하고 만세는 대답했다. 《전원의 해군장군 상애의 군사가 대우도부근에서 어물거린다고 하더군. 삼국의 화합을 위하여 도발을 막으라는 임금의 어명을 받고 거기로 가던 길에 들렀네.》

유검필의 눈살이 대뜸 꺾어졌다. 숨결이 거칠어지고 눈썹이 푸들거렸다.

《그게 사실이라면 장군은 왜 여길 왔소?》

만세는 아연하여 주춤거렸다.

《나는 장군을 생각하여...》

유검필은 머리를 가로 저었다.

《고맙소만 충성을 말하고 의리를 말하는것이 순서요. 대광은 어명을 받고 출전할 때 즉시 출발하였지 언제 한번 집에 들러서 자고간적이 있었소? 대광은 나를 생각하기전에 어명을 먼저 받들어야 했소.》

《...》

《술은 어명을 수행하고 돌아올 때 함께 마십시오. 지금은 한시가 급하니 빨리 떠나기를 바라오!》

《음!-》

만세는 갑옷과 허리띠를 바로잡으며 말했다.

《내 장군에게 두손을 들었소.》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돌아섰다. 얼굴에 불안감이 비껴있었다.

《그대의 말이 다 옳으니 더 말하지는 않겠소. 그러나 시키지도 않은 군사를 키우다가 도리어 역신으로 몰리느니 차라리 그냥 잠자코 있는편이 낫지 않겠소? 귀양살이하는 사람의 심정을 누구나 다 이해하는건 아니라오.》

만세는 전함을 타고 떠났고 해변에는 유검필과 관유가 눈길로 바래우며 서있었다. 배가 수평선 너머로 멀어졌을 때 아들이 설분을 터뜨렸다.

《아버님, 너무하십니다. 만세장군이 아버님을 얼마나 위하려고 애써왔다고... 고맙다는 말대신

이렇게 무정하게 보낸단 말이오니까?》

《참새처럼 다사하게 찬양하는게 사나이들의 의리지심은 아니다.》 유검필의 엄한 목소리였다.

## 2

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다. 날씨도 좋았다.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기분은 날씨에 많이 관계된다고 했다. 날씨가 흐리면 사람의 기분도 찌뿌드해지고 날이 맑으면 사람의 기분도 상쾌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검필은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괴로웠다. 답답하여 바다가로 나왔다. 오늘따라 파도소리도 스산하게 들린다.

곳곳에 불무지들이 있었다. 자기가 키우는 군사들이 밥을 짓는 모양이다.

그 모습을 보며 유검필은 낮에 들은 말을 괴롭게 상기했다.

내가 반역할 군사를 키운다고? ... 충신은 못되도 역적은 되지 말했는데 내가 반역을 해?... 안될 소리!

유검필은 지금까지 명장으로 이름을 날리었을 뿐 아니라 임금의 깊은 신임을 받고있었다.

승전을 하고 유검필이 돌아올 때 임금은 어전 뜰에서 그의 손을 잡고 맞아주었다.

《그대같은 공훈은 옛날에도 드문 일이니 내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않겠다.》

유검필은 황황히 임금의 앞에 엎드렸다.

《국난을 당하여 자기 일신을 생각지 않으며 위급이 직면하면 목숨을 바치는것은 신하된자의 직분이거늘 성상께서는 왜 이지경까지 하십니까?》

임금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절절하게 말했다.

《아직 후백제 견훤이 범처럼 도사리고있고 신라도 우리에게 완전히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과인은 서경(평양)에 거동하여 북방변경을 순찰하였소.

과인의 뜻은 고구려 동명왕의 옛 강토를 우리나라의 귀중한 유산으로 확신하고 반드시 찾고저 함이니 후백제와 신라를 통합함은 급선무가 아닐수 없소. 경이 있는 힘을 다하여 도와주길 바라오!》

유검필은 다시금 땅에 엎드려 두번 절하였다.

《소신은 자신의 힘을 다하여 성상의 통일대업을 받들겠나이다.》

유검필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일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반역을 할수 있단 말인가?

순금은 불에 타도 금이며 옥은 부서져도 옥이다. 유검필은 이런 생각을 하며 군사들이 있는쪽을 넘겨다보았다.

딱딱 소리를 내며 모닥불들이 타고있었다. 불빛에 어룡진 군사들의 얼굴이 불그레해보였다. 그들은 아무런 시름도 없다.

《에엑엑-》

별안간 기겁한 소리를 지르며 누군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친구 꿈에 범이라도본 모양인가?》 하고 그 옆의 사람이 웃었다. 《그 작은 몸을 통채로 삼킨 모양이지?》

잠시 얼터름해졌던 상대는 벌쭉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이자 꿈에 룡을 보았는데...》

《룡을?...》

모두다 호기심이 나서 모여드는데 그는 자기를 조롱한 친구의 어깨를 치며 웃었다.

《이 친구가 룡이 되었던란 말이야!》

《그것 보라구! 내가 이제 큰 장수가 된다는걸 말해주거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룡이 아니구 이무기(룡이 되려다가 못되었다는 환상적인 구렁이)더라란 말이야. 히히...》

《에끼 이 친구!》

모두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었다.

유검필은 가슴이 허무룩해졌다. 나도 저들처럼 시름없이 웃고 떠들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것인가!...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돌아보았다. 관유가 뒤에 항아리를 들고 서있었다. 술냄새가 풍겼다.

《왜 쉬지 않고 나왔느냐. 피곤할텐데.》

《저...》 아들은 주저주저하며 말했다. 《속이 탈 때는 술이 좋소이다. 괴로움도 잊고...》

유검필은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이 고마왔다. 그러나 그는 손을 내저었다.

《그건 네가 잘 모르는 소리다. 기쁠 때는 한잔 술에도 취하지만 괴로울 때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게 술이란다.》

《그래도 오늘 술은 약이 된다는데...》

《오! -》 유검필은 그제야 깨달아지는것이 있었다. 《오늘이 류월 류두(6월 15일)이던가?》

전시기부터 류월 보름날이 되면 동으로 흘러가는 내물에 머리를 감고 그자리에 재앙을 물리치는 제를 지내고 술을 마시었는데 이것을 류두잔치라고 하였다. 민간에 이렇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순간 유검필의 머리속에 고구려가요인 동동의 한구절이 떠올랐다.

류월이라 보름날

(아으) 벼랑에 내버린 빛과 갈애라

돌보아주실 님을

따라다니기 어렵습니다

(아으 동동다리)

고구려에는 류두놀이때 벼랑에 빛을 버리는 풍속도 있었는데 노래에서는 외로운 신세를 이에

비유하고있는것이다. 혹시 자기도 그러한 빗신세가 되는것이 아닐까?...

《시키지도 않는 군사를 키우다가 역신으로 물리노니 차라리 그냥 잠자코 있는편이 낫지 않겠소? 그대야 귀양살이를 하는 몸이 아니요.》

만세가 남기고 간 말이 아프게 가슴을 찔렀다.

그냥 잠자코 있으라구? 하는 일이 없으면 편안은 하다. 그러나 편안한 사람은 그만큼 자신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날 아침 전함을 건조하고있는 바다가로 걸어가던 유검필은 무엇인가 불안감을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왜 그런지 조용하다. 그는 군사들이 훈련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느새 자기결을 따르는 아들을 돌아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느냐?》

관유는 그 말을 듣자 꺼리는것이 있는듯 황급히 머리를 숙이며 아버지의 눈길을 피했다. 유검필은 아들이 무엇인가 알고있음을 간파했다.

《말하거라. 어인 일이나?》

관유는 머리를 꼭 숙이고 떠듬거리며 대답했다.

《군사를 키우고... 병선을 만들면... 아버지께 화가... 그래서 제가 명립이더러...》

《뭐야?》 유검필의 눈에서 불씨가 튀어나왔다. 《네가 정신이 있는놈이나?》

《아버님!》 관유는 황황히 뚫어앉았다. 《무엇때문에 스스로 일을 당하시오이까. 구태여 나서지 않아도 되겠는데... 그대 얻은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아버님이 삼감께 사냥에 대한 청만 드리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까지는 안되었을것이오이다. 사실 나서지 않고있다가 일이 벌어질 때 충의지심이 있는듯이 나선 사람이 더 잘되고있지 않소이까? 아버지!》

《뭐라구?》

유검필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창검에 가슴이 찔렸을 때 지르는 고통의 웨침과도 같았다.

《네가 나를 모르고 내가 너를 모르는구나!》

유검필은 나라일만 일이라고 집일에 무관심했던 자기의 실책을 깨달았다. 기막힌 일이다. 아버지가 피흘리며 이루는 승전봉우리밑에서 편안하게 자라난 자식이 감히 사는법을 가르치려 들지 않는가! 그것도 남의 비위나 맞추며 사는법을...

유검필은 모래를 걸어차며 군사들이 있는 숙사로 향했다. 아들이 다급히 따라섰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숙사에는 한사람의 군사도 보이지 않았다. 어리둥절하여 돌아보던 그들은 바다가에 떠있는 배에 오르고있는 군사들을 발견했다.

유검필은 아뜩해졌다. 전에 없는 일이다. 군사들이 자기의 령도 없이 이동하다니? 모래를 저력저력 걸어차며 달려갔다.

《이게 어인 일이고?》

숨가쁜 노성이 쩡 울렸다. 배에 오르던 군사들이 그자리에 굳어졌다. 배우에서 어깨가 켜 벌어진 사나이가 뛰어내려왔다. 명립이었다.

《군사들을 결의 섬인 포율도로 옮기나이다.》

《뗏이, 나의 령도 없이 누가 감히?》

유검필의 두눈에 퍼런 빛이 번뜩했다. 명립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장군! 군사는 저에게 맡기시오이다. 우리는 장군이 죄없이 피해를 입는것을 원치 않소이다.》

《무엇이라고? ...》 유검필은 몽둥이에 가슴을 후려맞은듯 흠칫하며 한걸음 물러섰다. 가슴이 찢르르해졌다. 한동안 그의 얼굴을 지켜보다가 아들을 돌아보았다. 아들은 머리를 쳐들념도 못했다. 유검필은 한걸음 명립에게 다가서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군사들을 배에서 내리게 해라! 너의 심정은 알만하다만 내가 손때묻혀 키우지 못한 군사가 어찌 위급할 때 나의 뜻대로 움직이겠느냐. 아니 될 말이다.》

유검필은 묵묵히 자기 처소로 돌아왔다. 관유는 감히 아버지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따르기만 하였다. 그 모습을 보며 유검필은 한숨을 쉬었다.

《배우지 못한 저 백성들이 너보다 훨씬 낫구나.》

《...》

《남의 비위나 맞추며 살기는 쉬운 법이다. 그러나 너는 계속되는 전란으로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알아야 한다. 내가 왜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군사를 키우는지 알아야 한다.》

관유는 마당에 뚫어앉았다. 머리를 수그린채 일어날념을 못했다.

유검필은 명립을 처음 만나던 때의 일을 상기했다.

그때는 신묘(931)년 겨울 유검필이 두 군사의 호송을 받으며 귀양을 오던 때였다.

그들이 바다가 가까운 지역에 이르렀을 때이다. 유검필이 벗어나서 우뚝 굳어져버렸다. 두 호송 군사는 어리둥절하여 사방을 둘러보았다.

《왜 그러시오니까?》

한 군사가 물었다.

《이자 무슨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전장을 헤쳐온 유검필의 귀는 예민했다. 귀를 강구어보니 바람을 타고 간간이 호곡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으로 가보자!》

유검필은 앞서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었고 두 군사도 군소리없이 따라섰다.

소나무가 듽성듬성 서있는 야산기슭, 누렇게 마른 풀밭에서 한 사나이가 슬프게 울부짖고있었다.

《아이고 아아이고-애야! -》

그의 품에 크지 않은 아이가 안겨져있었는데 머리며 팔다리가 늘어져 움직이는대로 흔들리었다. 사나이의 상투가 흐트러져 머리칼이 얼굴이며 잔등으로 마구 흘러내렸다.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한 군사가 급히 달려갔다. 사나이에게 허리를 굽히고 안타깝게 묻는 모양인데 사나이는 설음에 겨워 통곡절반 대답절반을 하는 모양이다.

한참후에 그 군사는 시무룩해서 돌아왔다. 유검필의 앞에 와서도 잠시 말이 없었다. 한참후에야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저 사람은 후백제와 우리 고려와의 싸움때 안해와 헤어졌다 하나이다. 안해는 백제가 차지하고있는 땅으로 흘러가고 자기는 고려땅으로 밀려왔는데 안해를 찾으려 헤매이던중에 굶주리고 추워서 아이를 죽였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승냥이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만이 웅웅 들릴 뿐이다. 풀대들이 통곡하듯 몸부림치며 그들의 무릎을 세차게 후려쳤다.

《이 땅이 후삼국으로 갈라진지 삼십년이 되었구나. 그때문에 당하는 백성들의 고통 더 말해 무엇 하리오!》 한동안 굳어진채 서있다가 군사들을 돌아보았다.

《너희들중에 누군가 나에게 주려던 덧저고리가 있었지?》

《네.》

한 군사가 자기 보집에서 덧저고리를 꺼내왔다.

《저 사나이에게 주어서 아이를 안장할 때 덮어주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저 사람을 도와서 물어주거라!》

얼마후 야산에 크지 않은 봉분이 생겨났다.

유검필이 군사들과 함께 떠나려는데 그 사나이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털서덕 유검필의 앞에 꿇어앉았다.

《고마우신분의 성함이 무엇인지 알고저 하나이다. 후에라도 결초보은하오리다.》

유검필은 서글프게 웃었다.

《나는 귀양을 가는 죄인이다. 죄인의 이름은 알아서 무얼하겠느냐. 어서 안해를 찾아 떠남이 좋을게다.》

유검필이 움직이려 하자 사나이는 그의 아래도리를 부여안았다.

《사람이 짐승과 다름은 도리를 알고 의리를 지키기때문이온데 저승에 가서라도 은혜를 갚을테니 알려주사이다.》

호송군사가 귀뜸해주었다.

《이분은 유검필장군이시오.》

《네?》 사나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이 벌어진고 온몸이 굳어졌다. 《그럼 후백제와의 싸움에

서 명성높은 대광 유검필장군이란 말이오이까?》

사나이는 머리를 깊이 숙였다.

《장군,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

유검필은 사나이를 일으키려고 몸을 굽히다가 고쳐 생각하고 돌아섰다.

《우리는 어서 가자!》

일행은 무거운 걸음으로 귀양지를 향했다. 사나이는 그들의 뒤에 정신없이 절을 하고있었다. 사나이가 보이지 않는 길에 나서자 유검필은 몇어서서 그가 있을 야산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피로움이 어려 있었다.

《빨리 삼국이 하나로 되여야 사람들이 서로 헤어져 만나지 못하는 고통을 면하게 되련만 이몸 귀양을 가는 신세 되었으니 괴롭기 그지없구나!》

《장군! 고정하소이다.》

호송군사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있었다.

유검필은 입술을 깨물며 각오했다.

《내 귀양을 가서도 삼국통일을 위해 쓸모있는 일을 하리라!》

그 이듬해 봄 그 사나이가 유검필을 찾아 꼭도로 건너왔다. 그가 바로 명립이었다. 어떻게 왔느냐는 유검필의 물음에 명립은 이렇게 대답했다.

《돌아다니며 보니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소이다. 안해는 찾았으나 곳곳이 싸움판이고 우리가 살던 마을도 그제는 신라의 땅이 되고 어제는 후백제의 땅이 되고 오늘은 고려의 땅이 되는 판이라 보금자리를 찾을수 없었소이다. 하나로 되고 싸움이 없는 땅이 곧 보금자리오이다. 장군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 군사를 키운다는데 받아주소서.》

명립은 유검필이 아끼는 부하로 되었다. 귀양을 온 몸이라 나라법에 의하여 섬박을 벗어날수 없는 유검필이다. 그러니 군사를 모집하고 병쟁기를 만들 철근과 배를 무을 목재를 모아들이는 일은 명립이 도맡아 해야 했다.

지나간 일을 되새기며 유검필은 자기앞에 돌미륵처럼 굳어져있는 관유를 내려다보았다.

《옛글에 백성들의 의사를 외면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내가 하는 일은 백성들의 의사에 따라 하는 일이니 구태여 일신의 안일을 위해 그 만들수 없다.》

《아버님!》 관유는 눈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얼굴을 들었다. 《제 아버님의 충의지심을 모르는바 아니오나 진심이 꼭해당하는것이 억울해서 그러는 것이오이다.》

《음!》

유검필은 시선을 판데로 돌렸다. 인생이란 왜 이다지도 복잡다단한것일까? 있는 그대로 나타나것이 아니라 있는것이 없는것처럼, 없는것이 있는것처럼 나타날 때가 있다. 그럼 언제면 모든것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될까? 아마 가장 어려운 시각이겠지?...



그때 유겸필은 바다가에서 울리는 창검이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머리를 끄덕이었다.

### 3

유겸필은 자신이 모든것을 각오하고있다고 생각 했지만 정작 명림이 개경에서 무관이 내려와 기다린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숨이 막히는듯했다.

그 무관이 기다리고있다는 자기 처소에 도착했을 때에는 더더욱 놀랐다.

《환선길이?!...》

흠칫 몸이 떨렸다. 이것은 마치 자다가 깨어난 사람이 새삼스레 추위를 느끼며 부르르 떨 때와 흡사했다.

환선길은 흰 얼굴에 빙긋이 웃음을 담으며 다가왔다.

《이렇게 대판을 뵈게 되니 반갑기 그지없소이다.》

두손을 눈으로 울리며 읊까지 한다.

왜 그런지 유겸필은 마음이 섬찔했다. 태도는 달콤하다. 그러나 끝이 약이라도 뱀의 몸에서는 독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

《어떻게... 오셨소?》

《긴히 알아볼게 있어서 그렇니다.》

그들은 각기 퇴마루에 앉았다. 해별이 마당에 내려쬘었으나 물기벤 바다바람이 불어와 시원했다.

《알아볼것이란 무어요?》

유겸필의 물음에 환선길은 싱긋이 웃었다.

《대판은 이곳에서 귀양살이를 하시는것이 억울하지 않소이까?》

《아무려면 죄없는 사람을 귀양보냈겠소?》

《그런데 군사는 왜 키우시오?》

유겸필은 환선길이 결코 선의에서 물어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임금에게 참소하여 귀양을 보냈듯이 또 무슨 건덕을 잡아내여 더 궁지에 몰아넣자는것인지도 모른다. 면이 이지러진 구리거울에는 꿈은것도 이지러지게 비치는법이다.

《난 한사람의 군사라도 더 키워 성상의 삼국통일을 보좌할 결심이요.》

환선길은 쓴웃음을 지었다.

《싸움이 아니라 화합 통하여 삼국통합을 이루고저 하는것이 조정의 뜻인데 군사를 키우는것을 어찌 성상을 받드는 행동이라고하시오? 당치 않은 소리요.》

《견훤은 통합을 바라는 백성들의 의사를 외면하고 우리 땅을 침노할 기회를 노리고있소. 그러면서도 어찌지 못하는것은 우리의 군세가 강하기 때문이요. 군사가 약하면 화합이 아니라 먹고 먹히우는 싸움이 불가피하게 될것이요. 싸움을 피하고 화합 위해서도 군사는 강하여야 하오. 그래서 나는 군사를 키웠소.》

《진심이오니까?》

《그렇소.》

《귀양와서도 오직 그 생각만을 했던 말이요?》

환선길은 우악스러운 손에 명치끝을 쥐여박힌듯 한 신음소리를 냈다. 유겸필은 뜻밖에도 그의 눈길에서 실망의 빛을 보았다. 번개불같은 예감이 심장을 꿰질렀다.

(혹시?)

순간에 마음이 쇠덩이처럼 굳어졌고 사나와졌고 날카로와졌다.

갑자기 환선길이 일어섰다.

《장군!》 그의 말이 딱딱해졌다. 《장군의 군사를 나에게 넘겨야겠소!》

《무엇때문에?》

《귀양살이를 하면서 군사를 키우는 장군의 뜻을 어찌 알수 있겠소? 그 군사는 내가 긴요히 쓸데가 있소.》

유겸필은 전율을 느꼈다. 관자노리에서 부풀어 오른 피줄들이 요동치듯 꿈틀거렸다.

《성상의 조서(명령서)가 없이는 절대로 안되오!》

《반역으로 몰려두?》

《이 군사는 내가 키워도 나 개인의 군사가 아니라 성상의 군사요. 개인에게 넘길수 없소.》

환선길은 유겸필의 눈에서 섬광을 보았다. 그 순간 입을 다물었다. 이런 사람앞에서는 자기의 뜻을 이룰수 없다는것을 깨달은것이다.

《중소.》하고 환선길은 말했다. 《장군은 반역으로 처리될거요.》

《나는 청백하오!》

《제것을 주고도 뺨맞는것을 어리석다고 하는데 뺨을 맞고도 제것을 주지 못해하는 바보가 있다고 누가 믿겠소?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게요.》

《...》

《후회하지 마시오!》

환선길은 그것으로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어느덧 그의 걸음은 빨라졌고 인차 바다가기슭으로 멀어져갔다.

유겸필은 멍하니 서있었다. 쇠몽둥이에 머리를 얻어맞은 때처럼 머리가 뻥하고 뭐가 뭔지 알수 없었다.

저 사람은 왜 왔을까? 무엇때문에 군사가 필요했을까? 환선길은 무엇인가 속에 먹물을 품고있다.

유겸필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도 두려워 났다.

(혹시 모반을?...)

유겸필은 소스라쳤다. 그래서 자기가 삼국통일을 위한 군사를 키운다고 했을 때 실망한 빛을 보였고 그래서 한사코 군사를 달라고 한것이 아닐가. 아직은 의심할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환선길의 인간됨으로 보아 능히 그런짓을 저지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빨리 가서 임금에게 아뢰어 이것을 막아야 한다.

한걸음 내짚던 유검필은 주춤했다.

자기는 귀양살이를 하는 죄인이다. 나라법에 의하여 이 섬을 벗어날수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것은 임금이 귀양살이를 하는 자기의 말을 믿을것인가 하는것이다. 마군장군을 호위 무관으로 두었을 때야 그를 어느정도 신임 한다는것을 알수 있지 않는가! 반대로 자기는 말을 안한것보다 더 곤란한 처지에 빠질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던 유검필은 다시금 소스라쳤다.

결국은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한것이 아닌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여 반역을 치는것을 주저한 것이다. 만일 자기가 해를 입을가 두려워 입을 다물고있다면 이것도 역시 다른 형태의 반역이다.

사람의 마음은 충성이나 반역이나 하는 두 계선에서 오르내리는것이지 중간이 있을수 없다. 생각해보면 자신을 생각하여 모든 일에 그냥 《잠자코 있는》 관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무엇인가 한다고 나섰다가 도리어 죄를 짓고 그자리마저 유지 못할가봐 나서지 않고 시키는 일이나 하며 사는 관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에게 리익이 올것인가 손해가 올것인가부터 타산한다. 그리고 자기 리익을 많이 취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줄 모르는 바보라고 한다. 사람들이 나라일을 두고 리득이 올것인가 손해가 올것인가를 타산하는것 자체가 크나 작으나 반역적이다. 유검필은 이 순간에야 그것을 명확히 깨달았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며 소리쳤다.

《관유 있느냐? 관유야! -》

멀지 않은곳에서 근심스레 서성거리던 관유가 달려왔다.

《아버님, 무슨 일이오니까?》

《이제 곧 개경에 올라가거라!》

《네에?》

《나의 글을 삼강께 올려다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려야 한다.》

《알겠소이다.》

다음날 유검필은 관유와 함께 해변으로 나왔다.

개경으로 떠나는 아들을 바래주려는것이다. 그들이 바다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장군! -》

스룩스룩 모래를 밟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명령이 나타났다.

《바다를 보시오이다.》

《응?》

배 한척이 섬으로 다가들고있었다. 돛대가 찢어지고 배전에 화살들이 꽂혀있었다. 그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갔다. 배에서 제일 처음 맞아

준것은 피비린내였다. 가슴이 섬찝했다. 배우에서 부상당한 고려군사들이 내리고있었다. 유검필은 군사들이 부축하여 내리는 중상자가 대광 만세라는것을 깨달았다. 어깨가 피에 절고 한쪽 팔소매에 철갑 패쪽이 떨어져나간 갑옷도 모양이 없었다.

《어찌된 일인가?》 유검필은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만세는 머리를 떨구었다.

《후백제수군의 공격을 받았네. 나도 삼국의 화합을 위하여 싸움을 피하고자 했으나 어쩔수 없었네. 면목이 없게 됐네.》

유검필은 칼에 찔린 사람처럼 피로운 신음소리를 내었다. 후백제군이 승세를 타고 쳐들어오면 싸움은 불가피하다. 어이하여 후백제왕은 백성의 뜻을 외면하고 대결에만 급급하는가? 이제라도 화합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할것인가? (그후 을미(935)년 6월 후백제왕 견훤이 고려에 들어오기를 청하자 고려정부는 지나간 일을 백지로 하고 장군 유검필과 대광만세에게 령을 내려 군함40척을 라주에까지 보내어 반갑게 맞이하였으며 견훤을 상부라고 부르고 품계를 백관의 우에 있게 하는 우대조치를 취하였다. 그해 10월에는 신라왕 김부가 또 고려에 들어오기를 청하였으며 이것으로 화합을 통한 삼국통일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 3년 유여의 세월이 남아있었으며 그전까지 견훤은 계속 대결자세로 나왔던것이다.)

유검필은 입술을 깨물었다. 빨리 출전하여 싸움이 더 커지기전에 막아야 한다.

유검필은 관유를 돌아보며 말했다.

《넌 어서 떠나거라!》

관유는 아버지의 입술이 앙다물린것을 보았다. 번개같은 섬광이 뇌리를 밝히고 지나갔다.

《혹시 아버님은?...》

그는 눈이 화등잔만해져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래!》 하고 유검필은 그의 의문에 확답을 주었다. 《나는 군사들을 데리고 출전하련다!》

관유는 경악했다. 입을 항 벌리고 화석처럼 굳어졌다.

《아버님, 나라법을 어길 생각이오니까? 아버님은 이 섬을 떠날수 없지 않소이까.》

《아무래도 어겨야 할가부다.》

《아버님!》 관유의 손끝이 바르르 떨렸다.

《공을 세우더라도 죄를 들쓰게 될것이오이다. 아버님은 어이하여 이런 때마다 자신을 자제하지 못하오니까?》

《그건》 하고 말하는 유검필의 얼굴근육은 굳어져있었다.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천박한 생각을 앞세우지 않기때문이다.》

《...》

관유는 대꾸를 하지 못했다. 다리를 후려맞은

듯 비칠거렸다.

《아버님이 잘못 루명을 쓰면 자식들이 어떤 바가지를 쓰고 하늘을 쳐다봐야 하는지 생각해보신 적있소이까?》

유검필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는 감히 아버지에게 살줄 아는법을 가르치려든다면 사는법은 너희들이 아버지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자기 한생으로서 너희들을 가르치려다. 허끝으로가 아니라...》

부상자들속에 묻히여 그들의 대화를 듣고있던 만세가 유검필을 찾았다. 유검필이 다가가자 만세는 성한 손으로 유검필의 손을 꼭 잡았다.

《내 할 말이 없소. 정말 대광같은 충신은 고금에 드물거요. 아마 천품이겠지?》

유검필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후삼국이 패권을 다투고 각곳의 성주들이 각자 이위대장이어서 제노라고 나섰지만 삼국을 통합하고 고구려의 옛땅을 찾고저한 사람은 우리 성상밖에 없었소. 백성들이 화목을 도모하고 빨리 통합되기를 원하는데 성상의 그 뜻을 따르는 것은 응당한 도리가 아니겠소?》

《나라법을 어기면 또 죄상첨죄가 되겠는데 또 귀양을 가도 후회하지 않겠소?》

《웁으나그르냐는 후세가 대답할게요!》

만세는 자기 군사들에게 술상을 차려오라는령을 내렸다.

《전에 장군을 위로하여 드린 술은 거절당했지만 이번 술은 장군의 그 뜻에 감복하여 나도 그렇게 살고저 드리는것이니 받아주길 바라오!》

유검필은 눈곱이 화끈해왔다.

《고맙소.》

결에서 지켜보던 관유는 머리를 푹 숙였다.

유검필은 명령을 시켜 군사들을 모이게 했다.

잠시후 출전령이 내렸다.

X

바다정세가 안정되었을 때 유검필은 임금의 부름을 받았다. 유검필은 개경에 올라와 왕궁에 들어섰다.

자황포를 입고 구류면을 쓴왕건이 오장복을 입

고 칠류면을 쓴 1품관리들을 데리고 마주나왔다.

임금은 유검필의 앞에 다가섰다.

유검필은 두손을 맞잡고 황황히 엎드렸다.

《상감마마!》

《경은 대체 어떤 사람이요?》 왕건의 물음이었다. 《임금의 령이 없이 귀양지를 벗어났으니 후의 일이 두렵지도 않았는가?》

《벌을 받아 마땅한줄로 아뢰옵니다.》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이 임금의 측근에 있는 신하에 대하여 반역이 있을수 있다고 상소했으니 도리어 자기가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던가?》

유검필은 머리를 조아리었다.

《소신은 달리 행동할수 없었나이다. 밀어던진다고 해도 벌을 받는다교 해도 성상을 따르는 길 외에 다른 행동이 있을수 없나이다.》

임금은 머리를 주억거렸다. 유검필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경은 실로 죄없이 귀양을 살게 되었지만 원한을 품지 않고 오직 나라를 도울 일만을 생각하였으니 충신과 간신을 가리지 못한 내가 심히 부끄럽고 후회되는바요. 환선길은 경이 우려한대로 반역을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켜 왕궁에까지 짓쳐들었다가 개죽음을 당했소. 그가 파인의 결에 경이 있는것을 가장 두려워하여 참소한것을 내 늦게 깨달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소. 파인의 소망은 장차 자손들에게까지 연장하여 상주어 그대의 충절에 보답하자는것이요.》

유검필은 황황히 엎드려 절하였다.

《소신은 상보다도 저의 마음이 자손들에게까지 전하여지기를 바랄뿐이오이다. 더구나 소신이 귀양지를 리탈하여 나라법을 어기였은즉 죄를 받아야 할줄로 아뢰옵니다.》

임금은 불덩어리를 삼킨듯하여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나라를 지킨것은 곧 나라의 법을 지킨것이요. 파인이 그대에게 주는 벌은 자손들에게까지 상을 주는것이요.》

유검필은 황공하여 머리를 수그렸다.